

네이버카페 바로가기: <https://cafe.naver.com/herecamelight>

dada수행글모음 Part2

ft. 그리스도의식으로 거듭난 솜사탕

[목차]

Chapter1. 서로를 보지 못하는 예고와 신성

- [1.미친마음\(병신\) vs.바른마음\(정신\)](#)
- [2.잡혀 죽을까봐 무서울 때 화가 납니다](#)
- [3.신성을 되찾겠다는 요구](#)
- [4.죽음의 공포, 청산해보자](#)
- [5.의식집중과 한마음](#)
- [6.하나님 마음이 여러분께 원하는 것](#)
- [7.감정 파헤쳐 용서할 때 조심할 점](#)

Chapter2. 솜사탕, 시체 한 구, 영적예고

- [8.가위놀림 답변](#)
- [9.파동체 매트릭스의 구성](#)
- [10.세상이라는 시체 한 구](#)
- [11.하나님 먹살 잡기](#)
- [12.솜사탕, 특별함, 권위문제](#)
- [13.솜사탕 집단 역학](#)
- [14.잡썰 + 영적예고](#)
- [15.실체가 없지만 끼어들어서 내가 했다고 주장하는 예고](#)
- [16.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려는 욕구](#)
- [17.감정이 전보다 잘 올라오지 않는다?](#)
- [18.한의 저장고](#)
- [19.바디스캔 해보자 -\(1\)](#)

Chapter3. 그리스도의식, 성령의 마음

[20.실전! 권위문제 청산해보자](#)

[21.아무것도 해야 할 것이 없다](#)

[22.그리스도의식의 각성상태-\(1\)](#)

[23.그리스도의식의 각성상태-\(2\)](#)

[24.그리스도의식의 각성상태-\(3\)](#)

[25.그리스도의식의 각성상태-\(4\)](#)

[26.진지한 구도자가 가져야 할 자세](#)

[27.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28.성령은 세상을 어떻게 볼까요](#)

Chapter4. ‘성’과 죄책감, 폭군의식 등

[29.성행위와 죄책감](#)

[30.성, 섹스, 구원자게임-\(1\)](#)

[31.갯을 위한 정화 기도](#)

[32. 죄책감을 느끼지 않겠다는 결정](#)

[33.올바른 수행의 척도](#)

[34.독재자, 폭군 청산을 위한 기도](#)

[35.뭐든지 내가 한 건 잘했다](#)

[36.잠, 몸변화, 식습관 등](#)

Chapter1. 서로를 보지 못하는 예고와 신성

1.미친마음(병신) vs.바른마음(정신)

미친듯한 마음이 올라와서 욕구가 날뛰고 괴롭다는 글에 대해 댓글을 달다가
길어져서 또 새 글로 올립니다 ㅋㅋ 오늘은 매운맛 다다군요

무의식이 통째로 미친마음이라고 했자나? 침부터 끝까지 그런마음임 ㅋㅋ
미친애를 이해하려고 하면 의미가 전혀 없음 이해가 안되도록 만들어져
있는거야 왜냐면 미쳤으니까.

협상도 안통해 달래도 안통해 말도 안통해 이성도 안통해. 인정사정 보지말고
불쌍해하지도 말고 족족 다 버려버려 미친마음에게 동정심 가질 필요조차
없다 미쳤으니까 뭘 하고 있는지 자기자신도 모른다.

그러니까 사정 봐줄 필요 없다, 그 마음이 자꾸 자기가 나인 척 하는데 내가
아니다!! 다 버려!! 내 마음인 줄 아니까 버리려고 할때 무서워서 못
버리는데, 내 마음 아니다!! 한 때는 내 마음이었지만 이제는 그 마음 더이상
갖고 있고 싶지 않다고 한번이라도 생각이 들었다면 그것은 이미 내 마음이

아닌 상태를 그려냈으므로 내 마음이 아닌것이다. 그러면 버릴 일만 남은거지.

극단적이지만 미친마음이 올라오면 이런정도의 각오가 아니고서는 수행을 할수가 없다 그정도로 그 미친마음은 사람을 돌거같고 미쳐버리게 만들고 평소에 안하던 말 하게 만들고 평소에 안 원하던 걸 원하게 만들고, 밤거리를 외로워서 배회하게 만들고, 가족과 싸우게 만들고, 친구하고도 틀어지게 만들고, 돈한푼 없게 만들고.. 완전히 니가 죽나 내가 죽나 둘중하나임. 이거를 불쌍하다고 내면아이 봐준다고 끌어안아주고 이런 거 다 속는거야. 끌어안아주는 건 성령이 할일이고 내가할일은 철저히 파헤쳐서 다 성령에게 넘기는일임. 동정심 1도 갖지 마. 아주 냉정해야됨.

개랑 멍살잡고 진흙탕싸움하라는게 아니고, 절대 싸우지 말고 위에서 봐서 개가 혼자 난리치는거를 위에서 바라봐, 냉정하게 개가 내가 아니라는걸 인지해서 성령에게 족족 넘겨주라는말. 자꾸 그 미친마음이 나인척하는데 그건 내가아니야.

넌 내가 아니야 너는 내가 원하는 마음이 아니야 하고 자꾸 객관적으로 봐서 성령님께 이마음을 용서해주시기를 청합니다, 이것에 집착하지 않게 되고 싶습니다, 성령께 이것의 실체를 바로 보고 넘겨드리게 해주십시오 하고 생각 감정이 올라오는 "매번" 그렇게 해야하고, 미쳐버릴거같고 괴로우면 버피테스트같이 격렬한 운동 1분만 죽어라 하면 정신이 번쩍 듬. 평소에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정갈하게 하지 않으면 "매번" 은 커녕 늘상 짐. 그래서 정신을 올바르게 유지하기 위해 여러가지로 노력하는 것이 꼭 필요함.

이게 진짜 수행이고, 이거를 못하고 있는 분은 아직 깊이있게 들어온 것이 아님. 진짜 수행은 정말로 아마겟돈 같은 느낌을 몇년이고 이겨내야함, 내 모든 걸 걸고 이겨내야만 이겨진다, 기진맥진해서 쓰러져버리고, 이런과정이 없으면 진짜로 카르마를 지우고 있는것이 아님.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이런거 나오잖아 사탄 마귀에게 유혹받고 이런거 나오자나, 자기가 자기자신을 깨서 부수는거기 때문에 이런 도전을 겪고 있는건 그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런거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등뒤에 예수님(부처님이든 하나님이든) 있다고 믿고 하나님 품속에 있다고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다 깨서 버려버려

돌아버릴거같이 괴로운때는 사실 자기가 자기 주권을 넘겨주고 괴로워하고 싶어서 괴로워하고 있는 상태인데, 카르마를 거스르는게 쉬운게 아니라서 매번 객관적으로 봐지지가 않고, 늘 성령만 보게 되기까지는 훈련이 필요함, 고통스러운 과도기가 있게 마련. 아무리 노력을 하지만 정말 힘들 때는 죽을 정도로 힘들게 맞음.

힘들땐 내가 누구인지 잊고있는거, 나는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처럼 완벽하다, 나는 아무 죄가 없으니 벌 받을 필요가 전혀 없고 고통스러워하며 배울 필요가 전혀 없다 하고 읊어, 그러고 싶지 않은 기분일 때라도 기적수업 문구 모아놓거 같은거 들고 크게 읽어, 읽다보면 괴로운데 집착하는 마음이 놓아지고, 눈물콧물 줄줄 나면서 진짜 악마를 쫓는 것 같은 기분이 들거야.

미친 마음은 자신의 기존의 잘못된 믿음, 착각이므로 이것이 내 몸을 구성하고, 내 뇌파를 구성하고, 온몸 근육에 전기신호로 경락을 통해 돌면서

자극을 주고 있음, 바른마음으로 미친마음하고 한판 붙으면 그 마음 둘다 내 마음이니 뱀이 자기 몸 꼬리부터 삼켜나가는 건데 이게 쉽겠냐 절대 안쉽겠지? 근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거고, 내 바른마음이라고 해봤자 최대치 해봤자 한계가 있어.

성령은 하나님 권위의 대행자니까 막강한 파워가 있기 때문에 힘들때는 내가 성령을 안써먹고 내 마음 가지고 맞서싸우고 있는거임, 상념은 힘이 있고 이 가짜 세상에서는 생명체같은거임, 이 상념이 가짜줄을 모르고 진짜인양 내가 힘을 부여하고 있다면, 나를 두고 아스트랄하게 귀신들이 서로 싸우는거랑 똑같음!! 진짜 악마의 유혹같이 느껴짐!!

근데 악마가 어딴냐? 다 가짜라는거 알고, 맞서싸우지 말고 나는 파헤쳐서 보기만 하고 바로바로 성령에게 넘겨, 내가 하려고 하고 잡고 있으면 고통만 연장됨!! 수행하면서 평상시에 늘 우울하고 괴로우면 뭔가 아주 잘못하고 있는거임 평소에 룰루랄라 행복해야됨!! 수행 앞서서 기억 떠올려 청산하거나 감정 토해서 말하기 할때만 속을 들이파서 보는거야

넘긴다는 것의 의미는 내 힘으로는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에 순응하는 마음을 내어서 한발짝 물러나는 것임, 잘 모르겠으면 "성령(하나님)님께 이 마음을 넘겨드립니다 성령께서 보고 판단하소서" 하고 일단 말부터 여러번 해 그러면서 그 마음 붙들고 있고 싶고 <그거 버리면 나도 죽을 것만 같은> 그 마음과 나를 동일시하는 마음도 느껴보고, 그 집착하는 마음조차 내 진짜 마음이 아닌 내 마음에 들러붙은 착각이라는 거, 그 긴장감과 무게를 느껴보고, 발톱 빼는 것 상상하고 살살 달래서 놓아버려. 놓으면 성령에게 넘어가는거

살살 달래서 놓지 않고 쓰나미처럼 산사태처럼 폭풍우처럼 쏟아붓듯이
와장창 다 버려 버릴 수도 있어,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느냐에 따라
한번에 얼마나 큰것을 얼마나 많이 버릴수 있느냐가 다른거야.

다 버려 버리면 실제로 몸에서는 에너지가 팔다리 기혈을 통해 다
나가버리면서 근육통 두통 구토 몸살이나 열이 나는 등등 몸에서 빠져나갈때
반응이 심하게 일어나기도 함, 나중에 기혈이 열리면 이런일은 없고 다만 너무
많이 나가버리니까 멍~ 해지면서 픽 쓰러져 쉬어야 됨 ㅋㅋㅋ 이때 빛이 몸에
들어옴, 전에 말한 파동이 아닌 신계의 수직빛임. 파동인 가짜마음(원래 진짜
마음이지만 착각을 해서 변형되었다고 믿고있는 마음의 일부) 버리는 딱
그만큼 빛이 들어와서 새 몸을 구성함.

기선제압을 제대로 하면 쉽게 가는거고, 기선제압 못하고 어 어 왜이렇게
힘들지 하면서 딸려가면 인생에서 정신차리라고 나쁜일로 계속 친다.
수행하면서 왜 나쁜일 일어나냐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기선제압 안하고
있어서 그런거임.

기선제압이란 내가 이겨야된다 악을쓰는게 아니라, 내 배후에 성령 하나님이
있으니까 나는 엄청난 권위와 힘의 계승자다 이런 인식을 강하게 가지면 예고,
미친마음이 쪽을 못써서 현실에 그런일이 안생김. 나중에는 좀 심심할 정도로
아무일도 안생기고 주변 사람들도 안좋은일이 없어서 폭풍이 마구 치는 데서
나랑 내 주변 사람들만 비바람 안맞고 햇빛쬐고 있는듯한 느낌이 됨!!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깊이 생각을 해보고 예고가 어떤 존재인지 내 인생이 이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깊이 생각을 해보야 기선제압이 됨. 그냥 막 하지

말고 때로 시간을 내서 생각을 의도적으로 해보세요!! 걱정하고 생각을 하는 것은 대단한 효과가 있음.

2. 잡혀 죽을까봐 무서울 때 화가 납니다

에고에게 넘어간 마음의 일부는 내가 세운 가짜 신에게 잡혀 죽을까봐 통째로 공포에 떠는 마음이라서 화가 나는 건 방어하고 있을때 그렇고요. 내가 집중하고 있는 특정 죄라는 부분을 남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을 때 그걸 내가 내거라고 인정하게 되면 난 신에게 잡혀 죽을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내꺼 아니라고 니꺼라고, 나를 방어하고자 할 때 화가 납니다.

내 잘못 아니야 니 잘못이야. 나는 죄없어 라고 적극적으로 외치는게 분노랍니다.

강아지가 무서우면 멍멍 짖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남이고 나고 그런거 없고 전부 내가 연출한 그림이랍니다. 그래서 남이 보여주는 죄나 내가 보여주는 죄나 전부 다 내 마음에서 똑같은건데, 유독 내가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이걸 해결하라는 신호로 보시면 됩니다.

외적으로 어떻게 보이든 상관없이 화가 난다면 찢려서 그런거랍니다. 상대가 내 무의식에서 숨기고 있는 부분을 정확히 뼈를 때릴 때 드러나니까 화가 나는거죠. 예를 들면 넌 속좁은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본인이 무의식중에 나 속좁은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 경우에만 화가 나는 거예요. 너 못생겼어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본인이 무의식중에 나 못생겼네 라고 믿고 있는

경우에만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못생겨서 하나님이 날 미워할거야 그러니까 난 내가 못생긴걸 숨겨야 해

(막상 못생긴걸 싫어하게 된 건 하나님이 날 미워함을 입증하려고 그런 감정 가지고 있는건데 이것조차 숨기려고 내가 못생겨서 하나님이 날 미워한다고 스스로에게 억지 납득을 시킨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형도 했고 여러가지 노력도 하는데 그런데도 내가 못생긴게 드러나다니 진실이 밝혀지면 난 고통 당하고 죽어야 해 (이상한 논리죠? 무의식은 진짜로 이렇게 믿고 있어요) 밝혀지면 절대 안돼! 난 고문당하고 죽을테니 나를 방어해야 해. 이렇게 되는거예요

나에게 누가 화를 내고 있으면 그럼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일까요 가엾은 사람일까요? 내가 좀 도와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지하신다면 스스로를 돕고자 하는 마음을 내시는 거랍니다.

나한테 화내다니 이놈 죽일놈이네 하고 생각이 계속 든다면 내가 죽일놈이라서 저놈도 죽일놈으로 보이는거죠.

근데 죄라는게 착각이잖아요. 아무도 죄 없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은 실수는 할 수 있어도 죄를 지을수는 없다고요. 기적수업 1440 페이지에서 계속 반복하는 개념이잖아요 이걸 하도 못 받아들이니까. 수행 시작하면 진실을 보는 능력이 강화되니까 화가 더 많이 납니다.

전에는 그냥 넘어갔을 일도 감정이 마구 요동치지요. 예고를 자꾸 보게 되서 예고마음 즉 죄책감이라는 것에 민감해지니. 조그마한 일도 내 죄인가? 하고

찢리는 마음이 전보다 잘 인지되는거예요. 진실을 보는 능력이 강화되는건데 현대사회같이 감정 억누르는 사회에서는 무척 괴로운 일이죠. 이거를 수행 초기에는 왜그러는지를 모르니까 사람 없는데서 화풀이 해가면서

내가 왜 그러고 있는지 겹겹이 방어하는 마음을 해제해서 눈물 콧물 뺏고 나서야 본질을 볼 수가 있는데 그걸 수십번 수백번 하다 보면 이게 다 똑같은데? 무서워서 화내는구나 잡혀 죽을까봐 방어하는구나 하는걸 알게되요.

저도 저한테 질문하는 댓글 달릴때 드물게 어떤 댓글은 보고 있으면 왜 나한테 이런것까지 물어보는데? 니가 알아서 해라 나랑 무슨상관? 이런 마음이 올라오죠. 내가 아직 풀지 못한 동일한 마음 파동을 남에게서 보는 경우지요. 대부분의 경우엔 마음을 돌이켜서 그런 나를 용서한 후 댓글을 다는데요. 오늘 새벽에 마음이 흐트러져서 어떤 분에게 무례하게 대했네요.

성령에 대한 원망을 댓글 달아주신 분인데 성령이라고 표현 했지만 사실 신에 대한 원망이죠

제가 요새 그걸 다루고 있는데 오늘 새벽엔 쓰신 댓글중에 성령에 대한 욕이 섞여 있었는데 제 마음이 방어를 하고 있다보니 딱 그거밖에 안보이고 메시지 전체의 의미가 안보이고 나쁘게만 보이더군요.

힘든 와중에 도움받고자 댓글 다셨을텐데 제가 공부가 부족해서 그런일이 생겼네요. 이거 보고 계신다면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고 혹시 오픈카톡 달아주신다면 개인상담해서 좀 도와드릴 부분 있으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올바른 수행을 시작한 후에는 누구든지 실수를 하고 때로는 뭐가 잘 안되어서 뒤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싶을 때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벌주고 싶고 학대하고 싶고 형편없이 대하고 싶은 마음이 모두 안에 있어요. 수행 하면 깊이 볼수록 그 마음도 보게 되기 때문에 때로는 그 마음이 올라와 뒤로 가는듯이 자기자신을 형편없게 대하게 되기도 합니다.

수행은 시작하면 뒤로 가는 것이 없습니다. 정체는 될 수 있지요. 벌 받아야 한다는 믿음을 놓지 않고 있는 경우 그만큼 정체 됩니다. 벌 안 받아도 되요. 죄 없어요.

그렇게 아등바등 하지 않아도 되요. 벌 받지도 않고 죽을래야 죽을수도 없어요.

자기자신에게도 가혹하지 말고 모두 용서하는 하루가 됩시다. 신에 대한 원망이 올라올 땐 신을 사랑하고 있어서 원망으로 둔갑한 거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한때는 신의 품속에서 신에게 무한히 사랑받으며 신의 사랑을 행사하며 지냈던 기억을 우리 모두가 나누어 가지고 있고 이게 바로 성령입니다.

신에게 사랑받고 사랑했던 기억 = 성령

그래서 누구나 마음 저 깊은 곳에서는 성령을 너무나 사랑한답니다. 지금 여기서 괴로우니, 한때 완벽하게 사랑했던 기억따위 떠올리고 싶지 않겠죠? 그거 떠올리면 너무 격차가 느껴져서 마음이 아플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버린 게 뭔지 알아야 하니까 너무 힘들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보려고 기억 안하려고 숨기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아프기 싫어서 성령이나 신을 탓하고 욕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도 화풀이 하듯이 다 풀어서 밖으로 버리시면 됩니다. 성령은 자기 욕한다고 화내지 않고요, 이제야 나에 대한 사랑을 찾으려고 하는구나 하고 기뻐한답니다.

3. 신성을 되찾겠다는 요구

안녕 친구들 오랜만에 안녕 친구들 해보니 새롭네 ㅋㅋㅋ오늘은 강 편하게 반말로 글써볼게! 여기 모인 분들을 존경하지만 형식면에서 너무 진지해지길 원치 않으니 때로 내키는대로 편하게 쓸려고 ㅋㅋ

지금까지 솜사탕에 비유한 개별 에너지체가 무슨짓 하는지 이야기를 해봤으니 이제 전체적인 시야로 전체 그림을 말해보자. 기적수업은 전체적인 시야로 말하고 있기에 전체 그림을 알면 이해하기가 편하다. 여러가지로 전체 그림을 설명할거라 글을 몇 편으로 나눠서 쓰게 될 것 같다. 이 글에서는 아직 전체 그림에 대해 말하지는 않고, 신성을 되찾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다.

또한 이제 우리는 기본기를 다루는것에서 더 나아가서 견성하신 분들도 몇몇 계시기 때문에 내면의 신성을 요구하고 되찾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내 글 안보던 분이 이 글부터 보면 미친 놈처럼 보일테니 예전 글부터 보시거나, 보기가 귀찮으면 그러려니 하시기 바란다.

우리가 수행을 할 때는 나 라는 개별체부터 건드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나 라는 솜사탕부터 보이기에, 남도 솜사탕으로 보이는 시기를 한참 겪게된다. 보는 능력이 강화되면 죽고 죽이려는 살기의 패턴이 고스란히 보이게 되고 이 시기는 상당히 곤혹스럽고 힘든 시기이다.

이 시기는 초기 뿐 아니라 세상의 실체를 다 보고 나서도 한참동안이나 계속된다. 이 곤혹스러움을 겪기 싫으면 내면을 들이파지 말고 기적수업만 하기 바란다. 하지만 한국인의 한의 민족의 특성을 설명했고 감정을 버려야 돌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보여야 없앨수가 있기 때문에 끔찍한 걸 보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고, 이걸 안보고 전체의식으로 건너뛴수는 없다. 무의식이 얼마나 맹렬하게 공격적인지 못본 사람은 수행을 우습게 보고 조심성이 없게 되며, 무의식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 보지 못한 자는 자비로운 마음을 낼 수가 없게된다.

당연하지 않겠는가? 그냥 고통스러울거다 생각만 하는 거랑, 들춰서 다 보는 게 어떻게 같겠냐? 살기라고 남이 말하니 그런가보다 하는거하고, 자기 내면의 갈아죽이고 싶은 마음을 직접 보는 게 어떻게 같겠냐?

아! 이렇게, 이렇게까지 고통스러워 하고 있었구나! 이렇게까지 분노하고 있었구나!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기도 모르게 저렇게 미친 짓 하는 거였구나! 고통은 못보고 미친짓만 보이는 내가 오만한 거였구나! 이 정도로 맹렬하게 죽이고

싶고 이 정도로 죽고 싶은 절망적인 마음이 있는데도 이 정도로 버티며 살고 있는 건, 사랑하기 때문이었구나! 하는 마음이 들고 기꺼이 안아줄 수 있는 마음이 드는 게 제대로 본 것이다.

직접 내면을 밝혀 알게 되면 세상의 고통이 가슴속에 생생히 와닿고, 죽이고 싶은 그 마음을 더는 내 것이 아니라며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 나쁜놈이 아니라 아픈사람만 있다는 걸 알게되고 넓은 가슴으로 모든 고통을 껴안아줄 수 있게된다. 넓디 넓은 가슴으로 사랑하기 위해 온갖 한을 쌓아왔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

이런 게 한번에 될리는 없지? 나쁜놈으로 보였다가 아픈사람으로 보였다가 제정신이었던가 혼미했다가 왔다 갔다 좋다고 울다가 괴롭다고 울다가 보였다 안보였다 하는 시기를 몇 년이고 겪게 된다. 사람의 몸이 파동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뇌파도 정신도 파동이기에 왔다 갔다 잘되었다가 안되었다가 하게 되어 있다. 갈등이 심하게 왔다 갔다 하는걸 수행이 덜되었거나 잘못되어서 그렇다고 알면 그거야말로 착각이다.

수행 좀 했으니 늘상 평화로워야 된다고 생각하면 크게 착각하고 있는거고 좀 나쁘게 말하면 쯔생이같은 마음이니 그 마음 버리기 바란다. 크나큰 마음자리 그려낸 크나큰 마음에게 이정도 괴로움은 별것 아니기 때문이다. 신성을 되찾으면 그것은 영원하다. 영원한 자에게 몇년정도의 괴로움이 무엇이겠는가?

수행이 깊어질 수록 파동을 보고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커져서 파동의 극단까지 직접 다루게 되기에 믿음이 강하고 의지가 굳을수록 더 크게 갈등하고 요동치는 그림을 보게 되고 그림의 실재같은 견고함은 자기가 보는 만큼 무너져내리기에 인생이 확확 변하게 된다.

세상이 진짜였으면 하는 무의식 마음의 애착을 상당부분 지워내기 전까지는 요동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인생이 좀 변했다고 안주하고 수행 잘했다고 안심한다면 거기서 그 사람의 수행은 더 멀리 가지 못한다. 계속해서 향상하고자, 더 더 깊이 보고자 하는 의지를 내지 않는다면 거기서 정체가 된다. 마음이라는 속성이 원래 그렇게 생겼다. 작은 목표를 완수하면 더 큰 목표를 세워야 갈 수가 있는것이다.

자기가 알고 있는 세상이 모래성처럼 완전히 허물어져 버릴 때까지 계속 진실을 보여달라고 외쳐라. 오직 진실만을 보여달라고, 진실이 아닌 것은 보지 않겠다고 굳건히 서서 계속 계속 요구해야 한다. 아무리 출렁 출렁 거리고 맹렬하게 죽일 것처럼 포효 하며 집어 삼켜도 난 이게 다 거짓임을 안다. 진짜를 보여다오, 진실만을 보겠다! 라고 하는 자 앞에서만 그 세상이라는 허상이 모래성처럼 바스라진다.

그냥 수행 하다보면 진실이 보이겠지 라고 한다면 좀 순진한 생각이다. 진실만을 보겠다, 진실을 보여라! 가 아니라, 진실을 보면 좋겠다, 진실을 보고 싶다 정도의 바램으로는 진실을 볼 수가 없다. 진실을 보는 것은 나의 강력한 요구, 명령으로 인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강력한 정신으로 강력하게 요구하라. 내 마음인데 왜 내가 가만히 앉아서 받기를 기다리나? 바로 내가 숨겨놓았거든, 나 자신이 못 보게 숨겨놨다고, 나 거기 가서 다 까먹어버리고 한참 헤맬건데 너네 그냥 지켜보기만 해?

내가 정신 차리고나서 강력하게 달라고 명령하기 전엔 돌려주지마! 하고 약속해놓고 왔단 말이야, 숨겨놓은거 파헤치면서 내꺼 내놔! 하고 당당하게 요구해야 돌려 받게 되어 있다.

이 당당한 신과 일치하는 마음이야말로 신성을 되찾는 열쇠이다. 왜냐면 이 세상은 나자신을 왜소하게 만들어 신 아닌 척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신에게 맞서는 오만함이 아니다. 신 앞에 깨끗하며 겸허하기에 신에게 받은 내 원래 권리를 요구하는 그러한 당당함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신 앞에 깨끗하고 겸허한 마음을 유지하려면 원망을 다 토해내어 진실로 말아져야 한다. 내꺼인줄을 명확하게 알아야, 당연히 내꺼니까 내놓으라고 할거 아냐??

좀 주세요, 주면 좋겠다, 라고 하면, 내꺼인줄을 모른다는거잖아? 그럼 내꺼가 아니게 되는거야! 마음의 세계는 정확하거든! 내꺼인거를 명확하게 알아야 내꺼 내놔! 하고 요구, 명령하게 되고 그래야만 내가 나자신에게 그걸 되찾는 걸 허락하게 되는거임.

진실만을 보겠다, 아니면 죽겠다! 정도가 되어야 진실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냥 세상의 찬란한 아름다움 정도 보는게 아니라 진실을 보는 거 말이다. 세상이 다 내가 투사해낸 그림이구나 다 내가 만든 인형이구나 하는 진실 말이다.

허상이 무너져내리고 진실이 찬란하게 빛날 때 내가 개별체가 아니며 세상이라는 기계를 만들어낸 존재라는 걸 알게된다. 세상이 허상이라서 그 매력을 잃을 것 같지?

반대로 세상에 신의 아름다움이 흘러넘쳐 온세상은 폭발할듯한 아름다움으로 가득차버린다.

세상에 생명을 수여한 것은 바로 나였다. 세상이 나의 명령으로 생명을 부여받은 것이다.

신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되기에 어디를 둘러봐도 신 밖에 없다. 새로 태어난 신인 나에게 세상 모든 것이 생명을 받은 감사함을 표한다. 내가 생명을 주었구나 하고 침묵 속에서 알게 된다. 왜냐하면 내게 생명을 주신 신과 나는 정확히 똑같기 때문이다.

신성을 되찾기 전의 영적 자각에서는 태어난 이유를 알게 되지만 신성을 되찾으면, 태어난 적도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개별체는 완전히 부인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신성을 찾은 초기의 자각상태로, 남은 개별체의 흔적은 계속해서 지워내야 한다.

신성을 찾는 게 쉬운 것처럼 써놨잖아? 근데 쉽다. 내 경험으로는 쉬웠다. 왜 이게 그렇게 어렵게 되었냐면 우선은 자기 감정을 토해내서 버릴 생각을 아무도 안하고

둘째로 진짜 자기자신에 대한 진실을 찾기를 당당하게 요구할 생각을 감히 아무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려운 건 그 이후에 남은 걸 지우는 게 어렵지,

신성을 찾는 것까지는 어렵지가 않다. 진짜를 보여 달라고 하면, 가짜부터 보게 된다. 그게 당연한 속성이다.

진짜를 가짜 뒤에 숨겨놓은 게 나자신이기 때문이다. 진짜를 보여달라고 해서 포장지 벗겨가면서 가짜를 먼저 보여주게 되는데, 이때 대부분 망설이고 두려워하며 뒷걸음질 친다.

마음의 세상에는 거짓이 없는데, 내가 명령 해놓고 물러서면 결국 내가 거짓부렁 한것이다.

내가 숨겨놓고 내가 거짓부렁하니 마음이 자기자신을 보여주려고 하겠는가? 뒷걸음질 치는 것이 보지 않겠다는 뜻이었으므로 내가 볼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까지만 보여주게 되는 것이다.

이걸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지금 삶에서 진리를 찾아헤매고 있다는 것은 전생에 수없이 진리를 찾아헤매었다는 뜻이며 지금 망설이고 있다는 것은 전생에 수없이 망설이며 뒷걸음질 쳐왔다는 뜻이다. 이게 만성화 되면 가짜 마음의 평화를 만들어 내게 된다.

마음이란 정말 교묘하고 무서운 것이다. 원하는 걸 다 만들어내는 게 마음이기 때문에 진실을 보겠다는 의지를 계속해서 내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외면하겠다는 의지이기에 자기가 만든 반쪽짜리 평화 속에 살게 된다.

이제 마음은 평화롭고 고통은 숨어서 작은 불편으로 꿈속에서만 보이게 된다. 언뜻 언뜻 무언가 하려고 했던 것이 있었다는 느낌이 있지만 곧 잊어버린다. 하지만 마음은 진리를 갈구해 왔으므로 결국 또다시 장막 앞에 서게 된다. 장막을 열어젖힐 때까지 얼마나 더 고통을 겪을 것인가의 문제다.

교착상태 뚫는 법 알려 줘잖아? 다 그렇게 갈팡질팡 뚫으면서 가게 된다. 원래 파동체라서 그런 것이다. 이 고통스러운 마음의 형태는 자기가 좋아서 그렇게 만들어놓은 거라서,

하나하나 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겠다, 외면하겠다는 마음이므로, 수행에 진전이 없게 된다. 무의식의 고통을 똑똑히 보기가 너무나 괴롭기 때문에 진짜 수행을 하는 사람이 드물고, 진짜 수행을 시작하더라도 도중에 대부분이 그렇게 이상한데로 빠져서 돈이나 벌고 있는거다.

처음부터 수행의 목적을 분명히 하기 바란다. 마음이란,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도록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최종 목적지를 완벽한 신의 평화로 삼고 가기 바란다.

신의 평화라는 엄청난 목적을 잡지 않으면, 가는 데 느끼는 괴로움을 감당할만하다고 느끼지 않게 된다.

개중에 깨달았다는 사람 중에 에고와 완전히 분리가 되어서 업장이 그대로 있는 몸이 의식하고 따로 노는데 자기는 깨달았다고 주장하며 괴팍한 성격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의식은 자기가 간절히 원하는대로 창조해내는 성질이 있어서 깨달음도 가짜로 창조해내는 것이 가능하다. 우리가 말하는 깨달음은 솜사탕 조직 하나도 남김없이 다 버려서 그 어떤 마음도 올라오지 않고 완전히 신성과 똑같아져야 깨닫는 거로 본다.

새로운 신이 태어나도 아직도 그걸로는 부족한 것이다. 남은 파동체 전부 다 지워야 한다.

다 지우지 않는 이상 항상 허튼 현실을 창조해 낼 재료를 갖고 있는 것이기에 완전한 신이 아닌 것이다.

4. 죽음의 공포, 청산해보자

글을 쓸 때는 여러분들 의식에 접속해서 특정 주제에 대한 공통된 마음속 무의식 파동 특히 저항감을 요리조리 깨어나가는 거랍니다. 이런식으로 썼는데 그 파동이 안 깨지면 저런 식으로 또 설명하면서 그 파동을 깨야 되기 때문에 글이 길어지는 거예요 ㅋㅋㅋ

미겔에서는 사람들 정신이 혼란해서 뿡! 정신차려라!! 하는 에너지를 많이 써서 글이 썬 거고요 여기 분들은 자발적으로 모인 분들이라 거기에 맞게 부드러워 지는 거예요 ㅋㅋ 읽는 사람은 글 읽으면서 받아 들여지는 부분에서 또 파동 깨지면서 자기 몫 하는 거고요 댓글 다는 분은 거기에 또 빛을 밝혀 주면서 다른 분들 도움 주는 거고요!

자주 들어오고 댓글을 자주 쓰시고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분들은 이 집단의 수호령이랄까 천사 같은 존재들의 지지를 공통적으로 받게 됩니다. 원래 개네들이 해야 할 일을 우리가 대신 해주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로 같은 팀으로 인식해서 전폭지원 받는 거예요.

이렇게 집단을 이루고 있으면 다같이 수행빨 보호빨 받는 이런 좋은 점이 있지요! 우린 기적수업을 하고 있으니 우리를 수호해주는 존재는 보통 수호령이 아닌 예수님이 직접 부하들 이끌고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수업 읽을때 어깨에 손 올라오는 느낌이나 뒤에 누가 있는거같은 느낌 가진 분 안 계세요? 눈에만 안보이지 예수님이 쓴 책이라 예수님이 오~ 내가 쓴거 읽고있네? 잘 알아듣고 있나? 뭐 좀 도와줄까? 필요하면 불러라. 하고 등뒤에서 기웃기웃 보신답니다. ㅋㅋㅋㅋㅋ 재밌죠? 예수님은 몸이 아닌 그리스도 의식이라 한번에 수많은 장소에 계신답니다.

아무튼 보통은 별 반응이 없고 악플같이 강한 감정이 있는 댓글에 대댓글 달때 파동 깨지는 느낌만 좀 있는 정도인데 이번에는 쓰다보니 현기증과 두통을 유발하는 파동이 올라오네요 ㅋㅋㅋ 여러분들 수행 하면서 죽음의 공포를 별로 안보셨군요!! 이거 보고 많이 청산 하시라고 적나라하게 써봅니다!! 죽음의 공포를 청산 하시면 병을 일으키는 파동도 청산 됩니다!!

목걸이나 폴라티 못하는 등 목에 민감하신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 :

목 매달아 죽었거나 목 매달아 죽은 어머니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을 보는 충격을 상상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용서하여 청산 하시면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만화 보는데 거기 목매달아 죽는 거 큰 컷으로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너무 너무 무서웠고 침대 때 방문을 열면 가족이(엄마가) 목매달아 죽어 있을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저도 그렇게 목걸이나 폴라티 못하는거 있었고요. 나중에 수행 후에야 전생에 가족을 목 졸라 죽었거나 내가 목매달아 죽거나 가족이

목매달아 죽는 걸 보는 등 목매다는 것에 집착하는 ㅋㅋㅋㅋ 그림을 그렸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지요 ㅋㅋㅋㅋ

케이트 윈슬렛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 중에 아마 19세기 영국 배경이었던 거 같은데 아이들이 4명인가 있었는데 어느 날 방문을 여니 아이들이 통째로 목을 매달아 일렬로 죽어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큰 아이가 작은 아이들을 갓난아이까지 다 목을 매달고 자기도 목매달아 죽은거죠. 저는 이거도 대박 충격이었고요 손이 벌벌 떨리고 배가 아프고 땀 나고 그랬어요. 어느 영화인지 필모그래피 찾아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영화 잘 아시는 분은 제목 알려주시면 감사..

그리고 어디 부엌, 광 같은데서 대들보에 흰 옷 입은 엄마가 목 매달아 죽은 걸 올려다 보는 기억이 떠올라 그거도 한참 청산 했어요. 청산 하다보니 한두번이 아니라 여러 번 목 매달아 죽거나 질식해 죽거나 목을 졸라 죽이거나 이런 삶을 가졌더라고요. 조상들이 공통적으로 가질만한 기억, 뭐 주리 트는 고문이나 인두로 지지기, 멍석말이같은거 떠올려보시면 감정 올라오는 분들 많을 겁니다. 특히 멍석말이는 자기가 당한 것 뿐 아니라 가족이 당한 거를 보는 거, 위에서 명령해서 때리라고 해서 때렸더니 알고보니 우리 엄마다, 뭐 이런식으로 극단적으로 상상해서 감정 떠오르는거 있나 해보세요. 이런 잔인한 일이 옛날엔 실제로 종종 있었답니다.

죽는 방식에 대한 집착은 내가 미운 놈 떠올릴 때, 특히 가족 카르마에서 저 같은 경우는 목을 졸라 죽이고 싶다는 마음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가족을 목졸라 죽이고 싶다니 패륜같잖아요? 수행 하다보면 무의식 속을 자세히 안 보면서 기적수업만 하는 방식도 있지만, 용기 있게 있는 그대로 다 보고자

하면 적나라하게 옳고 그름이나 도덕적 가치관 없이 다 보게 됩니다. 그냥 좀 미운데 그걸 들이파 보면 이렇게 저렇게 죽여버리고싶다는 감정이예요.

그게 어떤 사람은 벼랑같은데서 떠밀어서 죽이고 싶은 사람도 있을거고 칼로 찔러 죽이고 싶은 사람도 있을거고 이런 방식도 다 전생애 수없이 자기가 선호해왔던 죽이고 죽는 방식이랍니다. 쳐죽이고 싶은지 목 졸라 죽이고 싶은지 물고문하고 싶은지 태워죽이고 싶은지 떨어뜨려 죽이고 싶은지 뭐가 맘에 드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ㅋㅋㅋㅋㅋㅋ 저는 코믹하게 쓰지만 글 읽기만 해도 압박감이나 저항감 올라오는 분들 있을겁니다 그거 다 예고가 숨기려고 그러는 거니까 저항감이 안 올라오고 이 글이 마음편하게 재밌게 읽힐 때까지 여러번 읽어보세요!!

죽음이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죽고 싶어서 수천번을 계속 죽었지만 지금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은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죽는다는 꿈을 꿀 수만 있을 뿐 죽을 수가 없고요, 심지어 그 죽는다는 꿈도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죽음이라는 것은 경험할 수가 없고 어느새 몸 옆에 혼이 빠져나와 있는 거만 겪게 되는 거랍니다!! 유체이탈해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죽은 분들을 애처로워 할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은 몸에 붙어 있어서 고통체 감정체의 무게를 느끼고 고통을 느끼지만, 죽으면 그런 게 없어서 가볍게 날아다니고 매우 행복하답니다!! 죽은 분들이 여러분들을 애처로워 하는 게 정상이에요 ㅋㅋㅋㅋ

죽음을 주변에서 직접 겪은 분들은 이 글을 읽으면 죽음을 엄숙히 여기지 않는다고 희화화 한다고 심하게 저항감 올라올 수 있답니다. 이 글이 개인적인 상처를 건드린다면 죽음을 엄숙하게 여기고 대단한 것으로 실재화하고 심지어 찬양하고 싶은 예고를 인지해 보세요. 왜 하필 내 삶에서 그 가까운

사람이 그런 형태로 죽어서 죽음이라는 게 내게 실제적이고 무서운 것이 되어야 했을까 숙고해 보세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도 분명히 죽음을 두려워했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아주 어렸을때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죽음을 쾌활한 어조로 말하면 기분이 왜 나쁠까?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죽어야 할 운명이라고 철썩같이 믿고 있는 마음을 인지해 보세요.

물 무서워 하는 분은 물에 빠져 죽는 걸 죽음의 방법으로 집착 하셔서 그렇고요 하여간 살면서 뭔가를 못하는거, 불편한거, 무서운거 대부분 죽는 방법하고 연관이 있으니 상상해서 해보세요. 저수지나 바다 같은 데 빠져서 꼬록 꼬록 죽어가는 모습 상상해보세요 너무너무 무섭고 외로울거예요. 막 식은땀 뱉벌 날때까지 느껴보세요, 그걸 무서워 무서워 하고 표현하시고, 항상 성령이 내 뒤에서 내가 펼쳐놓는 감정들을 지켜보고 있고 용서하는데 도와줄것이다 이걸 그림이고 이 그림을 해제하면 다시 이 공포 다음 생에서는 안느껴도 된다 믿고 해보세요.

그 외에 몸에 불편함을 느끼는 거는 평소에 행동을 할때 불편함이 느껴지는 신체부위에 집중을 하면서 내면에다가 이걸 무얼 보라고 이러는거야? 하고 물어보면 언뜻 어떤 자기 삶에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걸 차분한데서 명상하듯 앉아서 당시 감정을 느껴주고 성령에게 넘기면 관련 기억이 또 떠오르고 내 삶의 기억이 아닌 것도 떠오르고 전생이든 환영이든 다 청산하시면됩니다.

평소에 불편한 부분을 다 수행기회로 삼으시면 빠르지요!! 어떤 생각이 나거나 상상이나 환영이 떠오르면 그건 거의 대부분 실제로 있었던 일을 조금 다른 형태로 각색해서 보여주는 거랍니다. 상상은 아스트랄계에서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허깨비같은 게 아니랍니다. 내가 진실을 알고자 하니까 그것과 같은 파동을 아스트랄계에서 불러와서 상상되게 해주는 거라고 하면 비슷한 설명일거예요.

몸에 큰 점이나 반점이 있는 경우 거길 주물러보면 다른 신체부위에 비해 찌르는 듯 불편하고 아프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도 죽음의 방식을 그 부위에 창에 찔리거나 화살에 쏘이거나 아니면 불에 데였거나 등등 상상해서 풀어보시면 다 연관이 있습니다.

진짜 전생으로 여기지 마시고 그냥 다 똑같은 그림이라고 생각하시고 풀어보시면 기억이 쉽게 쉽게 떠오른답니다. 전생을 실재로 여기면 진짜같으니 떠올리면 상처받을까봐 감정적 정서적 저항감이 있어서 기억이 잘 안나는데, 실재로 안여기고 영화처럼 여기고 남의 삶처럼 여기고 이게 뭐야? 하고 물으면 아무거나 환영처럼 막 떠오르는데 그런걸 다 청산하시면 되요. 그게 진짜 자기 전생이든 남의 삶이든 아무 상관이 없는 이유가, 아무튼 나는 그 그림에 감정적 동요가 있거든요!! 그러니 그 자체로 내가 집착하고 있는 그림이라는 거고, 분명 내가 그 그림을 직접 겪은 적도 있을 거라는거죠.

에고는 죽음에 무진장 집착을 한답니다. 죽음이 에고의 종교예요. 사형과 고문에 집착하는게 에고이니 이부분을 많이 풀어야 합니다. 몸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면 몸에 집착하지 않을거고 세상에서 벗어날 거 아니에요? 절대 벗어나지 않으려면 몸은 늙고 병들고 죽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는 딱히 이런 죽음에 대한 집착을 어떤 형태로 하는지 모르겠다 싶으면 유튜브에 중세의 사형 고문방법등 찾아서 한번 보시면 자기가 유난히 못보겠는거 있습니다, 이거 내가 당한다고 생각하면 무서워서 못보는데, 내가 미운놈에게 이방식대로 고문하거나 죽인다고 상상해보시면 쾌감이 올라와요!! 그 두려움 그리고 쾌감을 양면으로 다 청산 하시면 됩니다. 쾌감!! 이거 골때리죠? 근데 이것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두려움만 보이는 분들은

자기 안에 있는 잔인하고 죽이고 싶고 괴롭히고 싶은 마음을 차마 못 보겠어서 두려움만 느끼는건데 핵심은 공격성이예요.

그 외에 상상만 해도 끔찍하고 티비에 이런 거 나오면 못보겠다, 누가 말만 해도 듣기 싫다 이런 거 전부 다 자기의 죽음을 실재화하고 두려움을 올려서 여기 죽음의 세상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집착하고 연관이 있으니 전생 떠올리듯 상상해서 떠오르는 감정 직면해서 성령에게 넘겨주고 반복하시면 됩니다.

사형이나 고문 관련된 것 뿐 아니라 다른 불편한 점도 마찬가지로요, 예를 들어 남들에게 감히 말은 못하지만 나는 내심 키 작고 뚱뚱한 사람은 게을러보여서 싫다, 수염 난 사람은 더러워 보여서 싫다, 목소리 큰 여자는 싫다, 이런 거 사람마다 다 있거든요? 이걸 이상한 생각이네 하고 무시하지 마시고, 전생에 키 작고 뚱뚱한 사람, 수염 난 사람, 목소리 큰 여자에게 배신당하거나 놀림받거나 그 사람의 비열함이나 태만함으로 피해본 일 등으로 상상을 해 보시면, 답답하고 화나는 등 감정이 올라옵니다. 그런거 다 푸시면 되요 참 쉽죠잉 ㅋㅋㅋㅋ 풀다보면 그런 내가 싫어하는 속성을 기가 막히게 내 가족이 가지고 있네 하는 걸 깨달으실 거예요. 가족은 전생에 원수끼리 붙여 놓는 거라고 전에 말씀 드렸죠 ㅎㅎ

이것과 연관된 기적수업은 434 쪽 12단락부터 441쪽까지 읽어보세요.

그 담에 탯줄 목에 칭칭 감고 태어났다는 댓글 있던데 이런 분들 생각보다 많거든요, 수행터에서도 이런 분들 꽤 많이 봤어요. 이런 경우는 엄마 뱃속에 있었는데 엄마가 죽이고 싶거나 죽고 싶은 마음을 많이 올린 경우에 그렇습니다. 내가 뱃속에 있고 엄마 아빠가 부부싸움 하고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이에게 부모 특히 엄마는 신의 투사물입니다. 아이는 신이 나의 존재를 반기지 않는다고 인지하게 되지요. 내가 여기 있는데도 다 듣고 있는데도 이렇게 싸우다니 세상이 살만하지가 않은데구나. 내가 있어봤자 엄마 아빠를 행복하게 못해주니 나는 가치가 없구나 죽어야 되는구나, 여기도 무서운데 나가면 얼마나 무서울까. 어 엄마가 나를 낳으려고 하네? 안돼 세상이 너무 무서워!! 왜 지금까지 못 죽었지? 태어나기 전에 빨리 죽여 버려야겠다, 하고 목에 탯줄 감는 아이를 상상해서 그 마음을 느껴 보세요. 그러면서 올라오는 감정 청산 하시면 됩니다.

5. 의식집중과 한마음

이 글 읽고 계신 분은 글 더 읽기 전에 눈 앞에 물건이 있으면 아무거나 하나 붙잡아 들어 올려 보세요. 들어 올렸으면 다시 원래 자리에 놓아 보세요. 지금 그 행위가 어느 정도로 인지가 되는지요?

평상적인 예고 마음 만으로는 팔을 들어 올리는 것 자체가 인지가 잘 안됩니다. 그 물건을 잡으려고 할 때 이미 손이 그 물건 근처로 와 있고요 팔이 어떻게 들어 올려져서 그 물건까지 닿았는지는 기억도 잘 안 나고 물건을 들었다가 놓았다 이것만 인지 되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은 거의 대부분이 무시됩니다.

팔이 들어 올려질 때 그게 어떤 느낌이었는지, 어깨나 팔꿈치에 힘이 들어갔는지, 팔이나 손의 근육을 어디를 얼마나 썼는지, 팔이나 소매는 어떤 색깔이었는지, 움직일 때 팔에 혈액이 더 돌았는지, 생명력이 전류같이 흐르는 느낌이 있었는지, 그 물건이 손에 닿았을 때 손가락과 손바닥은 어떤 느낌인지, 미지근했는지 차가웠는지, 매끈했는지 까끌했는지,

철 때는 어떤 각도로 감싸 쥐었고 손가락 모양은 어땠으며 놓을 때는 어느 정도의 강도였는지, 놓을 때 어떤 소리가 났는지, 이런 사소한 것들이 잘 느껴지지 않는답니다.

의식을 잘 살펴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뭔가 느끼고 집중하는 걸 피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지요. 몸이 정말 어떤 흐름대로 움직이는 허깨비같은거구나 하는 걸 잘 관찰하면 알 수 있어요. 이걸 하루 중 하는 모든 일에 다 마찬가지로 합니다.

화장실 갔다 온다고 칩시다. 어느새 난 화장실에 도착해서 용변 보고 있고요. 용변 보면서 자연스럽게 딴 생각 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나니 어느새 씻은 손을 수건에 문질러 닦고 있고요. 이 자리까지 다시 돌아올 때 걸어서 오긴 했는데, 다리가 나 대신 걸어주긴 했는데, 다리에 딱히 별 느낌은 없었습니다.

다리에 왜 느낌이 있어야 하죠? 걷기만 하면 됐지. 다리가 걷는 거지 내가 걷는거 아니잖아요 다리 따위 내가 알게 뭐람...

내 인생이지만 내가 사는거 아니잖아요 내 인생 따위 내가 알게 뭐람...
이상하지 않나요?

내가 지금껏 써 온 내 몸인데 모든 과정이 내게 잘 느껴져야 하지 않을까요?

의식이 영화의 전환 장면처럼 늘상 끊기고 있다는 사실 눈치 채 분들 있나요?

생각 중 - 어딘가 간지러워서 몸의 일부를 인식 - 다시 생각 - 배고 있던 팔이
빠근해서 다시 의식이 몸으로 돌아옴- 스마트폰 웹툰에 빠져있음 - 정신
차려보니 배고파서 몸에 의식이 다시 돌아옴 - 뭘 먹어야겠다는 생각- 어느새
냉장고 문 열고 있음 - 정신 차려 보니 식탁에 간식 올려져 있음- 한 입 베어 문
건 느낌이 있음 맛있네 - 두 번째 베어 문 것부터는 감각이 없고 다시 웹툰의
세상 속에 빠짐

이런 식으로 일상이 구성 됩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생각으로 꽉 차있고 몸은
잊혀져 있지요. 의식이 몸 밖으로 자주 나가 있을 때 몸은 방치되며 여기에
질병이라는 도둑이 들고

심지어 외부에서 의식이 이 주인 없는 몸을 탐하면 신내림 받고 무당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지요.

이번에는 아주 집중을 해서 천천히 아까 그 물건을 다시 집어 들어 올려
보세요. 아주 정교한 의식으로 집중을 해서 온 마음 다 써서 하나 하나의
프레임을 느낀다고 생각하고 해 보세요. 좀 전과 좀 다른가요 어떤가요?

집중할 때 팔과 손이 전보다 좀 색감이나 화사함이 좀 더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프레임 하나 하나를 느낄 때 시간이 좀 천천히 가는 거 같은
느낌 드시나요?

정확히는 이 짧은 순간 동안은 시간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는 시간이 없어서 마음을 쓰는 동안에는 시간 밖에 있게 되거든요.

파동을 많이 지워서 영적 자각이 있게 되면 이렇게 시간에 종속된 마음이 상당 부분 지워졌기에 새 생명을 얻은 것만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전에는 못 느꼈던 많은 것들이 느껴지거든요. 심한 경우는 새로 태어난 기분이지요. 그 격차가 크면 이전의 삶이 내 삶처럼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내가 겪은 일은 맞는데 내 삶은 아닌 거지요.

시간이 없게 되면 당연한 말이지만 늙지를 않습니다. 수행 하는 동안 자기 감정, 자기 몸의 감각에 고도로 집중 하잖아요? 수행 하고 나서 잘 되었을 때 거울 보고 왠지 좀 젊어진 느낌 가져 본 적 없으신가요?

고도로 집중 하는 동안은 시간 밖에 있게 됩니다. 고장 난 테잎 돌리는 것처럼 정해진 대로 마음 없이 자동화된 기계처럼 움직이는 걸 그냥 맡겨 두는 게 아니라 마음을 의식적으로 써서 모든 과정을 차분하게 다 느껴주면 그 시간 만큼은 늙지 않습니다.

또한 수행해서 무의식 속에 들어가 있는 동안은 시간을 거꾸로 돌려 그 안에 있었던 것들을 지워내게 되기 때문에 도로 젊어진답니다. 수행할 때만이 아니라 평소 모든 행동을 마음을 써서 할 수 있다면 그때부터 노화가 멈추는 것이지요.

노화란 일종의 자기 최면이고요, 늘상 나이에 대해 신경 쓰고 자기 전에 꼭 안티 에이징 크림을 바르고 친구들과 주름살에 대해 이야기 하고 변해가는 몸매를 아쉬워하고 흐르는 시간과 계절을 민감하게 의식하는 그런 것들을 모두 그만 뒤 보세요. 몇 주만 지나도 몇 살은 어려진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티비에 생활의 달인 같은 것 보면 많은 경우에 달인들 얼굴이 어린아이같이 해맑고 나이에 비해 별로 늙지 않았고 얼굴에 근심 걱정 같은 건 별로 없어 보이잖아요?

올바르게 집중을 하면 처음에는 몸의 감각만이 느껴 집니다. 거기서 더 깊이 집중을 하게 되면 어느새 나는 사라지고 없으며 그 일만이 있게 됩니다.

- 이걸 뭘 대단한 상태가 아니고, 여러분이 웹툰 볼때 웹툰만 있지 나는 잊혀지고 없잖아요? 그거랑 같습니다. 거기서 더 깊이 집중을 하게 되면 그 일도 사라지고 고요함, 침묵만 있게 됩니다.

이 고요함, 침묵 속에 오래 머무르게 되면 그 시간 만큼 그는 늙지 않고, 몸의 조건에 따라서는 회춘하기도 합니다. 활기차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고요함, 침묵 속에 있게 되는 거 이게 그렇게 드문 일이 아닙니다.

생활 현장에서 몸으로 일하는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려고 있는 사람들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주변에 김밥집 가보세요 김밥 마는 아주머니들 손길 한번 보세요 자동적으로 척 척 일이 진행되지요.

주변에 물류 운반하는 흔해 빠진 작업 조끼 입고계신 아저씨들 일하는 거 한번 보세요 물 흐르듯 진행되지요.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잖아요 한국 사람들 특이하다고

한의 민족이라서 업장이 그렇게 딱딱 찼는데 어떻게 마음을 그렇게 잘 쓰니까?

원래 무거워서 못쓰고 사람 구실 못해야 정상이거든요. 자기들은 자기 변변찮고 배운 것도 없고 그저 내 새끼들 먹여 살린다고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할 뿐이죠.

일할 때는 초인 같이 아무렇지도 않게 집중해서 마음을 잘 쓰는데 가족이나 이익 관계가 얽히면 업장 때문에 소리 지르고 싸우고 이게 한국인입니다. 정말 특이하죠. 우린 마음의 달인이 되려고 여기서 보통 사람의 몸을 쓰면서 가장 낮은데서 일하면서 오랫동안 여기서 살아왔어요. 이게 흔한 게 아니라는 거는 외국 가서서 어디 식당이든 관공서든 가보세요 우리랑 같지 않아요.(그런데 요새 젊은 친구들은 전자기기를 어려서부터 써서 그런가 마음을 적극적으로 쓰는 데 좀 어려움을 겪는 거 같긴 합니다)

아까 웹툰 이야기 했는데 아무것에든 집중을 하기만 하면 되면 웹툰만 보고 살아도 되겠네요..? 네 안되는 게 어딴겠습니까? 자기 마음은 평화로울 수 있겠지요. 그런데 웹툰만 보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가 그게 좋아서 그러고 있는 건지 또 그로 인해 주변 사람들 속 썩게 하지는 않는지는 좀 봐야겠죠?

사회에 나가서 부딪치기가 두려워서 그러고 있는 건지, 아님 정말 웹툰에 열정이 있어서 엄청 재밌어서 보는지 엄청 재밌어서 계속 보다 보면 나중에 자신이 제작자나 새로운 관련 산업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떤 일에 집중을 할 때 억지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내 일로 받아들이고 온 마음을 써서 헌신하듯 집중을 하면 처음에는 왠지 힘이 듭니다. 부담스럽고요. 괜히 땀이 나고 근육도 더 아프고 어떨 땐 나만 열일 하니 때로는 손해 보는 거 같고 그렇지요.

마음을 써서 헌신하면 뭔가 낫설고 무거운 운영체제 돌리는 느낌이고 괜히 불편하고 마음을 안 써서 대충대충 일해도 월급 나오는데 뭐 하러 나만 이려고 있나 생각도 들겠지요.

집중 - 몸이 느껴짐 - 몸의 감각을 통해 무의식 마음에 접속 - 그 불쾌한 느낌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그걸 넘어서서 한마음, 전체 의식에 접속 됨 - 한마음 속에는 피곤함이 없음, 젊음이 있음 일할 때는 안 피곤하다가, 집에 오면 피곤함 ㅋㅋ

무의식 마음 속에는 파동이 있고 이 파동이 상대적으로 고차원적인 집중이라는 의식의 힘에 의해 깨져 나갑니다. 깨져 나갈 때의 느낌은 몸에 전기 신호가 퍼지는 거라서 불편하지요. 그걸 무시하지 않고 계속 느껴주면서 계속 집중하려고 애쓰면 그 불편함을 넘어선 고요한 차원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 고요한 차원에 머물게 되면 좋은 아이디어를 받을 수 있는 고도의 수신 상태가 되고 상위 아스트랄계로부터 영감이나 좋은 아이디어를 받아서 일을 더 잘 하게 되지요.

아까 위에서 평범한 아주머니 아저씨들 일하는 거 이야기 했는데 배운 사람이고 힘들게 그 직장 들어왔을 수록 주는 거 보다는 받는 거 생각하게 되거든요. 본전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직 현장에서는 아까 말한 마음의 달인들이 훨 적습니다. 단순한 몸 갖고 하는 일이 아니고 승진도 연관되어 있으니 사내 정치도 한 몫 하지요. 머리 쓰는 일이니 고요한 마음 뿐 아니라 예고 마음도 함께 잘 써야만 업무 능력을 인정받지요.

한 집단에서 자기 일에 정말로 집중 해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애쓰고 끈기도 있고 사람들 사이 알력 다툼보다 자기 일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 얼마나 있던가요?

이런 사람이 워낙 드물기 때문에 어떤 직종이든 3년 정도만 최선을 다해 자기 일처럼 일할 수 있으면 성공 궤도로 진입하게 되지요.

사회생활 좀 했거나 자기 사업 하셔서 부하나 직원 써본 분들은 납득 하실 겁니다. 속 시끄러운 일 안 만들면서 자기 일처럼 일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드문지 말이죠. 이런 사람 있으면 혹시 나갈까봐 사장이 전전긍긍하고 눈치 보게 되지요.

수행을 해서 능력이 더 생겨야 되는데 실통력이나 부리고 사회에서는 찌질해 지면 수행 잘못 하고 있는 거라고 여러번 말했지요? 생활 현장이 최고의 수행터입니다. 남 일을 내 일처럼 받아들여 최선을 다해 헌신적으로 해 보시고

그 과정 하나 하나를 고도로 집중해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을 모두 받아들여 보세요. 앉아서 기억 떠올려 수행할 때만 수행 하고, 생활은 다시 외부에 휘둘러서 의식이 몸 밖에 있으면 감정 상태가 요동치게 되고 수행이 힘들게 느껴지게 됩니다.

자기가 자기 정신줄을 잡았다가 놓았다가 하니 당연히 마음이 요동치는 것인데 이것을 예고가 저항한다 이렇게 인식하여 없는 적을 만들어내서 마음이 힘들게 되지요. 수행 하는데 왜 평소에 평안 하지가 않지? 이렇게 잘못 생각하게 됩니다. 수행 하니까 평소에 자기 마음을 정갈하게 가지는 것은 본인 책임이지 누가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기가 수행 하니까 평화가 주어져야 한다 이렇게 <받으려는> 마음을 쓰고 있는 거죠? 사랑은 주는 마음이지 받으려는 마음이 아니기에 이런 마음을 쓸 때 갈등이 있게 되는 것이죠.

참 힘들고 쉽지 않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무의식 마음이 얼마나 많이 고통스러워 하고 있는 지를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빨리 그 고통을 덜어내 주고 싶어서 그런 힘든 건 아무것도 아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나를 이렇게 내팽개치고 몸이고 마음이고 무시하며 수천 생을 살았겠구나 그걸 돌려서 하나 하나 바로잡으려니까 쉽지 않은게 당연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좀 편하실 거예요.

끝까지 못 가도 지금 지우는 것 만으로도 다음 삶에서 같은 고통 안 겪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겪는 힘든 것이 이겨낼 만한 가치가 충분하지 않나요?
사는 거 여러분들도 다 힘들었잖아요. 안 그러면 수행 안 해요.

시간이 갈수록 무의식의 깊이를 집중력으로 저항을 뚫어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정신을 정갈하게 지켜내지 못하면 당연히 수행이 잘
진행되지 않게 됩니다.

나중에 감정으로 풀어낼 수 없는 장벽에 부딪치게 되고 그때부터는 정신력
만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정신력을 맑게 유지하기 위해 뇌파를 정갈하게 해야
하니까 전자기기도 덜 쓰고

(전자기기 파동이 뇌에 침투되어서 뇌파하고 합성이 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특히 취약하고 많이 쓰면 집중력이 떨어져요 저는 글 쓰고 나서 매번 짧게라도
집중해서 이 합성된 파동을 분리해내서 버린답니다)

운동도 하고 식습관도 조심하고 사람도 덜 만나고 그러는 것이지요.
일상생활에 늘 집중을 하는 것은 일종의 방어벽을 형성하는 것이며 정신을
이용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바른 정신으로 집중하며 사는 것이
너무 너무 중요하답니다.

모든 행동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써 성스럽게 하려고 애써 보세요. 이게 진짜
수행이구나 진짜 도전이구나 하는 느낌이 들면 잘 하고 계신 거랍니다.

6.하나님 마음이 여러분께 원하는 것

글이 좀 기네요. 이런 저런 이야기 하다 보면 자주 글이 길어지고 주제도 여러개가 섞이지만 나름대로 저는 즐기면서 쓰고 있습니다. 보시는 분도 천천히 재미있게 봐주시면 좋겠네요.

기적수업이든 그에 대한 제 글이나 댓글이나 뭐 수행글이든 일반글이든 보다보면 생각이나 의문이 올라오는데, 제가 모든 의문은 버려야 할 대상이라 하니까 아마 질문도 많이 못하실거같고 답답한 경우도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A 라는 맥락밖에 모르는 사람이 A라는 맥락에서 한 질문을 B 라는 맥락에서 답변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개는 서로 완전히 다른 세상이기애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소통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B 라는 맥락을 체험 먼저 해봐라, 체험 하려면 의문을 버려라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체험 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다만 마음속에 의문이 있으면 체험이 불가능합니다.

의문, 질문, 의견제시, 판단, 비교, 분석은 모두 파동이며 파동이 잠잠해지는 일순간 갑자기 실재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실재가 작게 드러날 때는 가슴 뜨거운 감동으로 오며 크게 드러날 때는 세상을 놀라 침묵하게 하는 충격으로 옵니다.

세상이 투사물이고 사실은 가짜라도 그 세상을 만들어낸 마음은 그리스도마음입니다.

좀 오작동중이지만 그리스도 마음이 만들어내는 이 세상은 신성을 기억해내기 위한 소중한 장소입니다. 세상 속에서 행복하게 살고 남을 행복하게 해주고 한 사람으로서 내 할일을 멋지게 해내는 건 너무나 중요하며 주변의 사물들 하나 하나를 대할 때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대할 수 있으니

수행자에게는 하루하루 매 순간이 소중한 뜻깊은 의식과도 같습니다. 이 세상은 가짜니까 막 대할 것이 아닌 가짜니까 그리스도의식을 연습할 귀한 곳입니다. 가짜라는 것에 집착하여 허무와 공허를 끌어들이는 에고 마음을 경계하시기 바라고 실수 했더라도 바로 마음을 돌이켜 비난하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을 내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은 거 저도 잘 안답니다 그런데 어찌겠습니까? 여러분이 선발주자라서 힘들게 하고 있는것입니다. 저보다는 쉽게들 하고 계시니 저의 힘들었던 나날들과 올바른 법 없이 방황한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봐서 위안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실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 마음입니다. 사람은 껍질로 그림으로만 있으며 그 배후에 있는것은 틈없이 짝짝 들어찬 하나님 마음입니다.

사람이라는 껍질을 보지 말고 그 배후의 하나님 마음을 보고자 성령에게 청하는 것이 가장 높은 맥락의 용서입니다.

하나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마음인 사랑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목적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또 진정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쓰는 능력이 하루 아침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근력운동 하듯이 매일 연습을 해야 합니다. 수행 할 때만 연습하지 말고 매사 사물 사람을 대할 때 사랑과 배려로 대하도록 노력해 보세요.

맥락이란 경험해봐야만 이해가 가능한 것이고 경험하기 전에는 이해는 안가고 그저 믿어 볼 수밖에 없는것인데 최고 맥락을 조금이라도 경험 해 보려면 삶에서 큰 감동을 겪어서 인생이 변한 사람이거나 남을 위한 삶을 살아와서 가슴이 많이 열린 사람이나 가능합니다.

이것을 인위적으로 경험 하려면 인생에서 미운 사람을 용서하고 삶을 돌이켜 있었던 격한 감정을 다 지워내야 합니다. 아직 미운 사람이 있는데 왜 나는 체험이 안되나요 하면 자기자신을 속이는 것이니 더는 입지 않고 한 형제 자매로서 덤석 가슴에 안아줄 수 있을 정도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전만큼 입지 않고 주변환경도 좋아졌는데 왜 체험이 안되나요 이걸 무의식의 깊이를 무시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나는 이 정도면 됐다 하는 마음을 먹으면 의식 성장이 정체됩니다. 내 마음은 내 마음 먹은대로 되는 것이거든요.

더 깊이 보려고 의지를 내야 더 깊이 보는 것이 가능해지고 숨겨진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제 수행글같은 경우엔 읽어주는 분들이 일상생활에서 행복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으니 보편적인 행복을 지향하는 맥락에서 쓰는 경우가 많고 거기에 좀 더 갈 분들을 위해 덧붙이는 식이었구요

여기서 우리가 몸 갖고 현생 살고있기 때문에 항상 높은 맥락에서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거니와 늘 높은 맥락에서만 글이나 댓글을 쓰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선 이해도 안가고 답답하고 심지어 위선적이고 비현실적이라고 여겨 득보단 해가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여기 지구가 사랑이 넘치는 곳도 아니고 늘상 사랑과 용서를 설파하면 따라하는 게 가능하지도 않지만 지루해서라도 읽어주는 사람이 더 적을거고요. 사랑은 어떤 사람들을 두렵고 피하고 싶게 만들기에 때로는 너무 밝은 빛을 직접 비추기보다 친밀한 이름이 되어 은은한 빛으로 앞길을 밝혀줘야 합니다.

여기 수행밭에 온 후에는 대중적인 맥락을 많이 쓸 필요가 없으니 좀 더 높은 맥락에서 글을 쓰게 되는 경향이 생기네요. 여러분은 제 글을 읽는 사람이 적어져서 아쉽다고 여기시겠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은 한 해 두 해로 끝날 일이 아니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씨앗을 뿌리고 물 주는 거지, 그걸 키우는 건 성령이 할 일이랍니다.

성령은 급하게 추진하지 않으며 세상적 맥락이 아닌 실재계의 맥락에서 진행상황을 점검합니다. 늘상 사랑을 설파하면 따라하는 게 가능하지 않다고 말한 것은 폼하가 아닙니다.

가슴이 비어야 그 공간에 신성의 빛을 들어서 그걸로 사랑과 용서를 할 수 있는건데 가슴이 짝짝 차 있는게 한국사람들이고 그건 잘못이 아닙니다.

목적이 있어서 원래 설계 할때부터 그렇게 짝짝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터질듯이 짝 차도록 만들어놨어요. 죽음으로 설계되어 있는 세상을 거꾸로 돌려 구해내려는 목적으로 만 년이 넘게 윤회 해 왔습니다.

한국인들은 온몸이 업장으로 짝짝 차 있는 탓에 비우기 전에는 때로는 세상 최고 꿀통같이 보이고 꿀통 짓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 믿어지시겠지만 여건이 되면 가슴속 한을 다 비워내고 큰 자리만큼 큰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모인 분들은 만 년 동안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가슴속에 있는 빛을 품고 보호하며 타협하지 않은 분들입니다. 만 년만 했겠습니까? 소집되어 지구로 오기 전에 길고 긴 시간 동안에는 무엇을 했겠습니까?

모든 수행글은 한마음에 방송신호처럼 던져졌으며 직접 마음에 호소하여 타고난 부름을 완성하도록 전체의식에 접속해 쓰여졌습니다. 특정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며 들을 준비가 된 사람에게 들으라 불렀습니다.

아무도 안 믿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말해드립니다. 한국 사람들이 세상을 빛으로 바꿀 것이고 원래 그런 목적으로 한국인들의 혼체가 독특하게 설정된 것입니다. 혼체란 다 버려야 하는 것으로서 이는 개인적 속성을 다 버려야 함이기에 특별하다는 우월감을 일으키려는 게 아닙니다.

그 반대로 모두 비워서 하루빨리 그리스도 의식을 회복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한국인에게 더 크게 있는 것입니다. 이걸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기에 우리가 노력한 것에 대해 우리 다음 세대가 덕을 보게 될 것입니다.

수행하시는 분들은 내가 세상을 구하러 왔구나 하는 걸 알게 될 날이 곧 있을겁니다.

세상이 그 자에겐 별 것이 아니게 되어야만 그 깨우침이 옵니다. 세상에 대한 애착을 많이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건 특별한 느낌이 아니며 자연스럽게 당연한 느낌으로 오며 이래서 내가 이런 삶을 살은 거구나 하는걸 통째로 알게됩니다.

아직 이런 변화는 초기단계로 여러분들또한 초기멤버로서 후발 주자들을 위해 먼저 빛을 밝히는 사람들입니다. 외적으로 누굴 가르치거나 무슨 집단을 이뤄서 뭘 해야 그렇게 되는 게 아니기에 대부분은 큰 외적 변화 없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생에서 쌓은 덕은 몸이 없어지는 실세계에서 그 결과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이 무의식 마음에 신성의 빛을 비추면 그 빛이 비춰진 자리가 환하게 밝혀지고 그 혜택은 전 인류가 입습니다.

누군가가 무의식의 어두운 곳에 빛을 밝혀 보았다면 그 다음 사람은 그것을 좀 더 쉽게 볼 수 있게 됩니다. 무의식 마음이 모두에게 공통된 것이라 그 마음 속의 장벽 또한 모두에게 공통적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장벽 너머를 보았다면, 다음 사람은 더 쉽게 장벽 너머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딱히 외적인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수행을 해서 내면을 밝히는 건 그 자체가 인류에 대한 보시입니다.

무의식 마음이 유연해지면 수행을 하지 않고도 다음 세대는 집중만으로도 마음을 잘 쓰게 되며 뜻을 이루게 될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하는 말이며 기분 좋으라거나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우월감을 키우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자체가 투사물이기에 선택받은 사람같은 건 실재 세계의 눈으로 보면 있지도 않으며 마음만이 존재하는 유일한 것입니다. 만일 특별함이나 우월감이나 주저함이나 두려움이 올라오면 별 것 아니니 모두 버리시면 됩니다.

여러분 뿐 아니라 누구든 한번이라도 마음을 돌이켜 먹은 모든 사람이 세상에 좋은 기여를 하고 있고 그 덕을 모두가 영영 본답니다. 이런 수행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항상 오픈되어 있을것이고 비밀스럽거나 배타적인 모임을 하지 않을 것이고

아무 대가도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 이익도 취하려 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영성적 도움은 무료일 것이며 집단을 만들어 역할을 분배하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며 잘 되든 안 되든 그저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둘 것입니다.

종교적 도그마나 영성사기꾼에게 당해본 분들은 오해하실까봐 노파심에 덧붙여 둡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혹 이러한 영성적 도움이나 가르침을 퍼뜨려서 소액이라도 돈 벌려는 생각을 추호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의 능력은 사람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이기에 그 가르침을 돈받고 판매 하는 것은 이치에 어긋나서 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고리타분하게 들리겠지만 실재세계의 법칙이 이렇게 되어 있기에 있는 그대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영성단체가 이익단체로 운영되고 개인이 영성적 정보로 돈을 버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신의 능력은 판매될 수도 없는 것이지만 판매될 때 더이상 신의 능력이 아니게 됩니다. 배타적으로 주어지게 되기 때문이지요.

신의 능력이란 실재계 최대치의 능력이며 다름 아닌 사랑하는 능력입니다. 사랑이 돈 있고 시간 있고 능력 있고 여건 되는 자에게만 선별적으로 주어지나요?

아니지요. 사랑은 햇빛처럼 호흡처럼 원래부터 아무에게나 막 주어져 있고 쓰여지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망설인다면 한없이 기다리며 때로는 세상적인 모습을 쓰고 그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닦는 데는 시간이 걸리게 마련이며 어떤 기한이나 틀이 있으면 괜히 스스로를 지치게 만들게 됩니다.

여기 모인 분들은 아마 전생애 좀 알고 지내던 분들이 적지않을테니 서로를 좀 믿고 의지해도 될겁니다. 항상 마음 편하게 참여 하고 싶을 때 하고 필요하면 때로 쉬시고 긴 시간을 두고 편안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를 판단할까 마음 쓰지 마시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줄 것이니 편안하게 스스로를 드러내면 좋겠습니다. 온지 얼마 안되어 끼고 싶으면 눈치 보지말고 확 끼어드세요. 마음안에서 한 팀임을 알기에 반겨 줄 겁니다.

스스로를 드러내는 데 익숙해지세요. 주는 것이 사랑이기에 꺼안고 있는 것을 풀어내고 혼자 가지려 하지 않고 나누고 드러내고 줄 수록 의식성장이 빨라집니다.

dada 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신만의 진실을 당당히 말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승자로서 당당히 나서기를 항상 바라십니다.

틀렸을지도 모른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틀린 것은 세상속에만 있지
실재계에는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저 성령이 뒤를 봐주니 사랑이 말할것이라고 기도하며 겸손하게 말하세요.

여러분이 자신의 진실을 말한다면 실재계에는 오직 옳은 것 사랑스러운 것만
남아 영원히 기록되며 자신을 드러내어서 마음을 줄 때 한마음이 통째로
그것을 기뻐한답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대단한지 흘깃 볼 수만 있어도 부끄러움 따위 저 멀리
벗어던지고 자신을 드러내기에 여념 없을 겁니다.

7. 감정 파헤쳐 용서할 때 조심할 점

나쁜 감정 파헤쳐서 보는 건 초반에 꽉 막힌 가슴 풀어서 신성을 빨리
느끼게끔 하는거라, 빨리 가는 만큼 위험성도 있어요. 에고의 특성이
나쁜 감정을 자꾸 보면, 거봐 이거봐 역시 세상은 나쁜곳이잖아? 하고 설득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용서까지 해서 꼭 마무리를 하라고 했는데, 수행기 보면
마무리 안하시는 분들, 자기식대로 하는 분들 종종 보여요.

수행법이라는 게 정신, 마음을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알려준 그대로 하지
않고 자기 방식을 섞어서 하면 위험한거거든요. 정신, 마음에는 관성이라는
게 있어요, 계속 같은방향으로 가려고 해서 나중에는 돌이키기가 힘이
듭니다.

제가 알려준거니 제꺼 그대로 해라 이게 아니고요, 수행법이란 게 고안이 될 때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고안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온갖 고생 다 해봤으니 고생 하시지 말라고 상세하게 알려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해도 잘 안되니 그러시는 심정 충분히 이해 합니다. 쉬운 게 아닌거 저도 알고 최선을 다하시는것도 알고요. 근데 안되는걸 되게 하려고 애를 써서 자꾸 되게 하는쪽으로 애를 많이 쓰시고 되게 하는 데 주력하셔야 되고요,

안 되는걸 안 되니까 어쩔수없고 안하는거보다 나으니 이거라도 내 식대로 계속 한다 이거는 위험합니다. 수행은 온 마음을 다 바쳐서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올바르게 해내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해야 효과가 있는거지 나름대로 애썼다 이정도면 되지않겠냐 이런 마음으로는, 항상 부작용이라는 위험부담을 안고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행법에 부작용이 있는것이 아니라 그걸 대하는 본인의 마음이 부작용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번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은 정말 죽어도 벗어나기 힘들게 아주 정교하게 세팅되어 있어서 웬만한 마음으로는 수행효과가 웬만하게밖에 안나고 온 마음을 다 바쳐야 효과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감정 보기 했더니 용서가 잘 안되고 휩쓸려서 평소에도 감정 올라와있고 우울하고 사람들이 더 나빠 보이는거 같다 싶으면 감정 올려서 버리는 거 하지 마세요 기적수업만 하세요.

피해자의식, 희생자의식이 강하면 감정버리기 하면서 휩쓸리기 쉬워요. 이거 부끄러운거 아니에요 자연스러운거고, 피해자 의식 희생자 의식 자기가 쓰고 싶어서 쓰고 있는게 아니에요.

원래 그림판이 있는데 하필 자기가 맡은 그림은 유난히 그 예고의 특성이 감정 올리기 수행법에 취약한 거예요. 오래 걸려도 위험없이 가는게 맞으니 기적수업하시면서 평소엔 늘 좋은감정 유지하시고, 내면 들이파지 말고 외부세상 보이는거만 용서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Chapter2. 솜사탕, 시체 한 구, 영적예고

8.가위놀림 답변

가위놀림, 아스트랄게 같은 질문이 종종 들어와 기록을 위해 새글로 올립니다.

(가위놀림, 영혼이 몸에 들어오는 소름끼치는 느낌에 대한 답변)

사람이 사는 세상, 우주라는 그림이 파동으로 통째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걸 더 자세히 보면 이안에 사는 사람은 개별 에너지체 즉 자기 혼이 자기 자신인 줄 알고 움직이는 인형같은거거든요 거기에 미약하게나마 영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의 생명력으로 유지가 되는거예요. 그럼 이 개별 에너지체 즉

파동체는 개개의 개체이기때문에 에너지구성이 다 달라요. 결국 똑같은 속성이지만 그 양이라든가 인식되는 순서 등등이 서로 다르게 구성된거죠. 이런 개별에너지 즉 혼끼리는 치열하게 서로의 에너지를 빼앗고 내걸로 상대방을 채우고 하려는 기싸움을 하고있습니다. 눈뜨고 보여지는 세상속에서도 그렇지만 영계, 아스트랄계같이 눈에 안보이는 세상속에서도 그렇거든여

사람이 있는곳이나 영계 아스트랄계나 사실 똑같은곳이거든요 같은 아스트랄계인데 인간계는 환상이 덧씌워져서 좀 달라 보이는거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잠을 자면 환영을 일으키는 의식이 불활성상태인거니까 아스트랄계만 인식되어서 사람이 자면 혼이 아스트랄계가서 노는거예요, 그러다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알력다툼하고 하는거랑 똑같이 혼도 아스트랄계에서 서로 싸우고 에너지싸움 하는건데, 그걸 인간의 육신이 자면서 미약하게 느끼면 가위눌리는 걸로 느끼는거죠.

파동에너지는 죄책감, 두려움, 분노 같은 짙은 감정으로 이루어져있고, 사람 세상에서도 쌓인 감정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이 싸우게 되듯이 아스트랄계에서도 이런 존재가 기싸움이 심하게되니 가위가 자주 눌러요.

물론 이세상도 사람이 꾸는 꿈도 영계도 모두 다 영이 아닌 환상, 꿈이죠 에너지는 다 살기 파동이고요. 수행하면 이런 파동을 닦아내게 되기때문에 헛것이 보인거나 가위눌리는 일은 초반에 사라지게됩니다.

영과의 연결이 강화되면 혼계에서는 말하자면 뺨이 든든하게 뒤에 있는거거든여, 이를테면 이 세상속에서 재벌 아들딸이다, 고위공직자 아들딸이다 그러면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거처럼, 수행해서 싸움거리인

파동도 닦아내고, 성령과의 연결을 자주 가지게 되면 꿈 속에서 자연스럽게 아스트랄하게 가서 놀게 될때도 그에 걸맞는 아스트랄계로 이동하게 됩니다. 끼리끼리 노는것이지요. 그래서 싸울일이 적으니 가위 안눌리게 되는것이고, 누군가가 자기의 에너지를 감히 탈환하려고 못하게 되는거죠 백이 있으니까요. 이 성령이라는 백은 저차원에너지체가 접근하면 자기들에게 에너지손실이 있기때문에 감히 다가오질 못하는거고요

어떤 사람은 주변 환경에 따라 민감하게 영향 받아서 몸도 마음도 무너지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폐가에 가도 아무렇지도 않고 터가 안좋은 뭐 장군터라고 하던가요? 그런 기운이 썰서 살기 많은 곳에 가서 살아도 멀쩡하게 휘파람불면서 잘 살거든요? 이렇게 에너지 구성이 남들보다 살기가 적어서 싸울여지가 적거나, 성령과 연결이 된 사람은 잡귀들이 알아서 피합니다 그래서 영향도 덜받고, 세상 속에서 살 때도 사람도 결국 에너지체라서 사람들이 시비 걸지 못하고 나쁜일도 덜 생기는거죠.

겪으셨다는 그 느낌은 혼이 남의 혼을 빼앗아 탈환하고 이런일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면 그림자체가 에너지체인거나 마찬가지로, 그림에 붙은 에너지체를 바꾼다는건 우주적인 일입니다. 사사로운 일이 아니라서 가위눌림정도로 일어날수없어요. 에너지싸움이라는건 일부씩만 서로의 기운을 바꿔 끼는것 뿐이지 영혼을 갈아끼는거랑은 다른 얘기거든요.

몸에 그렇게 통째로 영혼이 들어오고 이런 일은, 특정 가문의 특정 영혼이 아닌 이상 불가능하고, 제가 보기엔 사람마다 영적 가이드가 있어서 몸에 기혈의 순환이나 통로를 좀 바꾸려고 어떤 에너지를 몸에 주입시키는건데, 이거 사람이 잘 때 되게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근데 글쓰신님이 예민하니까 기민하게 알아차리게되고, 이렇게 새 기운이 들어올 때 그 기운

자체는 아직 내꺼가 아니니까 내몸에 합성이 안되었으니 내가 느낄수가 없는 거고요, 몸에서 기존에 자기한테 있던 파동만을 자신이 느낄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때 정신이 이 에너지 주입을 알아차려서 무서우니까 두려움 파동을 순간적으로 증폭시키게되고, 안그래도 기혈열려고 새 에너지 넣어주면 기존 파동이 영향받아 뭉게뭉게 활성화되는데 두려움을 느껴버리니 소름끼칠 정도로 느껴지고, 소름이 끼치니 가위눌리는 거다, 나쁜거다, 무섭다, 무슨일이냐 이렇게 인식하게 되는거예요.

그게 아니고 평소에도 늘 가위 눌린다, 나쁜 에너지 주입 받는 것 같고 그러고 나면 하루종일 기분이 나쁘고 나쁜 일이 일어나고 집중도 안되서 업무수행에도 지장되고 이런일이 반복된다, 하면 좀 다른이야기로 정신의 방어막이 뚫려서 저차원 아스트랄계로부터 공격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런경우에도 영혼이 통째로 들어오고 이런일은 없답니다. 무당들이 신 모시고 살잖아요? 그 경우에도 잡신들이 주변을 떠다닐 뿐이지 무당 몸을 점거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런것처럼 본인이 설령 동의를 한다 하더라도 법칙상 남의 몸을 함부로 점거할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9.파동체 매트릭스의 구성

가위눌림 글에 댓글을 달다가 너무 길어지고 주제도 달라서 새글로 옮겨와서 올립니다.

대형마트 주말에 사람 많은데 가면 피곤하죠? 실제로 에너지상으로 일어나는 일은, 사람들끼리도 서로 에너지를 빼앗기 위해 방송신호 쏘듯이 에너지파동을 쏘서 공격해서 남에게 내 에너지를 주입시키고 그 대가로 상대의 에너지를 덮어쓰게 되고, 사람 뿐 아니라 장소에 있는 에너지, 상품에 있는 에너지, 조명, 전파, 모든 눈에 보이는 사람 물건 장소 이런것들이 사념이 물질화 된 것이거든요 즉 모조리 전부 살기로 구성된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품을 들고 포장에 그려진 그림을 보고 라벨을 읽을때 일어나는 일은, 그 물건 만드이의 에너지파동 + 그 물건을 보고 사람들이 지금껏 사념을 덧붙인 모든 에너지가 다 나의 현재의 에너지체 파동과 합성이 되는겁니다. 누구 옆을 지나가면 그사람하고도 살기교류를 하며 서로 뒤섞이고요.

여러분이 대형마트에서 카트 끌면서 저 아저씨 배나왔네~ 하고 생각하면 그게 살기파동을 쏘고있는겁니다 쏘고 나면 에너지상으로 빈곳을 채워야하기 때문에 상대방 에너지의 일부를 가지고오게되지요 그게 개별 에너지체끼리의 차원에서는 에너지싸움으로 보이게됩니다. 즉 그 아저씨의 에너지체도 살기 맞고 가만있지 않고 내게 쏘는거지요.

이걸 좀더 멀리 물러서서 개별 에너지체끼리가 아닌 하나의 그림판을 보는 의식으로 보면, 개별 에너지체같은건 없고 통째로 하나라서, 자기가 그 아저씨의 그림을 만들어서 배나왔다 하는 생각을 덧붙이고, 그 생각이 자신에게 돌아와서 자기마음에 또 합성이 되는겁니다. 이런현상이 끊임없이 에너지교류의 형태로 일어나고 있는것 이죠. 이걸 기적수업에서는 증인을 보낸다고 표현합니다. 두려움의 전령을 보내서 나쁜거 무서운거만 보게하고 그런 게 있다고 증언하게 만들어서 역시 세상이 나쁜곳이다 이렇게 재인식하는걸로 표현하지요.

따라서 수행을 하면 이러한 파동을 닦아내기에 감정, 생각이 없어지고, 감정, 생각이 파동 즉 살기라서, 살기 쏘고 다니는 걸 덜 하게 됩니다. 살기 쏘는 걸 덜 하니깐 돌아오는 살기도 적고, 살기 덜 맞으니 당연히 전보다 건강해지고 평화로워지지요. 자기 생각을 특별히 살기라고 인식하지 않잖아요?
사나운거라고 생각을 못하거든요? 근데 평화로운 상태, 사랑의 상태를 겪어 보면, 생각이란 판단, 분별이고, 공격이기에 살기라는걸 알게됩니다.
누군가를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보면 받아들임과 평화로움만이 있을 뿐, 무언가를 밖으로 끄집어낼 일이 없고 의견내기, 생각, 판단, 비교, 분석, 분류 같은 것을 하지 않게 됩니다.

영화 매트릭스에 보면 녹색 숫자로 세상이 구성되어 있자나여 그거랑 거의 흡사합니다. 녹색 숫자가 파동인거죠. 여기에서 영이 살아있고 파동을 제거한 자는 어떻게 보이냐면 그 매트릭스 그림상에서 구멍이 뚫린것처럼 보이게되지요 네오가 각성후에 녹색 글자 세상 안에서 네오만 빛으로 영화에서 보이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파동을 제거를 많이 할수록 빛이 강해지는 거고, 그가 미처 못 닦은 남은 파동은 빛의 영향에 의해 상대적으로 요란하게 휘몰아치며 주변의 에너지체들과 교류하며 내 남은 파동 뿐 아니라 주변 에너지체(즉 다른사람)들의 파동도 함께 빛속으로 녹아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주변을 정화하다가 나중에 본인의 파동이 거의 사라지면 남들하고 에너지 교류 할것이 없잖아요? 그러니 피곤함도 없고 세상이 그냥 그림으로 보이는거죠.

세상의 입장에서는 세상은 빛을 볼수가 없기때문에 블랙홀로 보이게됩니다. 매트릭스 녹색글자가 시커먼 구멍으로 빨려들어가는거랑 비슷한거예요 ㅋㅋ 그래서 세상에 강하게 종속된 한많은 에너지체는 빛을 두려워하게되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빛이 어둠, 위협, 악마 같은걸로 보이거든요.

반대로 빛의 입장에서는 세상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빛만 보이게 되는거고, 빛의 입장에서 세상을 볼 때 사람을 살아있다고 볼수가 없는 이유가, 파동의 구성이 시시각각 변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떤 정체성이라고 볼수가 없는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모든 주변의 사물이 다 사념체이기 때문에 합성이 되고 변화가 되고 있는 상태인거거든요. 모두가 아주 미약하게는 영과 연결 되어 있지만 사실상 견성을 해야만 영의 연결이라고 할만한 게 있게됩니다.

그렇게 주변을 정화하다가 나중에 본인의 파동이 거의 사라지면 남들하고 에너지 교류 할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 피곤함도 없고 세상이 그냥 그림으로 보이는거죠. --> 이 부분 오해하시면 안되는 게 영의 연결이 있는 후엔 이 가짜 세상을 자신의 영적 빛으로 채우면서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그가 보는 세상만큼은 신성의 찬란한 아름다움과 깊이가 있게됩니다. 굳이 말하자면 가짜세상에 생명을 부여하게 되는거죠. 그래서 견성을 하면 세상이 충격적으로 아름답게 보이는거고 백회 연 후 신의식이 들어서면 다 자기가 만든걸로 보이게됩니다 그런데 왜 세상이 그림으로 보인다는거냐? 세상의 형상이 의미없어지는거고 신의 아름다움만큼은 모든것에 찬란하게 임재하며 그 아름다움이 너무나 실재적으로 느껴집니다.

쓰는김에 조금 더 쓰자면, 사람이 영을 깨어나게 하려고 할때 일어나는 일은, 그 파동체가 영적 가르침을 접하게 되면 고차원적인 파동을 자기 에너지체에

합성하게 되는거예요. 그러면서 그 에너지를 활용해보고 남들에게 친절하게 해보고 이렇게 자신의 파동체에 영성의 미약한 빛을 아주 조금이라도 통하게 하려고 애쓰게 됩니다.

어떤사람들은 깨어나는게 백퍼 영에 의한 거라고 하는데 그렇지않아요. 파동체자체가 노력해서 영으로 거듭나는겁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그 파동체는 영성의 통로에서 오는 아주 미약한 빛을 좋아하게 되고, 점점 더 자신을 버리면서 길을 트게 됩니다. 길이 어느정도 트이면 영의 세계에서 빛을 내려주는게 견성을 비롯한 영성체험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영성적인 가르침을 거듭 거듭 접하는게 너무너무 중요한거지요.

기적수업 교재부분 이해안가도 그냥 반복해서 읽으라고 그러잖아요? 연습서도 잘 안되는거 같아도 그냥 하라고 하잖아요? 기적수업은 영의 가르침을 파동세계에 맞는 파동의 형태로 물질화 해놓은건데, 그걸 파동체 입장에서 자꾸 읽으면 영의 가르침을 자기 몸에 합성을 시키는거죠.

이해를 하는것과 못하고 그냥 읽는것과의 차이점은, 이해는 의식으로 인식하는것이기 때문에 파동체 전체에 그 영의 가르침을 번쩍 하고 조명 켜다 켜는 것처럼 아하! 하면서 파동의 구성이 통째로 변하게 되는거고, 고차원적인 인식에 의해 파동이 상당부분 삭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해를 못하고 읽으면 어쨌든 합성이 되긴 되지만 번쩍! 하는 인식은 없었기때문에 불활성상태인것이죠 하지만 계속 세뇌교육시키듯이 고차원적 가르침을 접하게되면 의식은 이게뭐야? 이게뭐야? 하면서 자신과 다른

그것을 알려고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결국 인식을 할만한 외부적 요인이 생깁니다.

10.세상이라는 시체 한 구

파동체 매트릭스 구성 글에서 살기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요. 카트 끌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살기쓰는거다 라고 예시를 드려서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네요. 말이라는게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비슷하게 말씀드리려고해서 오해를 최소화 하고자 때로는 읽기 힘들만큼 길게 쓸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늘 오해가 생깁니다.

에고는 딱 함정이 될 만한 것에 의식을 꽂아서 그걸 확대해서 보거든요. 그게 에고의 속성이예요. 여러분 누가 살기 쓰고있다 살기 에너지 파동 이런거 장난으로라도 의식하시면 안됩니다. 허무해질 뿐 아니라, 영적 에고를 키우게 되어서 자아가 더 강해져요.

오직 신성만 보고, 좋은것 밝은것 아름다운것 사랑스러운것만 보셔야 되요. 내 안에 살기가 있네 이거는 감정보기 할때 딱 그때만 보셔야되고요 남한테서 살기 의식하면 안됩니다사랑만 보고 사랑만 찾으셔서 누구든지 사랑스럽게 보려고 노력하셔야 되요.

평소에 누군가에게서 살기나 하다못해 에너지, 파동이라도 인지되면 그런걸 의식하는 자신을 그때마다 족족 성령에게 용서받아서 지워야 되요. 여러분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아니고요, 이 부분이 그냥 두면 조금씩 커지다가 바이러스처럼 번지고 대부분의 수행자가 이거때문에 이상한길로 가게 되는 부분이기때문에 미리미리 말씀드려요.

살기만 살기를 볼 수 있거든요. 버려야 될 살기를 자신의 의식장에 활성화 시키고 있는건데 그리스도의식은 신성만 있기 때문에 살기를 못봐요. 수많은 자칭 영능력자들이 다 이 살기를 버려야 되는 걸 갖고 에너지파동으로 계속 활용하며 축기니 기공이니 힐링이니 전생봐주기니 하며 돈벌고 있는거예요.

이게 너무 너무 흔한 일이에요. 예고는 파동 느껴지면 환장을 하고 좋아하거든요. 자기가 자길 보는거니까 얼마나 좋겠나요. 한 번 의식되기 시작하면 계속 보고 느끼고 활용하고 싶어해요. 버려야 될 걸 안버리고 활용을 하고 있으면 해탈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게다가 그걸로 돈벌고 있으면 정신이 망가져서 반드시 업보를 받게 됩니다.

그게 살기인 줄 알면 엇 뜨거라 하고 버리겠죠? 근데 파동을 보고 느끼게 되면 그게 딱히 살기로 안느껴져요. 왜냐면 의식 자체가 예고이고 살기니까, 물고기가 물속에 있으면 물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심지어 백회 열고 신의식 체험한 후에도 영적 예고를 키울 수가 있어요, 신의식 체험을 했어도 아직 절반은 살기파동이니, 그 신의식을 계속 느끼고 그안에 계속 있으려고 애를 써야 하는데 보는 능력이 강해지니 파동이 아주 잘보여요, 육안이 아닌 마음의 눈에 보이게 되지요. 그 상태에서 신성을 자주 찾지 않으면 의식성장이 정체되거나 뒤로 가버립니다.

신성을 이미 찾은 자가 그러고 있으면 자기 책임을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업보가 큼니다. 영적 예고는 수행 끝나서 여기 몸 버리고 떠날 때까지 언제든지 키울 위험이 있어서 항상 경계해야 하는겁니다. 특별히 영성스승이 되려고 해야만 영적 예고가 생기는게 아니에요, 정말 흔한 마장이고요.

수행해서 내가 득보겠다 마음이 있으면 이미 영적예고 키우고 있는거예요. 남을 득보게 해주려는 마음으로 수행 하셔야 되고 날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위해 마음을 내셔야 합니다

항상 겸손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어느새 오만해져 있는 거 그게 여기 세상의 속성입니다...

여러번 말씀드렸고 앞으로 계속 말씀드릴 부분인데, 이 세상은 절대로 탈출 못하게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고는 최선에 최선을 다해 시간 낭비시키고 옆길로 새고 정신을 망가뜨리려고 온갖 할 수 있는 짓을 다 합니다.

이 세상은 올바른 정신을 유지하려고 매일 매일 애쓰지 않는다면 어느새 정신이 망가져있게 되는 곳이에요. 이세상 운영체제가 원래 그렇게 생겨먹어서 어쩔수가 없습니다 죽음으로 끌고가는게 이세상의 운영방식이거든요.

살기는요 평소에 안쓰다가 기분이 나쁘거나 누가 나빠보일때 쏘고 있는게 아닙니다. 이 세상을 있는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 자체가 살기에요 여기에

존재하는 것은 모두 살기인거예요. 세상이 파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파동이 죽어라! 죽어라! 라고 명령하는 전기신호로 느껴지지만 실재하지 않는 환영인 파동인거예요 살기로 구성된 몸을 갖고 살고 있는거예요. 매트릭스 영화에 녹색 숫자 있잖아요 그걸로 세상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거처럼 살기 파동으로 사람 사물 세상 전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거예요.

그래서 뭐 어찌라고? 뭘 어떡하라는 거지? 다 살기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 뭘 하라고? 저런 얘기 왜 또 해?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지긋지긋한 이야기인거 저도 아는데요. 저도 이런 이야기 하기 싫고 세상이 원래부터 아름답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어차피 알려드리는거 오해없이 최대한 비슷하게 알려드려야 하니까 여러번 말씀드리는거예요. 세상에 대한 진실은 진짜로 알고 나면 허망하고 끔찍한거라서 여러분이 영성 천재라고 해도 받아들이기가 힘든거거든요. 세상에 애착이 더 없어야 이 진실을 실제로 알아차리게 되요.

세상에 애착이 없으니 이 끔찍한 진실이 도리어 다행스럽게 느껴지지요. 미련없이 다 버리면 되는게 확실해 지니까요. 세상이 다 살기 파동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글에서 전에도 여러번 이야기를 했어요. 살기일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다 이게 아니고 모조리 다 살기라고요. 쉬지않고 살기 방송하는 기계이고 쉬지 않고 죽이려고 공격하는 기계라고요.

살기 아닐 때는 신성의 품 안에 있을 때 즉 용서했을 때 딱 그때만 일시적으로만 살기 없는 곳에 있는 거예요. 나중에 수행이 깊어져서 파동체가

거의 많이 닳아서 의식적으로 신성속에 있게되는 게 아니라면 그전에는 살기 없는 상태를 경험하려면 오직 용서했을 때 아주 잠깐만 그런거예요.

왜냐면 인식은 의식이 하는거잖아요? 의식이 예고란말이에요. 예고가 살기고요. 의식조차 넘어서서 신성의 마음속에 머물러야만 그게 살기 없는 상태인거예요. 글을 읽고 머리로는 받아들였다, 알겠다, 전에 한 얘긴데 왜 또 같은얘기 하나 생각하시겠지만

무의식 마음으로는 극구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제 글을 매번 조금씩 왜곡해서 보게 되고, 제가 같은 얘기를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수없이 반복해도 핵심은 피하게 되고, 핵심 말고 걸다리는 좀 재미도 있고 의식성장도 되는거 같으니 계속 계속 새 글을 써달라고 요청하며 또 핵심은 피하고 걸다리만 보게 됩니다.

원래 예고의 속성이 그래요, 두려움이니깐요. 그걸 아니까 또 이걸 이렇게 말해보고 저렇게 말해보고 받아들일만 하게 결국 같은 주젠데 다른식으로 계속 쓰는거고요. 예를 들면 지난 글중에 섹스에 대한 이야기를 미겔에서 이야기 했을 때 성행위하는 파동은 하기싫어서 고통스러운데 어쩔수없이 괴로워하며 성행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되게 의외이고 충격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댓글은 다 별거아니네? 아는거네? 글 재밌네? 이런 반응이에요.

정말 중요하고 핵심인 것은 눈에 잘 안들어옵니다 의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거든요. 자기 마음이 열린 만큼만 글이 느껴지고 받아들여지는거예요.

수행에 효과를 어느정도 봤다 싶으면 한번씩 예전글을 다시 읽어보세요. 전에 읽었던 건데 이상하다 싶게 새로울겁니다.

글 효과를 많이 보고 싶으시면 출력해서 줄을 치면서 읽으시면, 전엔 그냥 지나쳤던 쓰악한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거에 대해 바로 질문을 하지 마시고 마음에 담아두고 며칠 궁금해 해보세요. 마음에 자꾸 물어보면 답이 와서 깨우치게 됩니다. 근데 제 글 갖고 그러기보단 기적수업 갖고 이렇게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제 글은 언제나 오류가 있을테니까요.

이 세상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고 충격적이지 않다면 그게 더 이상한거고요. 기적수업에서 이 세상을 알게 된 자는 시체 한 구를 발견했을 뿐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애착을 상당히 지워서 세상을 자기가 원하는대로 보고싶어하는=실체를 숨기려고 하는 마음이 많이 닳여서 세상의 실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야만 그 시체 한 구의 의미가 제대로 보입니다.

세상은 죽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보이는 모든 게 환영이고 다 하나도 빠짐없이 죽음의 파동입니다. 죽음을 맞고 죽음을 줘서 신을 모욕하는 게 세상의 목적이예요. 수없이 많은 죽음을 겪어서 고통스러워하며 신이 이렇게 잔인하다고 탓하는 게 세상을 만든 목적이예요. 신의 자리를 찬탈하려는 야망을 가지고 한없이 오만한 것이 에고의 속성입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세상이 잠시 잠깐 아름다웠다가도 곧 고통으로 변하게 되는거예요. 애초에 잠시 잠깐 아름다워 보였던 그것도 살기였거든요. 또한

살아가는 운영체제인 에고가 너무나 오만하고 세상에선 죽일놈들, 내가 득볼거만 찾거든요.

파동이라 긍정과 부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애초에 부정성이라서 세상 속의 긍정도 부정도 다 살기, 부정성인거예요. 좋은게 있어야 세상에 집착도 할 거 아니에요? 고통만 있으면 세상을 벗어나려고 할거잖아요.

이 세상은 애초에 신을 공격해서 죽이고 자신이 신의 자리에 오르려는 미친마음이 만들어낸거예요. 그 마음은 미친듯이 파동치며 한시도 쉬지않고 죽어라 죽어라 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라 죽어라 하는 파동으로 우리 몸이 구성되어 있고 모든 사물과 이 세상이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 더 분노하게 하는 트리거를 보고 더 싸질때가 있고 좀 약해질때가 있고 그런거예요

살기파동으로 짹짹 들어차 있다가 좀 지워서 구멍이 뿅 생겨서 구멍으로 신성의 빛이 좀 들어오는게 견성하는거고요. 그 찬란한 아름다움을 찾은 다음에 그거만 보고 그거만 집중하고 그거만 사랑하면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죽음이다 살기다 쪽 이야기 했는데 결론은 결국 사랑만 보라는 거예요. 살기가 설령 보이더라도 그 보이는 놈을 용서받기를 성령에게 청하며 계속 사랑만 보셔야 됩니다. 버려야 할게 뭔지 봐야 버릴수가 있으니 감정 파헤치기도 하는건데, 그건 딱 수행할때만 하셔야되고 평소에는 늘 사랑만 찾으셔야 되요. 사랑을 안보고 있는 모든 상태는 죽음파동을 활성화시키고 있는 상태랍니다.

11.하나님 먹살 잡기

여러분들 글이나 댓글을 보다 보니 기적수업이 울분을 끌어올리는 경우들이 있네요? 저는 이 점에 대해 전혀 생각을 못해봤네요 생각이 들었으면 미리 말씀을 드렸을텐데... 제가 기적수업 만났을 때는 나혼자 수행하는게 너무 지쳤을때여서 너무 반갑고 반갑기만 했거든요. 하나님한테 화나서 책 찢고 싶다는 분 댓글이 있길래 글 써 봅니다.

여러분 제가 하시라고 권해드리는 수행 방법 중에 제일 중요한게 뭐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요? 기적수업 아니거든요. 우사도 아니에요. 뭐예요?

아시잖아요! 코인노래방이라구요 ㅋㅋㅋㅋ 진짜 많이 반복 했잖아요.

코인노래방이든 아니면 차 안에서 하시든가요. 사람 없고 시끄럽게 해도 되는 데 가서 미운 놈이 나한테 무슨 짓 했나 곰곰이 떠올려서 울분이 가슴속에 가득한 걸 마구 마구 고래 고래 미친사람처럼 욱하고 소리지르라구요.

으악~~~~~ 으아악~~~~ 하고 온 힘을 다해 소리부터 먼저 질러서 가슴을 좀 트시고나서 이 개새끼야! 나한테 왜그랬어 이 씨발로마 이렇게 소리 지르세요. 너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아? 이 죽일놈의 새끼야 너 죽여버릴거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죽어라 이 개자식아!! 하고 마구 소리지르다가 온몸에 마구 땀이 나고 힘들어서 탈진할 거 같을 때가 되어서야 그 정도로 소리를 질러야만 막 가슴이 울렁거리면서 눈물이 차오르고 아무도

날 안도와준게 너무 어이없고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게 너무 기가 막히고
불쌍하고 서러워서 털썩 주저앉아서 으어어어엉~~ 하고 땅을 치고 울게
되어야만 가슴이 좀 뚫려요.

그렇게 가슴이 좀 뚫려야 빈 공간 갖고 용서 수행을 할 수가 있는거예요.
울분을 다 토해내면 속이 시원해지면서 자동으로 마음이 차분해지고 용서가
된답니다. 울분을 덜 토해내서 용서가 안되는거예요. 이게 특별히 울분 많은
사람만 해야 되는게 아니고요 한국인은 다 가슴이 짹짹 들어차 있다고요!!
한민족이라고요 한으로 가득한 민족 ㅋㅋㅋㅋ

아 나는 이렇게 무식한 방법은 못하겠어~ 화를 안내봐서 못 내겠어~하시면
계속 그렇게 답답하고 화나게 살아야 되는거예요. 자기자신에게 솔직한게
수행의 제1 원칙이라고 제가 몇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잘 안되어도 억지로
소리 질러보고 욱도 해보고 노력해보는거예요.

성령이나 하나님에게 화가 나면 마음속으로 성령이든 하나님이든 멍살
붙잡고 이 개새끼야 니가 하나님이면 다야? 시발로마 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너죽고 나죽자 해보라고요. 겁내지 마세요 어차피 멍살잡힌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 아니거든요. 내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가짜
하나님이예요 쳐 때려도 괜찮다고요.

화 안풀리면 마음 속으로 뺨때리고 칼로 찌르고 망치로 두들기고 온갖 상상 해서라도 시원해질 때까지 가슴 속 울분 다 토해 내세요. 물건 마구 던지고 발 구르고 방방 뛰고 몸을 움직여서 화풀이 하세요.

아니 내 안에 이런 잔인한 마음이 있었어? 할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원래 다 그런마음 있다고요. 이런 상상 하면 나 죄받는거 아냐? 이런생각 하지 마시라고요. 살인의 욕구가 가슴속에 가득한게 현대인이예요 누구나 다 그렇다고요. 그거 밖으로 토해내야 되는거예요.

안 토해내면 그거 속에 가지고 살인마마음 못버리고 사는거라고요 다 토해내야 된다고요. 감정을 다 못 토해내서 정신과 약 먹고 우울증 약 먹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악~ 악~ 하고 소리질러서 되는 정도가 아니예요.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하고 짐승같이 포효하고 울부짖어야 그나마 좀 내려간다고요. 그정도로 현대사회가 사람을 억눌러 놓았다고요. 울 때도 흑~ 흑~ 흑~ 정도로 울어선 되지도 않는다고요. 으엉엉엉엉엉~~~~ 으아아아아아~~~~ 꺼이꺼이~~ 아아악~~~~ 하고 울어야 가슴이 뺨 뚫린다고요.

이거만 하면 끝나는줄 알면 천만에요 암흑속에서 깔깔깔깔 웃는 놈도 있어요. 죽어라 죽어라 깔깔깔깔 하하하하 세상 꼴좋다 다 죽어라 태워죽이겠다 하고 깔깔대는 사이코패스 마음도 다 있어요.

온 세상에 보이는 모든 지옥도를 그려내는 마음이 무의식이에요. 인간의 마음 뿐 아니라 동물, 외계인 마음 다 있어요! 아무리 서럽다고 으악 으악 거려도 언발에 오줌누기밖에 안됩니다. 무의식의 깊이가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기적수업이고 뭐고 이거부터 먼저 엄청나게 많이 하셔야 되는거예요. 제가 수행터가서 한달동안 백회열기까지 하루 종일 이거만 했다고요 ㅋㅋㅋ 돌아와서도 매일 하루에 몇시간은 차물고 나가서 감정풀어내기만 했어요. 우는 것도 2년 이상 거의 매일 울었고요. 감정 푸는 수행방법 알게 된 후 2년 정도는 감정 버리는 수행만 했어요 그 정도로 한이 많아요!!

휴지 써본 적도 없어요 수건 썼어요, 눈물 콧물이 너무 많이 나서 하루에도 몇 장이나 썼어요. 그 정도로 우리 몸속에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설움도 울분도 엄청나요!! 무의식이 얼마나 깊은지도 말씀드렸잖아요? 저 깊은 데까지 통째로 눈물의 바다랍니다. 수행터에서 사람들이 며칠 엉엉 울기만 하다가 하혈을 하거나 혈변을 보고는 종양이 없어졌다 암이 사라졌다 이러거든요! 울분이 병으로 나타나는겁니다.

제가 특별히 힘든 삶을 살아서 그런게 아니에요 수행하면 다 그런식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수천생을 사는 동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많았겠어요? 지금보다 옛날 사람들은 얼마나 억압적인 삶을 살았겠어요? 성노예도 되어봤을거고 고아 백정 안해본 역할이 없을거라고요! 고문도 당해보고 모함도 당해봤을거라고요. 옛날엔 얼마나 서럽고 기가 막힌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종의 자식이라고 감정 드러내지도 못하고 살았을까요? 조선시대엔 백성 대부분이 노비였어요!

울분만 다 풀면 자동으로 용서되고 차크라도 다 뚫리고 기혈 다 열려요!! 뭘 기수련같은거 해서 여는게 아니라 울분만 제거하면 다 열리는거예요. 감정이 파동으로 얽히고 섶혀 몸속에 짹짹 들어차 있는데 이걸 안버리고 인식으로만 고차원 가려는 수행을 하니까 수행하면서 냉냉해지고 영적에고나 생기고 찌질해지거나 사회에서 자기 역할 못하는 등 이상해지는거거든요!

저번에 수행장에서 채식해야 된다는 분 글 보셨죠? 소름 끼치잖아요? 자기는 자기가 이상하다고 생각 못하잖아요? 가슴을 열지 않고 인식만 갖고 수행하면 그렇게 된답니다.

인식은 신성 찾는데 감정은 외면해서 몸속에는 파동 짹짹 차있으니 나중엔 결국 두개가 격차가 너무 심해서 분리가 되어버려서 입으로는 고운소리 하고 몸으로는 이상한 짓 하는 게 이 세상에 깨달았다 주장하는 영성스승들인거예요.

예수님처럼 기적도 행사하고 모든것에서 초월하려면 몸에 있는 파동을 다 버려야 하거든요. 그걸 인식만으로 버리는 건 몸의 파동이 아주 험거운 일부 네팔이나 인도 등지의 사람들이나 겨우 될까말까. 우리같은 한민족은 절대로 그게 안됩니다 엄청 서러운 감정이 가슴속에 가득해요.

고차원적인 가르침은 머리로 이해하는게 아니예요 가슴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가슴이 뻥!! 뚫릴때까지 하셔야 그담에 고차원적인 수행이 되는거예요. 가슴에 빈자리가 생겨야 그걸로 용서를 하고 가슴으로 마음을 운용하는 거예요. 가슴이 짹 차있으면 마음으로 이해가 안되니까 머리가 계속 돌아가고. 감정 안느끼려고 저항해서 수행도 안되고 화만 계속 나요.

화가 나시는 분은 참지 마시고 사람 없는 코인 노래방 대낮에 무인가게 아무도 없는데 동네에 찾아보세요. 차 있는 분들은 차 몰고 멀리 공터같은데 세워놓고 차안에서 하시고요. 가슴에 빈틈부터 만드시기 바랍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가족에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비밀로 하세요. 안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가족에게 버럭!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용서해서 마무리 될 때까지 하세요! 도중에 그만두면 욱 하는 감정 때문에 힘드니까요.

12. 솜사탕, 특별함, 권위문제

다시 한 번 어쩌다 우리가 이런 꿈속의 캐릭터가 되어서 하염없이 살고있는걸로 보이는지 이야기를 해보자.

[기적수업]이 좀 어렵다면, [우주가 사라지다]라는 책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있으니 참조하길 바래.

생명(혹은 신)의 세계에는 모든 게 다 하나다, 근데 그 중에 마음의 일부가 떨어져 나와보면 어떨까? 하는 상상을 했다

그 상상을 한 순간, 찰나의 순간, 생명이 아닌 그 모든것을 상상하게 되었고, 순간의 충격으로 일시적으로 미쳐버렸다.

신의 평화가 아닌 갈등, 전쟁, 죽음, 고통, 고문, 살인, 그 모든 것이 존재하는 우주가 통째로 상상되었는데

그 찰나는 지나갔고, 실수는 교정되었으며, 생명의 세계에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떨어져나오기를 상상해본 작은 마음 조각에게는, 처음 상상해본 '신 아닌 것'이 너무나 생소하고 충격적이었기에

충격적인 일은 생각하기 싫어도 머릿속에서 자꾸 생각이 나잖아? 그것처럼
본의 아니게 계속 상상을 반복 플레이하게 되었다.

사람은 그 상상 속에서 반복 재생되는 캐릭터 중에 하나다.
사람이든 세상이든 이 통째 덩어리 뒷편에는 그 세상의 이미지를 투사하고
있는 정신 나간 마음이 있다.

신성을 가진 자가 만들어낸 세상이 얼마나 다채롭겠어? 수많은 평행 우주가
상상 속에서 만들어졌고
그 안에서 있을 수 있는 모든 삶의 형태가 다 만들어졌다가 순간에 다
사라졌다. 우리의 삶도 다 시나리오가 정해져 있는데, 다층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매순간 선택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온다, 게임 화면처럼, 그렇지만
게임이 엔딩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이 삶도 다 엔딩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탈출구가 있는 듯 보이지만 실은 없는것이다.

세상 속에서 무슨 선택을 하든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퇴색되고 행복하지 않게
된다. 다른 걸 하려고 해봤자 소용 없다. 결국에는 지긋지긋한 반복 뿐이라는
걸 알게된다. 삶이나 세상 뿐 아니라 우주 전체가 통째로, 신성하거나
신비하게 보이려 애쓰는 속임수에 불과하다.

파동은 출렁출렁 진동운동 하는거지? 행성이 자전과 공전을 하면 그자리에서
가만있는게 아니기때문에
스프링을 늘려놓은 듯 전진하게 되는데 결국 파동형태랑 같다.
전자나 원자, 분자등등도 행성의 움직임과 별 다를바 없이 중심을 향해
돌고있다. 사람의 영혼도 무리지어서 환생하는 것처럼 물질의 구성도 몇가지
원소가 붙어서 분자를 이룬다.

태어나면 죽고, 사랑과 미움은 같은 것이며, 파동처럼 같등하다 짧은 인생이 끝나고, 죽었다가 영혼들의 세상에 가고, 다시 태어나고 이 모든 게 다 똑같은 꿈이다.

원래는 하나의 파동에서 온 것인데, 이 파동이 중첩되어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가 하나의 파동이기에 다 똑같은 거다.

이걸 가지고 요새 과학계에서 세상이 홀로그램이라고 말하기도 하잖아.

몸, 영혼, 에너지체, 아스트랄체, 뭐라고 부르든 개체성은 전부 사라져야 할 꿈속의 캐릭터이다. 몸이 물질이고 영혼이 반물질이라서 몸은 천하고 영혼은 귀하다 이런거 아니다. 똑같은 몸이고 다 버려야 할것이다.

쿤달리니 에너지 이런것은 성스러운게 아니다. 다 파동에너지로 다 버려야하는 에너지이다. 영성계에는 잘못 알려진게 너무 많다. 세상 속에 있는 물질이든 반물질이든 모두 다 똑같다. 뭐가 더 성스럽고 덜 성스럽고 이런 것 따위 없다.

다 똑같이 꿈이고, 상상이고, 다 버려야 할것이다.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생각, 감정, 느낌, 삶, 모두 다 파동에너지로 구성된 것이며 신성의 빛은 파동이 아니기에 흔들리는 파동에너지와 구분되며, 에너지를 감지할수 있는 몸이 되면 직접 차이를 느낄 수가 있다.

신성의 세계는 생명의 세계라고 했는데, 이 생명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말하는 생명은 다른것이다. 진짜 생명은 하나가 통째이며 영원한데, 가짜 생명은 개체의 생명이며 언젠가는 죽음이 있다.

가짜 세상에서 죽음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신과 대적하기 위해 미쳐버린 마음이 죽음의 대조로서 개별 생명을 만들어냈다.

그렇게 이 개체성의 꿈이라는 미친 마음은 자신이 신의 자리를 탈환했다고 믿기에, 신은 언제라도 자신을 찾아와 복수를 할테니 늘 방어해야 하며, 한 순간도 실 수 없고,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자기 자신에게 먼저 벌을 주어서, 신이 나중에 나를 잡아 죽이러 찾아와도 내 이런 불행한 모습을 보고 형벌을 좀 감해줄 것이라고 믿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때로는 너무 처참하고 가엾은 형태를 띄고 있는거다. 그런 삶을 택한 개별 영혼은, 원래 다 존재하고 있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를 택해서 '배우러' 온다고 하면서 자신의 선택을 합리화 하지만, 영혼 세계도 꿈속이기 때문에 꿈이라는게 원래 좀 이상하고 말이 안되지 않아?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자기를 체험 하려고 혹은 성장하려고 고통과 고문과 살인과 죽음을 겪어봐야만 하게 설정한 것이 얼마나 변태적이고 말이 안되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당연한거다.

이런 뉴에이지의 신은, 사랑하는 자기 아이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마구 때린 다음에 너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너를 위해 때리는거야, 나도 마음이 아프다 라고 말하는 학대하는 부모와 비슷하다.

아무튼 이제 글 제목에 맞는걸 좀 써보자.
무의식 속에 있는 마음, 까지는 이야기 했고
그것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다음에 쓰겠다고 했지?

당연히 그건 신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지.
이렇게 아프니 제발 좀 도와달라고, 아무리 내가 부족하고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고 추하고 볼품 사납고 모든걸 박탈 당한 존재라고, 죽을 죄를 지었고 당신을 배신했다 해도, 그래도 감히 살고 싶으니 나 좀 살려달라고, 내 손좀 잡아달라고, 너무 아프니 외면하지 말라고 절규하고 있지.

미쳐버렸으니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아프다고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고 있지. 이 세상 속에 있는 모든 개체로 보이는 마음들은 하나같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그런데 우리에게 그 마음의 소리가 잘 안들려.

내 안에, 도움을 청하기는 커녕 신을 원망하는 소리만 들리는 것 같잖아?
왜 그럴까?

도움받을 수 없을 거라고 단단히 믿고 있거든. 죄인이라고.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래서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 눈 감고 귀 막았거든.

자기자신이 도움받을 수 없다고 믿고 있으니, 그 믿음을 깨지 않으려면, 타인의 고통에 찬 외침도 들리지 않아야 하는거지.

자거나 타인이나 원래 한 마음인데,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지. 아무튼,

타인이 도와달라고 고통에 몸부림치는 소리가, 내게는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걸로 들려. 그걸 도와달라는 몸부림으로 올바르게 받아들여 버리면, 나 자신도 도와달라고 몸부림치고 있는 걸로 올바르게 보게 될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 나는 누군가의 도움 요청을 짜증으로,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방어하려 하는거지.

나 자신이 도움이 필요한 가엾은 존재라는 걸 인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신 없는 이 세상을 내가 만들어, 진짜 신을 배신하고 가짜 세상을 만들어 신 노릇을 하는 오만한 나에 대한 인식이 허물어져 버리지 않겠어?

게다가 내가 불쌍한 만큼 타인도 불쌍하다는 걸 언젠가는 인식하게 되겠지?

또한 그 허물어져 버린 인식의 틈으로 진짜 세상의 목소리가 들려오면

'도움을 갈구하지만 받을 수는 없는 나' 라는 허상 또한 허물어져 버리겠지?

다음번에 누군가가 나에게 짜증이나 화를 내는 거 같으면,

이 사람은 괴로워하며 도움을 청하고 있구나, 이걸 보여주는 내 마음도 똑같이
괴로워하고 있겠구나
하고 생각해봐. 쉽지 않지만, 나도 늘 잘하진 못하지만,
한번만 그렇게 진실이 보이고 들리면 그 다음부터 조금 더 쉬워질거야.

13. 솜사탕 집단 역학

안녕 친구들 미겔에서 쓸 수 없었던 한단계 나아간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
솜사탕은 개별자아라는 '착각' 일 뿐 우리의 실체는 그리스도마음이라는 걸
잊지 말고 글을 봐주길 바래.

우주의 모든 게 하나의 파동에서 분화되어 나온 것이라고 했고 역겹의 시간이
흘러 의식을 가진 하나의 생명체, 몸 이라는 것을 구성하게 되었어. 개별
파동체인 솜사탕몸들은 원래 한 덩어리였는데 포도송이처럼 여러개가 분화된
거고 그 포도송이가 분화해 또 각자의 포도송이를 가지게 되고 계속 분화하는
식인데 이런 포도송이들끼리는 서로서로 발톱 박고 먹살 잡고 한 팀으로 윤회
한다고 했어.

모든 솜사탕은 다 연결이 되어 있지만, 이렇게 끼리끼리들 파벌을 이룬듯이 더
잘 붙어서 놓고 있는데 가장 작은 단위는 가족단위 윤회, 더 큰 단위로는
민족단위 윤회, 그보다 더 크면 행성단위 윤회, 은하단 단위 윤회 등이 있겠지.
같은 집단 속의 포도송이들은 같은 기억을 공유하고 비슷한 경험들을 해.

솜사탕끼리 서로 끝이 닿아 있다고 표현을 했지만 비슷한 경험이란 비슷한 파동이 투사해내는 같은 경험이기엔 사실상 파동의 많은 특성과 경험의 기억을 서로가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같은 조상을 가지면 DNA 가 같고 감정체도 비슷하고 민족끼리 특성도 공유하고 집안 내력에서 같은 질병에 취약하고 성격이나 취향도 비슷한 이렇게 모두 원래 같은 집단에서 분화했고 파동을 공유하기 때문이라고 보면 돼.

파동체 입장에서는 파동이 실재인것마냥, 지울때도 지워지는것마냥 감각의 느낌이 있지만 전체그림을 투사해 낸 전체마음에서는 그 모든게 다 투사물일 뿐이기 때문에 믿음을 걷어내버리면 그 믿음이 그려내는 그림도 지워지는 것이라서 삶이 달라져 보이는거지.

파동은 결국 믿음이기엔 하나의 믿음을 걷어내면 그에 해당하는 모든 파동이 다 지워지는거야. 따라서 나 혼자 수행하면 나의 파동과 겹쳐 있었던 가족 뿐 아니라, 내 마음속에 담겨있는 모든 사람이 동시에 다 영향을 받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적어도 실제 내 영향력이 끼치는 반경 하에는 불행한 사람이 없어지게 돼.

또한 무의식 마음에서는 우주 전체와 연결되어 있어서 사실상 우주를 지우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지. 이 얘기는 여러번 했었지. 양자역학이 세상에 나온 이후 서서히 의식의 이런 구조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하나의 예를 들면, 누군가의 세포에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이 사람의 피를 수혈받거나 장기를 이식받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은 변화가 있는 등 의식과 생명이 시공간을 건너뛰어서 하나가 바뀌면 다른것이 함께 바뀌는 이런 것은 요새 영성 책이나 과학관련 정보에도 많이 나오니까 들어본 적 있을 거야.

수행자가 수행을 할 때 나만을 치유하려 하는 이기심으로는 수행이 안된다고 남을 치유하는 딱 그만큼 자기가 치유되는 거라고 말한 적 있잖아? 자신의 파동체를 제거할 때 자기것과 공유된 같은 파동체도 영향을 받아. 가까운 가족단위에서는 내가 파동 지우는 만큼 가족의 파동도 그냥 사라져버려서, 그들은 그냥 자동적으로 질병이 낫기도 하고, 성격이 달라지거나, 심경적인 변화로 나타나기도 해.

이건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나 혼자 수행해도 똑같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수행이라는 인연을 내가 만났기에, 가족을 위해 수행 하는 것이 내 책임이라 받아들여야 하고, 가족이 날 위해서 수행을 해줘야 한다 하는 생각은 버리는 게 좋아. 그건 누가 나한테 뭘 해줘서 내가 덕 좀 보려는 이기심이고, 이기심을 버리는 게 수행이거든.

나 혼자 수행하면 가족이 다 좋아진다고 이런 맘으로 조용히 수행하는게 좋고, 또 그게 사실이야. 가족이 다 수행을 해야 효과가 있다 가족단위로 와라 이런 수행단체나 수행지도자가 있다면 돈 벌려고 그러는구나 라고 보면 돼.

그렇다면 누군가는 내가 이렇게 수행하는데 왜 가족의 병이 낫지 않느냐 라고 할텐데, 그건 본인의 의식적 마음은 병을 낫게 하고 싶어 하지만, 무의식 마음은 가족이 낫기를 원치 않고 있기 때문이야. 무의식 마음까지 깊이 들어가서 가족의 병을 투사해내는 마음의 뿌리를 보고 그걸 제거해야만 해.

그런데 내가 수행하는데 왜 이거 안돼? 라는건, 이미 이렇게 되어야 된다 라는 집착을 쓰고 있는 거잖아? 못 놓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지. 파동으로 구성된 이 가짜 세상의 구성요소는 살기이기에, 뭔가가 되어야 한다고 고집하고 있는 마음은 그 자체로 파괴하고자 하는 욕구이기에, 당연히 좋은 쪽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연인으로서 사랑하는 마음, 애착어린 마음, 그리운 마음,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 모두 다 파괴의 욕구, 죽이고자 하는 욕구야. 다 버려야 할 대상이야. 이런 말이 어떤 사람에게서는 분노를 끌어올린다는 거 나도 아는데, 받아들이기 싫으면 안 받아들여도 되니까 화 내지 말길 바래 건강에 안좋잖아. 사람은 항상 받아들이기 싫은 걸 받아들이지 않을 자유가 있어!

우주가 사라지다 에서도 그러지만, 눈에 보이는 세상은 어차피 허상이라서, 이렇게 보여도 허상이고 저렇게 보여도 허상인거라고 하잖아? 그래서 항상 이런 말 하기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마음이 사실 맞는거고, 내가 수행 하니까 다 좋아지는 걸로 내 눈에 확실히 보여야 한다 하는 건 괴로움을 부르는 마음인 게 맞아.

그리스도 마음은 오직 감사하는 마음 뿐이어서, 눈에 보이는 게 어쨌든 그저 감사하게 되거든. 그런 감사하는 마음일 때 가족의 병이 낫든 안 낫든 상관이 없게 되어 버리는 거고, 병 자체는 사라질 수도 그냥 있을 수도 있지만, 마음은 편안해질 수 있지.

내 의견으로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용서하는 방식 말고, 무의식을 속속들이 들이파서 그 형태를 자신이 볼 수 있다면 그것을 다 바꿀 수 있다고 보지만, 무의식의 깊이가 워낙 깊어서, 때로는 무의식 속 어둠의 뿌리가 저 밑바닥까지 닿아 있는 경우가 많아.

그런 경우에는 가장 밑바닥까지 봐야만 그 투사물을 지울 수 있을 텐데, 무의식 바닥에 접근했을 때쯤엔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나버렸기에, 결국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마음이 될 것 같네. 예고 마음은 항상 이게 맞다, 저게 틀렸다, 아니면 넌 죽어야 해! 하는 가혹한 마음이라서 뭔가 명확한 하나의 법칙이 있어야만 한다는 식으로 굴지만, 사실 눈에 보이는 투사물은 미친마음이 투사해낸거라 어떤 법칙 따위가 없어.

법칙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그저 고통을 겪기 위해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거지. 법칙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거 자체가 사기야. 법칙이 없어. 헛수고 하고 좌절감 겪으라고 그렇게 만들어 진거야.

솜사탕의 기본 속성은, 솜사탕은 세상의 희생자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라는 거야. ‘희생자 카드’라는 개념을 전에 여러번 말한 적 있지? 사람마다 무엇을 이용해 자기 인생에서 내가 희생자다 라고 주장할지 다 다르다고 했잖아?

어떤 사람은 가정폭력 희생자, 어떤 사람은 성폭력 희생자, 어떤 사람은 너무 가난한 나라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고아이고, 어떤 사람은 신체나 정신에 장애가 있고, 어떤 사람은 성소수자라든가, 학벌, 집안의 재력, 외모, 성격적 결함, 각종 문제거리를 뭐든지 다 희생자카드로 쓸 수 있지.

남과 다른 어떤 부분, 부끄러워 할만하고 숨기고 싶은 그런 부분을 사람마다 한두개씩 갖고 있고, 파동체 중에서 파동이 가장 짙게 얹혀있는 부분이 그런 그림을 외부로 투사해내고 있다고 보면 돼.

그런데 수행은 공격자를 지우는 게 핵심이고, 사실 공격자만 있지 공격당하는 자는 없다고 했잖아? 헌데 왜 희생자 역할을 한다는 거야 공격자가 아니고? 가정폭력 희생자로 보이지만 그 희생자 입장에서 보면 나를 때리라고 억압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전에 글에서 쓴 적 있지? 맞고 살던 여자가 다른 남자랑 결혼하면 멀쩡하던 남잔데 몇년 지나면 아내 때리는 남자가 되어 있는 일 있다고 했잖아?

자기 삶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하나라는 걸 보지 못했다면, 이게 아직까지 절절하게 잘 와닿지는 않을거야. 이런 논리로는 세상에 희생자라는 게 없고, 억울하게 학대 당하고 죽은 불쌍한 아이들도 다 자기들이 좋아서 그랬다는 거고, 글 읽고 있는 너의 인생도 네가 좋아서 이러고 있다는 건데, 넌 너무 억울하거든 그런 일 겪은 게? 네가 원해서 겪은 게 아니란 말야?

근데 이 기적수업에서 말하는, 또 내가 말하는 이 '너, 개체, 솜사탕' 이라는 건, 개별자의 소위 말하는 무의식 마음을 뜻해. 의식마음과 무의식 마음은 어떻게 다른거야?

너가 알고 있는 마음이 의식이고, 너가 모르는 아직 못 본 마음이 무의식 마음이지?

무의식 마음이 빙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의식 마음은 물 밖으로 드러나 있는 부분이잖아? 원래는 의식 마음 무의식 마음 같은 거 없어. 전부 다 통으로 강 일그러진 마음, 미친 마음이거든?

근데 이 미친 마음이 자기자신을 감추어야 하잖아?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 마음이라는 걸 모르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쓰는 가면이 바로 의식 마음인거야. 다른 인격을 형성해 의식 마음을 쓰고, 나머지 마음 부분을 통째로 자신에게서 숨기는거지. 마치 잊은 것처럼, 망각한 것처럼, 없는 듯이 자기 자신에게서도 숨겨버리는 거야.

이걸 기적수업에서는 모두가 착한 얼굴이라는 가면을 빼놓지 않고 쓰고있는데, 누구에게서 숨겨야 하는가? 하고 묻고 있지. 무의식 마음은 통째로 킬러, 살인자, 사형집행관이야.

이 사실을 가면 쓰면서 착한 척 해서 누구에게 숨기냐면 물론,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숨기는 것이지. 왜냐면 이 사형집행관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거든.

그래서 이 숨겨진 무의식 마음을 드러내서 보고, 이게 더는 내가 원하는 마음이 아니구나 하고 버려야만, 그가 못박아 매달아버린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되는거야.

하나님의 아들은 이 사형집행관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존재하고 있기에, 원래부터 아무런 해를 입은 적 없고 평온하게 존재하고 있었지만, 우리의

죄책감 어린 마음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숨겨놓고 못박아 매달아버렸다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이 착각임을 알아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드러나는 것을 허락할 수가 있는거야. 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드러나면 자신은 죄 받아 죽어야 한다고 진실로 믿고 있기에 그 죽어야 한다는 믿음이 착각임을 알아야만 그만큼 하나님의 아들이 드러나는거야.

영적 깨어남을 영의 세계에서 해주는게 아니라, 파동체 자신이 스스로 길을 터서 하게 된다고 했잖아? 도중에 도움도 있고 자극도 있겠지만 결국은 자신이 자기자신을 버려야 하거든! 그래서 자기가 길 터주기 싫으면 결사 반대하며 길 만나게 막고 있을 수 있는거지!

그래서 에고에게 넘어간 마음과 싸우면 안되는거야, 자기자신하고 싸우면 길막 하고 있는거거든! 하나님의 아들의 드러남은 수행을 해 나가면서 실제로 느껴지는 건 직관의 목소리, 맑은 어린아이, 자기 마음속 동심이 살아나는 것처럼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다가 견성이나 영적 자각으로 그의 존재가 환히 드러나게 되지.

이때 온세상이 함께 찬란하게, 심하면 언어를 잊을 정도로 충격적으로 아름다워지는 걸로 보이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일시적이거나 환히 드러나며 하나님 아들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의 눈은 즉 하나님의 눈과 그 기능이 같고,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세상만을 볼 수 있으므로, 아름다움만 있는 세상을 보게 되는 거지. 이것이 일시적이지 않고

영속적이도록 더 수행을 해서 하나님 아들을 자신의 주 인격으로 만드는 것이 신성의 되찾음이야.

다시 돌아가서, 킬러, 살인자 마음이 그런 자신을 들키지 않기 위해, 착한 인격을 만들어내고, 착한 가면을 쓰고 있다고 했는데, 이 착한 가면 쓴 마음은, 그리스도 의식에서 파생된 가슴 따뜻한 감동어린 마음과 구분 해야 해.

착한 가면을 잘 활용하는 사람은, 이 가면과 자신을 동일시한 나머지 그 너머의 자신을 상상조차 못하거든. 착한 것과 순수한 것은 다르잖아. 순수한 것은 어떤 것도 희생양 삼지 않지. 특정 형태로 무언가가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도 않아.

이러한 보통의 예고마음으로 착한 가면 쓰고 살면, 아무리 친절하려고 배려하고 다정하려고 노력하고 살아도 가슴은 냉냉하고 이기심은 그대로이니,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힘들어서 사는 게 힘들어지고, 착하게 사는데 손해만 보는 거 같은 기분으로 살게 되는거지. 시간 지나고 보니까 나는 착한 사람인데 삶은 왜 엉망이 되어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거지.

반대로 성격이 불같거나 욕설도 하고 까탈스러운 등 착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라면 남들의 마음을 움직일수가 있고, 착한 사람이 보기에는 재가 나보다 노력도 안하는데도 더 잘산다, 쉽게 산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거지.

그래서 착한 사람은 세상 제일 억울한 사람이지. 왜 자기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받는것 하나 없이 모두가 날 박해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며 속으로 화를 감추고 칼로 찢러 죽이고 싶은 살기를 억누르며 살고 있지.

살기를 쓰는데, 가해자 형태로 쓰면 속이면서 쓰는 게 아니지? 속이면서 쓰는 게 더 지독하게 살기를 쓸 수 있을 거 아냐? 그래서 피해자 형태인 희생자야말로 솜사탕 세상의 모순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

14. 잡설 + 영적 에고

안녕 친구들 요새 이런저런 돌아가는 상황이 참 재미있네. 일단 지구의 에너지는 최근들어 더 밝아지고 가벼워졌어. 그리고 사람들의 집단에너지는 그동안 물과 기름이 분리되듯이 양극화되어 있었는데 11월중순쯤 그게 그치고 잠깐 잠잠하더니 최근들어 활발하게 어딘가로 몰려가는 듯한 느낌이야.

이건 마치 이래도 안빡치냐? 언제쯤 개빡쳐서 뒤집을래? 하면서 조금씩 달궈가는 느낌인데 ㅋㅋㅋ 워낙 한국인의 에너지장이 무거워서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데 이제 조금씩 변화가 있네? 사람들이 개빡쳐서 상황을 돌려놓으려고 마음을 먹기 전까지 폭로전과 여론조작이 극에 달하겠지

화이트햇이 작업 중이라는데, 그게 아니라도 내가 보기엔 어떤 커다란 힘이 우리에게 작업 중인 걸로 보여. 사람이 살다가 아 도저히 이게 아닌데? 싶을때 자기자신에게 개박쳐야만 인생이 바뀌잖아 만일 이게 한번에 터져서 개박친 에너지가 분출하게 되면 대단할거 같은데 현명하게 천천히 잘 하고 있는걸로 보이네.

지금 이 상황이 너의 영적 성장을 위해 세팅된 연극무대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겠어?

모든 위협은 너의 몸에 가해지는 거고 너의 본질은 몸이 아니잖아?

우리가 굳이 이 시기에 수행하고 있는 이유는 때가 되어서 집단 에너지장에서 풀려나오는 혼란스러운 에너지 받아서 풀어주려고 이러고 있는거니까 개꿀 수행기회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거 같네!

나가서 시위같은거 참여하는 것도 좋을듯, 나도 살면서 시위, 집회현장 참여한 적이 적지는 않아. 행동 하면서 옳다 그르다 평가르기 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 그것도 다 용서해주면 좋겠네. 죄책감을 전가하려는 마음이 정의라는 가면을 뒤집어쓰고 있는건 아닌지도 보고 힘쓸리지 말고 중심을 지키면서 행동하면 좋겠네.

그담에...오랜 시간 동안 몇가지 댓글 보다 꾸준히 나오는 몇가지를 짚어볼게. 이것들은 오랜 시간동안 내가 여러번 말해왔지만 계속해서 댓글에서 보이는 오류들이고 예고가 흔하게 속이려고 드는 부분들이니 속지 말길 바래.

에고는 수행을 하게 되면 수행을 이용해서 너를 속이려고 해.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영적 에고가 형성돼. 영성 파는 에고가 영적 에고야. 또한 이 세상은 반대로 만들어져 있는 곳이라서 에고는 뭐든지 완전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

자기 자신의 생각, 감정, 의견, 판단 믿지 말라고 했잖아? 자기 자신도 냉정하게 그림의 캐릭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걸로 취급하는게 올바른 자세야.

생체 로봇이라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인다니까. 기존에 내가 알던 나는 내가 극복해야 할 대상이란 말야. 자신 내면의 그리스도 의식을 믿고 가는 거지, 그 외의 모든 생각, 감정, 판단, 의견 다 믿으면 안돼. 뭘 믿어야 하지? 이건가 아닌가? 하는 마음 갈팡질팡 파동이니까 다 버리면 돼. 잘 모르겠으면 전부 다 놓아버려. 진짜는 버려질 수가 없는거야.

수행이 원래 어려운게 아닌데, 에고의 속성이 오만함이라서, 자기 자신의 오만함때문에 고생을 사서 하는거거든. 오만할 때는 자기가 특별히 오만하다고 느끼지를 못해, 물고기가 물에 사니까 물이 뭔지 모르는거랑 똑같아. 그 오만한 자기가 깨져나가고 나서야 아.. 내가 오만했네. 하고 알게되는거야.

1. 세상이 다 가짜니까 수행하면 내 사랑하던 것들이 다 사라질것이라서 슬프다.

-> 이 세상은 반대로 만들어져 있어 진리와 반대야. 반대로 알고 있는 에고가 올리는 감정을 믿지 마. 수행을 해서 신성회복을 해야만 영적세계에 내가

사랑하던 사람들의 본질이 다 있고 거기에 내가 접근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러지 못한다면 내가 사랑하던 모든 건 다 꿈속이나 있는 환영일 뿐인거야.

즉 수행 해야만 그 좋았던 것들을 간직할 수가 있어.

2. 수행해서 피해를 준다

-> 수행하면 가족들이 설사하고 몸살나고 드러누우면서 치유가 되는 경우가 많아. 근데 이거는 내가 피해를 주고 있는게 아니고 엄청나게 좋은일 해주고 있는거거든? 수행하고 있다면 더는 눈으로 보이는 걸 믿지 말고 가슴으로 느껴지는 것에 집중해.

3. 살기를 쏜다

-> 이거 집착하지 말라고 많이 말해줬는데 꾸준히 댓글보면 심심찮게 잊을만하면 이런말들 하고 있거든? 이걸 연쇄살인마가 자기가 죽인 아이 이야기가 나오면 눈이 반짝이며 자랑스럽게 말하고 싶어하는 심리랑 똑같은데? 죽이는 걸 자랑스러워 하는 게 예고란 말야?

내말이 농담같지? 아니면 좀 과장 같지?

지금 내가 한 줄 한 줄 띄우고 있잖아?

농담 아니고 개 진지함. 과장도 아님.

에고는 킬러, 살인마, 사형집행관임. 그래서 수행 시작해서 살기가 보이면 그거에 집착함. 환장하고 좋아함. 이 죽음에 대한 집착을 잘 보고, 살기 쏜다고 보고 싶을 때마다 그 마음을 성령께 놓아줘야 한다고 말했음.

살기 쏜다고 보는게 착각이라는 점에 대해 여러 글에서 여러번 말했었음. 이런 말 거듭 하면 혼나는 기분이거나 기분 상할수 있는 거 이해해, 그렇지만 여러번 강조하는 이유는, 전에도 말했지만, 살기 보려는 그 마음이 영적 에고를 키우기 때문임.

영 적 에 고 궁서체다 개진지하다

이거 때문에 99퍼센트의 수행자가 수행하다가 골로감. 내 옛날 수행터도 되게 좋은데었는데 개망했음. 가슴을 열어주는 마음 따뜻한 데였어. 서로 얼싸안고 감격에 눈물 흘리는 데였단 말야?

근데 에고 본다고 살기 운운하더니 복잡한 에고를 한없이 살기교류로 설명하는 데 집착하더니 살기에 집착해서 통합을 못하고 분화되고, 골로 가는거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아냐 수행 많이 된 사람들도 심지어 백회 연 사람들도 골로갔다.

무의식이 얼마나 깊은데 통째로 우월 열등 계급의식인데 수행 많이 되었다고 그게 없는데 아냐 끝까지 경계해야 하는거야. 파동은 확산, 자가복제의 기능이 있어서 지우지 못하면 언제든 증식할 위험이 있어. 바이러스처럼 퍼지려고 노력하고 있고 나는 그걸 계속 알아차려야만 되게 되어 있어.

월 일부러 우월하려고 하고 잘나려고 하고 해서 영적 예고가 생기는 게 아냐. 수행이 깊어질수록 신 앞에 겸손하고 남을 도우려는 마음을 매일매일 안내면, 그게 이미 골로 가고 있는거야.

영성 추구하는 아무데나 다 둘러봐봐 백중에 구십이상 영적예고가 설치고 있다 이거 얼마나 심각한지 아냐 지금은 별 거 아닌거 같아도, 신비체험 몇번만 해봐, 막 자기가 대단한 거 같지 차라리 우월감 쓰는 영적예고면 알아보기라도 쉽지, 친절하고 겸손해 보이는 영적예고 쓰는 놈들이 더 많아. 영성사기꾼에게 당하면 돌이키기가 정말 힘들어. 근데 자기들도 자기들이 사기꾼이라고 생각 안해, 자기들은 진지하게 남을 돕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자기는 안그럴거 같지? 남의 일 같잖아 난 수행 하면서 마음 따뜻하고 뿌듯하니까 설마 그렇게 안될 거 같잖아 내가 본 사람들도 다 잘 하다가, 자기들이 그렇게 될거라곤 생각 못해서 경계를 안하고 하루 하루 아주 조금씩 조금씩 바뀌면서 그렇게 되어버렸어.

영성추구해서 영성이 깨어날수록 영적예고를 키울 위험도 더 커지는거야. 무의식을 본다는 건 예고라는 포장지를 벗겨야 하는데, 그 포장지가 바스락 바스락 좀 시끄럽냐?

알맹이 아니고 포장지에 정신 빠져 있을 위험이 항상 있는거야. 자기 자신을 믿지 말라고. 신성을 믿으라고. 세상속에서 부대끼면서 사람들 많이 만나고 일도 많이 하면서 자아성찰 하면서 겸손하게 수행해야 하는 이유가 이 영적예고 때문이야.

영적에고는 처음엔 아주 작은 거 별거 아닌거부터 시작하다가 조금씩 커지는거야 하도 이걸로 망한 사람들 많이 봐갖고 난 아예 처음부터 싹을 자르고 싶어, 보는 사람이 흑 혼나는 기분이고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음 내눈에 이 싹이 보이기만 하면 난 계속 계속 말할 것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

전체 그림은 처음부터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내가 수행한다고 살기를 더 쏘는 게 아냐.

살기의 총량은 똑같아. 단지 내 보는 능력이 더 강화되어서 더 많이 보이는 것 뿐이야.

수행을 예고가 하는게 아닌데, 예고는 지워지는 대상일 뿐인데 예고는 마치 자기가 수행 하고 있는 것처럼 나대고 설치게 됨 원래 그런 거니까 어찌다 그런 마음이 올라와도 당황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돕는 마음을 내려고 노력하면 돼.

15.실체가 없지만 끼어들어서 내가 했다고 주장하는 예고

질문 : 살기를 쏜다 이부분 오류 요즘 많이 느끼는중이야ㅠㅠ 자식을 키우는데 자식이 화나게할때(내가 선택한거지ㅠ) 순간적으로 아 진짜 지긋지긋해 너무 싫어!!! ㅁㄷㄴ 하면서 막 쌍욕이 무의식에 올라오는데 그럴때 자식이 연속으로 넘어져 다치거나 피나거나 그런적이 여러번 있거든ㅜㅜ 그거랑 자식 친구중에 유달리 내 아이랑 악연이라 공합이 안맞는것처럼 싸우는 자식 친구가 있는데 개를 볼때마다 처음엔 불우한 친구라 불쌍하고 잘해주려 했다가 볼수록 살기덩어리 업보덩어리 재수없는아이 이렇게 그 아이 탓을 하게 되는거야ㅠ

속으로 엄청 밉다는 생각할때 개도 넘어져서 다쳤는데 꽤 크게 다쳐서 꿩매는 간단한 수술까지 하더라구ㅜㅜ 속으로 뜨끔했는데 백프로 미안한감정이 아닌 그러게 그만 질척거릴것이지ㅋㅋ 이렇게 생각이들더라고 꼬마야 이 살기덩어리야 니가 왕따인건 할머니랑 살아서가 아니라 너가 살기덩어리라 그래 넌 그걸 깨달으려면 한참 멀었지?쫓쫓 근데 난 생각만으로 넘어트려서 다치게할수있으니까 까불지마 이런마음이 예고의 본심인듯해서 놀랐다ㅠㅠ 개는 나를 그나마 착한 이웃으로 생각해주는데ㅜㅜ

평소에 몸관리 안해서 컨디션이 안좋을때 참을성 없어지고 쌍욕 원망만 가득한상태가 예고의 본모습인거지? 부정적이고 죽이려는 마음만 가득하고 상대가 나를 죽일거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스쳐지나갈때 그게 무의식이지..? 신성도 무의식의 유일하게 올바른 마음인지 궁금하다 아님 무의식의 밖에있는지..

dada : 신성과 무의식은 서로 완전히 다른 세계로 서로를 못봐. 신성 입장에선 무의식은 존재하지도 않는거고 무의식 입장에선 신성은 어디선가 들어왔고 자기를 잡아 죽이러 오는 전설속의 존재같은거 ㅋㅋㅋ 왜냐면

무의식은 결국 신성의 마음 일부가 어그러진거거든. 아이든 누구든 누군가나 무언가가 나빠 보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것을 투사해내서 그렇게 보이는 거. 근데 그 투사물이 나타나기 바로 찰나의 직전에 에고가 끼어들어서 내가 이거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투사물 자체는 그저 원래 만들어져있는 영상이었음. 에고는 실체가 없어서 뭘 할 수가 없어 근데 에고마음이 킬러다 라고 얘기하는 건 무의식 마음이란 에고에게 놀아나는 부분이라서, 에고마음이 킬러다 라고 하기보다 에고에게 넘어간줄 아는 무의식마음이 킬러다 라고 하면 더 정확한데 너무 기니까 그냥 에고마음이라고 말하는거지.

그래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투사물로 인한 겉보기 현상이 있는데, 투사물이 인식 마음 위로 떠오르기 직전의 순간을 미묘하게 인지하게 될때 신성의 마음으로 갈것이나 에고의 마음쪽으로 갈것이나 이 두가지 갈래라는 선택의 여지가 있는데, 여기서 신성을 선택해야 하는데, 에고를 선택해서 역시 이 일은 내가 만들었다 나는 위대하다 이렇게 되는것이 그런 안좋은 일이 누군가에게 나타나는 것 뿐 아니라 모든 우리 삶의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는거지.

이때 매순간 신성을 선택하게 되면 무의식마음의 일그러진 부분을 치유하게 되니까 나쁜 쪽으로의 투사도 덜 하게 되는 거야. 이것 또한 에고와는 별개로 일어나는 일이지.

사실 이런일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데, 우린 그 살기의 에너지 흐름을 인지할때 그게 떠올라서 현상을 일으킬 때 그건 오직 내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거든, 솜사탕 개별체가 따로 있다는 게 착각이라고 여러번 이야기 했잖아 기억나지?

근데 따로인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저렇게 여러가지로 이야기해야 하니까 수행 가는 도중에 보이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 하는거야. 솜사탕 많이 지을수록 전체 그림이 보이게됨.

밖이라고 할만한 게 없기 때문에 나는 그저 투사물을 투사물이게 하는 에너지를 느끼고 있을 뿐인거야, 근데 내가 지금 밖으로 살기를 쏘고 있다, 그래서 공격중이다. 그건 왜냐하면 저 상대방이 (살기로) 나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예고가 주장하는거야.

그래서 살기 쏜다는 걸 의식하면 착각이고 그러면 안되는 이유가, 살기가 일어나서 그걸 밖으로 투사해내는건 온전히 내마음에서만 일어나는 일이고, 남의 마음이라는 게 없는데, 예고는 ‘이거봐 역시 외부에는 적이 있잖아? 재가 널 공격하려고 하는 거 보이지? 재가 문제야 위험하잖아 넌 공격당할 수 있어! 빨리 공격해야 되지? 날 봐! 내가 공격했다? 내가 이렇게 널 위해 공격해서 널 지켜줬잖아? 역시 넌 내 말을 들어야 해! 나밖에 없지? 든든하지? 라고 설득하고 있는건데, 어떤 일이 일어나려고 할때 그 일을 일으키는 내 감정(파동에너지) 이 먼저 일어나고, 그 감정이 일어나기 딱 직전에 몇백분의 일초전에 먼저 예고가 이거 내꺼야 내가한거야!’ 라고 주장함.

기민하게 가만히 알아차리려고 애써보면 캐치할수 있을거야! 수행해서 에너지 파동 (살기) 의 흐름이 마음에 보이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집착하면 이 에너지가 막 색깔이나 실체로 육체의 눈에도 보이고, 그걸갖고 에너지 힐링이니 남의 집안이나 사람 기운 봐주기니 전생보기 이런거 하면, 그 예고에 계속 설득당하고 있는거라서 영과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거지.

에고는 아무런 실체가 없어서 뭘 할 수가 없어 왜냐면 어떤 일을 일어나게 보이게 하는 건 마음이거든! 에고는 마음과 상관없는 허상이야. 내가 에고를 내 친구처럼 내 감독관처럼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뭘하든 책임을 피하고 싶다, 내가 공격한거 아니고 에고가 공격한거고 난 재한테 조종당하고 있으니까 신이 날 잡아 죽이러 와도 나는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 인해 이 에고라는 허상이 유지되고 있어.

즉 희생자 의식이 바로 에고라고 봐도 틀림이 없어. 내가 모든 것의 지배자인데 아닌 척하는 그 마음의 착각이 에고이지. 허상이라고는 하지만 내 몸의 모든 신경계를 지배해서 마치 진짜처럼 느껴지고 인격이 있는거처럼 느껴지지.

내가 내 주도권을 에고에게 넘겨 주고 살고 있는 것도 내가 원해서 그렇게 한 거라서, 다시 찾아오는 것도 내 의지로 하게 되는거. 그래서 맞서 싸우는 게 마치 나 자신과의 싸움으로 느껴지잖아? 내가 나 자신하고 맞서 싸우는건 신과 대적해서 싸우고 있는거랑 같아. 그래서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거.

왜냐면 내가 좀 일그러진 마음 갖고 아닌척 살고 있지만 실체는 신의 마음이거든!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그게 허상이라는 걸 인식함으로써 성령의 마음 (신계에 있었을때의 기억) 의 실재성을 인정하는거. 에고냐 성령이냐? 둘 중 성령을 계속 택하는거.

너 자신과의 싸움은 신과의 싸움이다 승리를 상상할 수 있겠는가? 이 비슷한 문구가 기적수업에 있음 ㅋㅋㅋ 수행은 고행이다 나를 극복해야 한다 라는 생각으로 적을 만들어놓고 그걸 뛰어넘으려고 하면 개고생 (부처님이 고행한후 깨달은게 이거일거같음)

저 사람 나쁜사람이다 도저히 용서할수 없을거같다 라고 생각 하면서 그걸 억지로 용서하려고 하면 개고생. 원래 없는 거라고 하니까, 아직 없는 것처럼은 잘 안보이기는 한데 그래도 믿어보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게 자연스러운 수행방법

마무리는 오랜만에 피이쓰 ㅋㅋㅋㅋ 행복합시다

16.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려는 욕구

안녕 친구들 요새 약간 난이도 있는 걸 다루고 있으니 혹시 최근에 유입된 분들이 계시면 예전 글부터 읽어주시길 바래!

지난 글에서 고통에 차 비명지르는듯한 괴로운 마음이 이 시공우주를 파동으로 구성했다고 했잖아? 파동이라는 건 그 속성이 살기이고, 에고마음은 죽음에 집착한다고 했잖아?

근데 다른이도 아닌 신의 마음의 일부가 난 죽어야 해! 라고 마음먹는데, 신이 명령하는 것인데 이루어지겠지?진짜로 죽지는 못해도, 그 착각 파동만큼은 자멸해서 죽는걸로 보이게 되거든!(우리의 실체는 신이 만들었다는 것만 제외하면 신의 마음과 정확히 똑같아)

그래서 파동은 생겼다가 분열의 꿈을 꾸고 있는 그 마음에 맞게 순간적으로 마구 분화하면서 혼란스러운 영상들을 밖으로 투사해내는데, 미친 마음은 이 투사된 것이 마음 바깥 이라고 믿게 돼. 마음은 언제든 신에게 보복당할 수 있는 곳이라서 마음 아닌 곳을 만들어냈다고 믿는거고 마음 바깥인 투사된 그림 속에 들어가 왜소해져서 살고 있다는 꿈을 꾸지.

그러나 이것은 아주아주 순간적인 일이고, 파동은 그 속성이 살기이기 때문에 죽어야 한다는 명령에 따라 이 착각이 모두가 순식간에 사라져. 이 파동 만드는 마음은 죽으려는 갈망이 강해서 파동을 없앨 수 있을 뿐, 죽을 수 없는 신의 마음이라서 자기가 죽지는 못하거든? 죄책감이 그대로 있잖아? 그래서 똑같은 짓을 자기도 모르게 계속 하게 돼. 집착이 되어 버린거지.

아까 파동이 사라진 자리에 찰나의 순간 아무 것도 없다가, 아까랑 똑같은 파동이 생겨. 그리고 똑같이 마구 분화한 후 미친 세상을 투사하고는 모두가 순식간에 사라져. 미친 마음은 이걸 수없이 반복하고 있어. 그래서 이 파동우주는 겉보기에는 번쩍 번쩍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고 있어. 아주 빠른 속도로.

왜. 형광등 같은 거도 꺼졌다가 켜졌다가 하고 있잖아? 너무 빠른 속도로 꺼졌다 켜졌다 하니까 형광등 불빛이라는 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형광등 불빛이란 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형광등에 들어오는 전기 신호만 있는거잖아?

그것처럼 이 시공우주도, 실제로 있는 건 그걸 있어 보이게 만드는 동력(일그러진 하나님 마음의 일부)이 있는거지, 번쩍 번쩍 하고 있는 투사물인 우주는 존재한다고 말할수가 없는거지.

파동 사라진 이 찰나의 아무 것도 없는 순간에 다음 파동이 일어나기 직전에 예고 혹은 성령이 끼어드는 거야. 예고는 이거 내꺼야! 내가 만들었어! 잘했지? 라고 끼어들고, 성령은 이걸 착각이란다! 이 고통은 내가 가져가마! 라고 끼어들지.

근데 이 끼어들게 하는 것마저 내 마음에서 허락이 있어야 양측 중 하나가 끼어들게 돼. 내가 왜소한 척 하고 있지만 그 본질은 우주의 지배자란 말이지 ㅋㅋㅋ 용서를 하게 되면 이 찰나의 틈에 성령이 자주 끼어들게 되어서 다음 파동이 삭제되니까 인생이라는 이미지가 영화 편집이 되는 것처럼 일부 삭제되고 변경도 되는 거지.

신기하지? 파동이 죽었다 살았다 하다니. ㅋㅋㅋ 근데 이거 우리 모두가 보진 못해도 다들 겪고 있는 거야. 어떤 거냐면 살면서 충격적인 일, 예를들면 배우자의 불륜을 목격했다고 치자. 잠이 오겠어? 잘려고 누우면 벌떡 일어나는 걸 며칠, 몇 주, 몇 달 하겠지?

이 개 같은 년놈들이 감히? 하는 괴로운 생각에 복장이 뒤집어지겠지?

문제 해결이 다 되었고 시간도 지났어. 근데도 한번씩 생각 나면 잠 못자는 날이 있겠지?

생각을 끊고 싶지만 계속 계속 떠오르지? 아 이거 아니야 나를 위해 잊자. 생각나면 지는 거야. 이려고 잠시 편해졌지만 30초도 안되어서 똑같은 생각 또 나지? 도저히 누워 있을 수가 없어서 벌떡 일어나 괜히 밖에 나와서 담배 한대 피지?

우리 사는 삶이 이런 식이잖아? 생각 하기 싫은데 계속 생각나. 특히 충격적인 거는 더해.

사소한 거라도 뭐 예를 들어 예쁜 여친 남친 얻었는데 뭔가 딱 하나 부족한 점이 눈에 보이면 아 그거 안보고 싶은데, 잊고 싶은데 계속 그거만 보이지? 마음이 확 꽃히잖아 그거에? 그거만 집착하게 되잖아?

누가 잘 해줘서 고맙다가도 그사람이 실수 한두 번 하면 아 저사람 이런 사람이었어? 사람 잘못 봤네? 10번 잘해줘도 1번 잘못된 거 보면 그 사람은 내 머릿속에 실망스러운 사람이 되어버리지? 잘해준 건 당연하고 못해준 거만 계속 생각 나잖아?

이 번쩍 번쩍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파동은 파동이 통째로 뭐라고 했지? 희생자 의식이라고 했잖아? 공격하고 공격받고 이렇게 가능하다고 착각하는 의식이라고 했고 생각, 판단, 분별, 분석, 의견, 이런 사고과정 및 감정까지 모두 공격이라고 했잖아?

그리고 이 파동이 개별체가 되었건 전체가 되었건 전부 없는 거라고,
착각이라고 했잖아?

죄 지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벌 받아야 된다, 이 큰 죄에 대한 납득할만한 벌은
죽음이므로 죽이거나 죽여야 한다면 집착하고 있어서 남을 죽일 놈 만들기에
그렇게 집착하고, 나는 죽일 놈 안되려고 갖은 애를 쓰며 사는거지.

시공 우주 전체가 이 파동으로 투사된 거지만 조각 조각 내서 내 의식을
몸속에 가두어 놓고 나는 내 몸에 보이는 것만 보이고 들리는 것만 들리고
만져지는 것만 느끼게 해놓았으니 마음 전체에서 벌어지는 일따위보다 내게
일어나는 불편한 감정들을 내 인생으로 만나게 되는거지.

시공 우주 전체를 투사해 내는 죄책감은 이제 내 삶에서 갈등으로 변신해서
보이는거야. 그래서 내 인생에서 파동, 왔다갔다 하는 감정, 생각등을
제거해내면, 사실상 시공우주를 만든 그 고통스러운 무의식 마음을 제거하는
거랑 똑같은거야.

갈등이 일어나 마음이 마구 널뛰기 할때 성령을 불러 평온을 찾으면 다음에
번쩍 하고 일어나는 똑같아보이는 파동은 아주 미약하게나마 아까 그
파동보다는 파동의 얽힘, 죄책감의 밀집도가 약한거지. 점점 더 그 밀도가
낮아지면 서서히 파동 사이로 진실도 보이고 죄책감의 떠올림을 더는 안해도
되면 파동 일으키는 일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거지.

무의식 마음의 깊이가 어마어마 하다고 내가 맨날 그러잖아 무의식이 무슨 우물도 아니고 깊이가 어디있겠냐. 그런게 실재하는 건 아니잖아 비유지. 용서해서 파동의 밀집도를 줄이는 과정이 오래 걸리는 데다 처음에는 약한 파동부터 떨어져 나가고, 찢득하게 엉켜 있는 건 껌처럼 바닥에 쪽 붙어 있다가 나중이나 떨어질 거 아냐? 뒤로 갈수록 더 헉스럽고 잉?스러운 걸 보게 되니까, 깊이 라고 표현을 하는거지.

예전에 쓴 글 중에서 어디 댓글에 이런 예를 든적 있거든! 돈 만원 갖고 있었는데 썼다, 근데 그 돈 갖고 있던 때의 기억을 계속 살릴 수 있잖아? 아 나 돈 만원 있었는데 아 나 돈 만원 있었는데 아 나 돈 만원 있었는데 지금은 돈 만원 써버려서 없잖아 어찌라고?

근데 계속 생각을 할 순 있잖아? 그게 지금 우리가 우주를 만들고 하고 있는 짓이야.

아 나 죄 지었는데! 죽어버려야겠다

아 나 죄 지었는데! 죽어버려야겠다

아 나 죄 지었는데! 죽어버려야겠다

이렇게 반복해서 일그러진 마음(파동) 을 띄우고 있는거야. 돈 써 버린 것처럼 죄도 사라졌잖아? 없잖아 어찌라고? 근데 계속 생각하고 싶어하거든! 집착하고 싶거든!! 없는 걸 있는 걸로 만들려는 욕구 때문에 없는 건데 마치 있는 것처럼 투사물이 생성돼.

없는 거를 없는 걸로 인정하고 이 욕구를 놓아야 성령이 끼어들 수 있어.

궁서체 개진지 좋다는 의견이 있어서 붙여봄 ㅋㅋㅋㅋㅋ

그래서

아 맞다 나 죄가 없지 참! 벌 받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구나!

아 맞다 나 죄가 없지 참! 벌 받으려고 만든 투사물도 원래부터 없는
거로구나!

아 맞다 나 죄가 없지 참! 난 몸에 갇힌 죄수가 아니라 자유롭구나!

하고 인식할 때마다 이 일그러진 파동 마음이 떨어져 나가는 거지.

이걸 온갖 방식으로 반복시켜 주는게 기적수업 연습서고, 말을 해서 감정을
끌어올리는 건 죄책감을 한번에 더 많이 보게 해서 멍텅이로 지우는 방법인
거고. 이것과 연관된 기적수업의 문구가 몇몇 있는데 거의 비슷할거야!

너는 이미 끝난 고통스러운 전쟁에서 벗어나려고 애쓰고 있을 뿐이다.

너는 매순간 죽음을 택하지만, 하나님은 네가 살기를 바라시니 매순간 생명을
주셨다.

17. 감정이 전보다 잘 올라오지 않는다?

수행하면 감정이 더 올라온다고 들었는데 나는 편해졌다, 잘하고 있는건지 모르겠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수행하면 감정에 기민해지고 화가 더 잘올라온다는건 무슨뜻이냐면, 일단 급한 감정은 해결을 했으니까 굼직굼직한 파동 제거한거라서 마음이 좀 편해지고 관대해지죠, 그거랑 별개로 한번씩 마음이 뒤편에 걸릴 때 있잖아요? 그게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평화롭다가 짜증이 올라오니 더 성가시게 느껴지는 거지요. 평온함에 익숙해지니까 마음이 불편하면 어쩔 줄을 모르겠고 빨리 해결하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평화로운 데에 비해서 그 올라온 감정이 훨씬 대비가 크게 느껴지니까 전보다 더 나쁘게 느껴지는거예요.

그전에는 방이 엉망이라 가구도 막 뒤집어져있고 온갖 휴지 쓰레기 비닐봉투 음식물쓰레기 이렇게 있었다고 쳐요 막 토사물도 있고 곰팡이도 피어 있고요. 너무 더러워서 그런 자신이 싫지만 감당이 안되니 치울 생각도 못하고 외면하고 살다보니 당연히 그냥 그렇게 사는 건줄 알고, 남들도 둘러보니까 다 그런방에서 살고있어서 내가 특별히 문제는 아닌거같죠. 그런 방에다 거기다 코푼 휴지 하나 더 던져봤자 별차이 없잖아요? 바닥에 막 계속 버려도 뭐 어때요? 방에 쓰레기 꽉찼고 남들도 다 그러고 사는데요.

근데 방을 치울수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방을 좀 치웠어요, 그럼 전보다 쓰레기 적으니까 기분이 좀 나아지겠죠? 거기다가 코푼휴지 하나 던지면 전에 드러운 방에다 던졌을때에 비해 신경이 더 쓰이고 빨리 치우고 싶고 그 휴지가

유난히 더럽게 여겨지고 그러겠죠? 그거랑 같습니다. 더러운 방에 벌레 나오면 뭐 그러려니 하겠죠? 근데 깨끗한 방에 벌레 나오면 질색 할거 아니에요?

지금 수행한지 몇달되어 방 전체를 다 치운게 아니라 옆어져있는 가구 몇개 세우고 쓰레기 큰거 몇개 치운거랑 비슷한거예요, 아직도 많이 더럽고 바닥에는 막 자질구레한 쓰레기 가득하고 쓰레기 들추면 바퀴벌레도 나오고 벽지도 다 찢어져 있지만 아예 치우는 방법도 모르고 치울 마음도 없었던 전에 비하면 큰 차이죠? 가구 세웠으니 앉을 자리도 좀 생기고 마음이 편하지요.

거기서 만족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감정이 더 안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건 아니고 다는 아니더라도 청소 열심히 했으니 마음이 좀 쉬어갈 때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더 빨리 가고 싶으면, 방 둘러보고 아직 치울 것이 많다고 인정을 해야 해요. 더 깊이 있게 본다고 생각하고 더 기억을 파고들어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운동도 하고 정치인이나 연예인 등 미운사람 보면서 청산 계속 하면 다음 층이 열립니다. 어디 포털 게시판 같은데 가보면 남녀 갈라서 별별 단어 다 써가며 서로 깎아내리고 하는 거 보면 비난하고 싶은 마음 등 많이 올라옵니다. 교착상태 푸는 방법 그간 많이 알려드렸으니 참조하세요.

최종 목적지가 바닥에 쓰레기 없어서 깨끗하고 남들보다는 좀 나은 이런 정도가 아니라, 벽지도 다 새걸로 갈고 장판도 다 새걸로 갈고 배관같은거도 손봐서 냄새도 안올라오게 하고 조명도 다 깨진거 갈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가구도 다 바꾸고 유리창도 닦고 커튼도 달고 등등으로 아주 멋진 방을 상상하시면, 아직 멀었구나 내가 뭘 더해야 하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많은 경우에 그정도까지 생각을 못합니다. 자기가 만족하면 거기서 의식성장은 그칩니다. 그래서 최종목적지를 설정을 잘 하시는게 중요합니다.

18. 한의 저장고

안녕 친구들 분탕스러운 잡글이 하루에 두어개 꾸준히 올라오는데, 완장님이 그때그때 삭제를 잘해주고 게시네 관리해주시려고 자주 들어오시는거 같은데 이자리를 빌어 또한번 감사합니다!!

영성파다가 에고에 휘둘리는거는 영성을 지식으로 머리로 이해하려고 해서 그런데, 가슴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여지면 그렇게 사람이 오만해지지 않을 거 아냐? 근데 화병이 hwa byung 으로(맞나 ㅋㅋ) 외국어 사전까지 등재된 한국인 특성상 가슴이 한으로 꽉 막혀 조금도 빈틈이 없어서, 원한이 가슴속에 가득하고, 마음을 닫고 살고 있어서, 영적 지식이 마음으로 느껴지지 않아서, 머리로 자꾸 이해하려고 하게 될 수밖에 없어.

무의식속에 화가 많다는건 방어도 그만큼 많이 하고 있다는 거라서 무의식을 보는게 엄청 힘들어. 반면 한국인이 마음은 잘 발달을 해서 신비체험을 잘 하는 편이야. 영성에 대한 갈구도 대단하고. 그러다보니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건데 그 결과는 영적 에고, 오만함이 되어버리는거지.

기적수업을 하고 있는 사람중에서도 나는 과연 진짜로 가슴으로 그리스도의식을 펼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회의적이야. 왜냐하면 기적수업 텍스트는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어려움의 끝판왕이고 워크북 해봤자 가슴속에 무의식속에 한이 가득한데 그거 못버리고 해봤자

표면의식만 닦는 거거든. 자기가 의식할 수 있는 의식의 일부분만 거룩해지고 무의식속은 화가 가득한데 못 끌어내니까 외면하고 있는거지.

우사 시리즈에서 보면 기적수업이 한 생깁고 안되고 환생해서 또 하잖아, 외국인들 입장에서 그 정도로 오래 걸리는건데, 한국인은 그 정도로 태도 없지. 개들이 연못이면 우린 저수지 수준이라고 한의 저장고 크기가.

교재 텍스트를 그리스도의식으로 보면 단순하고 있는 그대로인데, 예고로 보면 엄청 어렵고, 어려우니까 집착하게 될수도 있어서 워크북만 해야된다는 분의 주장이 이런 가슴이 꽉막힌 한국인들에게는 아예 틀린 말은 아니야.

아마 저분도 남들은 워크북 안하고 지식만 들이파는꼴을 많이 봐서 한심해서 안타까워서 저렇게 말하는 거같아. 물론 우리는 한풀이 해서 가슴에 빈자리 만드는 걸 하면서 기적수업 하니까 방식이 좀 다르지.

예고를 버린다는 게 내 고집 아집 집착을 놓는다는거잖아. 근데 그 고집 아집 집착은 에너지거든? 아주 끈끈하게 엉겨붙은 강한 에너지야. 사람이 죽을때나 되어서 변한단 말 있지? 그 정도로 그게 놓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 우주가 사라지다 읽어서 그거대로 용서하려고 해봤자 용서한다고 되뇌이지만 가슴에 답답한건 그대로잖아?

여러 번 말해봤자 계속 올라오는 거 같고 답답하고 화병 올라오는거 같고 그럴 때 있잖아?

한국인은 그리스도의식이 상당부분 회복되기 전까진 용서한다는 인식만으로는 잘 안돼, 집착의 에너지가 너무 세. 다 환상이고 가짜니까

똑같이 다 지워지는거다 라고 말했지만 그게 실제로 되려면 이미 그사람의 그리스도 의식의 빛이 어느정도 키워져 있어야 하고 초심자는 그게 잘 안돼.

어떨땐 되는건지 안되는건지도 긴가민가할거야. 남들은 잘되는거 같은데 나만이런가? 하고 자격지심이나 의심도 올라오지. 전에도 말했지만 한민족의 가슴속의 화 저장고는 지구인 전체의 한을 다 담고 있어. 저수지 같은거라고. 에너지 저장고.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이유가 있어서 담고 있는거야.

우리들이 감당해내야 하는 에너지는 용서한다는 확언만으로 쉽게 될 수준이 아니야. 답답해 죽겠는거 어떤 식으로든 밖으로 풀어내야 뭐가 좀 돼. 화풀이 한풀이 라는 단어가 왜 있겠어?

나중에는 의식의 집중만으로 이런 집착적인 파동이 분리가 가능한데 그 전까진 무조건 몸으로 수행해야돼! 울고불고 운동하고 땀빼고 해야되는거지.

몸이 파동체가 투사해낸 거잖아. 파동이 몸으로 느껴지는 거기 때문에 파동이 좀 전체적으로 밀도가 떨어져야 그만큼 방해가 적어지고 의도에 따라 조절이 되는거지. 수행해보면 초반에는 자기생각대로 청산이 좀 돼, 왜냐면 초반에는 올라오는 감정이 그닥 대단한 에너지가 아니거든 시간이 지나서 기혈이 많이 열리면 집착, 중독적인 에너지가 쉼게 풀려나면서 정신 못차리고 자기도 모르게 휘둘리게 돼.

영성계에서 처음엔 영성 잘 파다가 중반에 맛이 가버리는거도 이런 이유 때문이야. 기혈이 많이 열릴수록 쉼 에너지가 올라오거든. 보통 처음이나 중반엔 어렵다가 나중에 뒤로 갈수록 파동 적어지면 편안해지겠지

생각하는데 다른 글에서 말했지만 고요한 와중에 살기가 올라오면 그게 되게 생생하게 느껴져.

나중엔 예고의 목소리가 가면 안쓰고 있는 그대로 들리는데 항상 둘 중에 하나야. '죽어야 돼, 아니면 죽여야 돼' 야. 실제 목소리로 귀로 들리는건 아니지만 자주 이런 강력한 내적인 요구를 들으면서 한동안 살아야 하는거지.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를 모르고, 절대자에게 의존하지 못한다면, 우울감이나 분노조절장애 둘중에 하나에 시달리게 돼.

이 죽음에의 요구를 듣기가 너무나 생경하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목소리를 외면하고 이상해지는 사람도 많은데, 세상에 많은 영성지도자가 이런 경우로 보여. 그래서 절대자에게 귀의하는 건 수행자라면 초장부터 하는편이 본인을 위해 좋아.

가슴 속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걸 권해! 자주 마음속에서 절대자를 불러. 성령 불러도 되고. 별일 없어도 시도때도 없이 이유없어도 자주 불러! 한번이라도 부르면 성령이든 하나님이든 절대 안 듣는 때가 없어.

부르면 백프로 대답이 오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상위차원의 에너지같은걸 느끼게 해주지.

하지만 이것도 기혈이 꽉 막혀 있으면 본인은 감각으로 못느껴. 감각도 상위차원의 에너지를 느끼려면 차근차근 개발이 되어야 하거든? 처음에는 아무것도 못느끼지. 못느낀다고 대답이 안 오는 게 아니야. 그저 아직 본인이 못 느끼고 있을 뿐인거.

성령 부르든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부르든 자기맘인데, 불러보면 하나님이 제일 파워가 세.

한민족이 음주가무 좋아하고 바쁘게 사는걸 좋아하는 건 우리가 한의 저장고라서 안죽고 살려고 그러는거야. 술먹고 취중진담 주절거리고 고래고래 소리지르고 노래부르고 춤추고 하면서 한을 좀 덜어내는거지

바쁘게 움직이는 것도 파동이 그렇게 짹짹 들이쳤는데 가만히 있으면 파동이 멎게멍게 뇌를 건드려서 정신이 헤롱해지거든 목적을 갖고 바쁘게 일을 하고 활발하게 움직여야 에너지가 정체되지 않고 그나마 살만해서 그렇게 설계해 놓은거야.

최근 몇십년간은 사람들이 움직임이 덜하고, 감정 억눌려야 되는 사회가 되어서 다들 부글부글 폭발하기 직전이지.

그래서 자꾸 소리질러라, 울어라, 가슴에 한부터 풀어내라 라고 하잖아 노래 불러도 돼, 감정 느끼면서 노래 부르면 풀어져 가슴에 빈 공간이 생기면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누군가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가슴에 훅 들어와.

가슴의 빈 공간이 영성의 통제센터 같은거야. 한국인이 제일 큰 자리를 갖고 있어. 통제센터를 비워야 거기에 그리스도의식이 들어와서 자리잡고 지휘관 자리에 앉을수가 있어.

통제센터가 작은 사람하고 큰 사람하고 누가 통제 지휘 하기 좋은 사람이 되겠냐? 당연히 사무실이 커야 들어와서 일을 많이 할거 아녀? 사무실 크니까 치워내는 데 그만큼 더 욱 보겠지?

영성정보가 서구사회 위주로 수십년 먼저 퍼진 건 동서양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의도된거야. 혼체의 설계라는 게 그 정도로 차이가 커! 계속 비슷한 말 반복하고 있는데 그만큼 중요하니까 식상해도 예쁘게 봐주면 고맙겠다.

다음 글에선 영적 에고 육성을 영영 경계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19.바디스캔 해보자 -(1)

이 글에선 파동체를 자기 의식의 영역 안에서 잘 감독해서 영적 에고를 경계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부를 이름이 마땅치 않아 강 바디스캔이라고 부를게. 견성 후 추가되는 수행법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아.

딱히 어디서 받은 수행법은 아니고 강 기혈이 열려가면서 내가 몸으로 자연스럽게 하게 되던 건데 쓸만할거야 뭘 일부러 노력하지 않아도 한풀이를 많이 하고 나면, 몸에서 느껴지는 에너지가 청명해지고 가벼워져서, 몸 일부만 드문드문 뭉쳐있는 에너지만 느껴지게 되는데, 평소에도 몸이 안느껴지다가(무게가 아예 안느껴짐), 감정이 올라왔을 때만 몸 특정 구역에서 에너지가 느껴지게 돼. 보통은 견성 이후에 좀 더 많이 감정청산을

하고 나면 이렇게 되는데, 수행자라면 필수적으로 이 단계를 성취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눈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때 휩쓸리지 않으려면 몸으로 에너지를 느껴야 하거든 예를 들어 뱃속에서 뭉친 에너지가 확 올라오는게 느껴지면서 내 눈 앞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으면 그게 이 감정덩어리가 투사해내서 이런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잘 봐야겠구나 하고 휘둘리지 않는데, 어떤 사건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데도 그 원인이 안보이면 즉 몸에서 아무것도 못느끼면, 자기가 투사하고 있다는 걸 인지 못해서 감정에 휩쓸려서 버럭! 해버린단 말이지.

그리고 죄책감 느끼면서 나중에서야 용서하고 이런일이 반복되고, 몸의 감각 개발이 잘 안되면 직관이나 축도 개발이 잘 안되기 때문에 부정직한 영성지도자에게 속기도 하고 그래.

이 단계를 만들기까지는 울분을 많이 털어내야 가능하고, 자동으로 파동을 몸에서 인지해내서 버리는 건 사실상 백회가 열리고 나서야 가능하지만, 여기에 기존에 수행 하시다가 온 내공있는 분들도 계시고, 견성한분들도 좀 있고, 파동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

몸으로 열심히 하고계신 분들도 많으니 의도적으로 해보자.

방식과 순서는 다음과 같아.

1. 힘빼기, 심호흡하기, 몸의 외부 느끼기
2. 몸속 감각 느끼기
3. 파동 제거하기
4. 일상생활에서 이 상태 유지

1. 힘빼기, 심호흡하기, 몸의 외부 느끼기

누워서 힘빼고 몸에 집중하는 거 어디 책에서 본사람들 있지? 별다른 방법은 아니고 일단 조용한데 혼자있는데서 편하게 누워봐 그담에 힘을 빼는데 몸의 부위별로 하나하나 근육의 긴장을 풀어봐 힘을 막상 빼보면, 생각보다 내 몸이 긴장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어.

힘을 뺐다면 심호흡 하면서 거기서 힘을 더 빼봐. 더더더 더 힘을 빼봐. 놓으면 웬지 안될 것 같은 기분이 들 수도 있어. 땅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에 두려움도 올라올 수 있는데 그럴 땐 숨 쉰 다음에 내쉬면서 확 놓아봐!

물리적으로 힘을 빼고 나서도 정신적으로 몸에 집착하고 있는 에너지가 있어 그걸 놓아버리는 거야. 이때 사람에 따라서 근육이나 팔다리가 움찔거리거나 제멋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 뇌에 파동이 운동신경과 연관된 곳에 많이 얽혀있는 경우지. 상관없으니 움직여도 그냥 내버려둬. 의식이 파동을 인지하면서 그걸 올려서 기혈을 통해 내보내는거니까 수행되고 있는거야.

이젠 신체일부를 하나하나 따로따로 의식을 집중해 봐.

예를 들면 왼손부터 시작하면 왼손 엄지손가락이 어떤 느낌인지 느껴보기, 집게손가락, 중지, 손등, 손바닥, 팔뚝, 팔꿈치.. 이런식으로 하나하나 부위별로 느껴보는 거야. 아주 세밀하게 부분부분별로 다 느껴봐봐 어떤 느낌인지?

간질간질할 수도 있고 몸이 좀 살아나는 느낌이 있을거야. 이거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쓰지는 않을게! 시간은 자기가 좋은대로 하면 돼. 몸을 쪽 돌아가면서 느끼는 걸 하면 되는데, 이런 걸 안해 본 사람은 시간도 좀 걸릴거고 하다보면 단잠에 빠지기도 할거야. 피곤했다면 저항하지 말고 그냥 자도 돼 ㅋㅋㅋ 힐링될거야.

이거에 익숙해질 때까지 이것만 해! 딱 정해진 기간은 없는데 의식을 집중하면 바로 신체일부가 확 느껴질정도면 돼. 예를들면 새끼발톱, 하면 바로 그부분이 빛 들어온 것 마냥 확 느껴지면 돼! 몸에 힘 빼는건 평소 일상생활 할때도 늘 의식적으로 긴장, 힘을 빼려고 노력해봐!

2. 몸속 감각 느끼기

이제 몸 속에서 전기신호같은 생명력이 느껴지는지 가만히 느껴봐봐. 엄밀히 말하면 생명력이라는 것은 느낄 수가 없는 거고, 생명력이 지나갈 때 파동이 흔들리는 걸 느끼는거야. 그래서 흔들흔들 찌릿찌릿한 감각을 주로 느끼게 돼. 처음엔 찌릿찌릿 혈류를 타고 흐르는 피가 느껴지는거처럼 느껴질거야.

그담엔 온몸에서 스멀스멀 찌릿찌릿 전기신호가 미약하게 느껴지기
시작할거야.

심장 뛰는 게 느껴지는지 느껴봐. 심장 뛸때마다 에너지가 등 등 등 하면서
요동치는걸 느껴봐. 감각이 기민해지면 심장 뛰는 소리도 들리고 혈관을 타고
피가 도는 소리와 느낌이 다 느껴지고 각 장기가 몸 안에 어디 있는지
따로따로 위치와 느낌을 다 알 수가 있어.

특정 장기가 유난히 무겁고 답답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어.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나같은 경우는 간에 철사가 박혀있는 걸로 보이고 느껴졌었어.
원한이 그렇게 심상화 되는거지. 그런 경우는 다음의 감정을 나중에
감정버리기 할때 좀 더 유의해서 많이 풀어내면 돼!

뇌 - 생각, 의견, 판단, 분별, 고민

심장 - 놀람, 사고, 충격, 배신감

폐 - 슬픔, 상실감, 정서적 관계에 대한 집착

신장 - 두려움, 왜소함, 피해의식

간, 췌장, 십이지장등 - 분노, 가해의식, 살의

위 - 박탈감, 돈, 지위, 식탐 등 물질에 대한 집착

소장, 대장 - 불안감, 혼자이고 아무도 안 도와줄것 같은 느낌

자궁, 난소, 방광, 전립선 - 수치심, 성적 가해및 피해, 몸에 대한 동일시, 애착

몸의 밖을 느꼈던 것처럼 이제는 몸 안을 하나하나 느껴보는거야! 이것도 딱 정해진 시간같은 건 없어! 신장이면 신장 이렇게 바로 느껴질때까지 하면 돼. 하다보면 뇌 속도 느껴지고 안구 안쪽 코 속 잇몸 안쪽 손톱발톱 안쪽 등등 못느끼는데 없이 기민하게 다 느껴질거야!

Chapter3. 그리스도의식, 성령의 마음

20.실전! 권위문제 청산해보자

제 글은 계속 읽던 분이 읽으셔야지, 잘 모르시는 분이 읽으면 제대로 미친놈처럼 보일테니 제발 처음 보시는 분은 예전 글들부터 이왕이면 아주 초기 글부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1일에 뭘 지구 에너지 블라블라 디엔에이 액티베이션 블라블라 있다고 했잖아요? 어제 낮에 대단히 억누르는 에너지였고요 어제새벽부터 권위문제를 올려주는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께이 시끄러웠던것도 그런 이유였고요 좀 늦게 알았네요 설마 권위문제가 올라올줄은...

여기 계신분들 댓글들도 보니까 이런 신과 대적하는 예고가 올라와 있어서 같이 풀어 봅시다. 권위 문제가 이렇게 떼로 올라오다니 이번 에너지 정말 강력한가보네요 ㅋㅋ 권위 문제는 일상생활에서는 옳고 그름 따지기, 인정받으려 하기, 남을 짓밟고 나를 올리기로 나타납니다. 더 큰 걸로는

인생에서 겪는 배신, 뜻하지 않은 사건사고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저께하고 어제 일상 주변에서 옳고 그름 따지는 일이 좀 있으셨을 법 합니다.

전에 알려드린 우월감 열등감 청산 글대로 연산군 빙의해서 우월감 끌어올려서 먼저 풀어주실건데 일단 성령의 감독하에 한다고 성령에게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하는거 아시죠?

내가 옳아! 너는 틀렸어! 내가 우월해! 너는 비천해! 넌 비천하니까 죽어야 해! 하는 식으로 풀면됩니다 기억나시죠? 잘 모르시겠으면 지난 글 중 열등감과 교착상태 관련 글을 봐주세요.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mystery&no=1840732&search_pos=-1758626&s_type=search_name&s_keyword=dada&page=1

그담에 직접적으로 신을 인용할건데 아래와 같이 비슷하게 응용하여 푸시면 됩니다. 권위문제는 우월감 열등감으로도 느껴지지만 그 뿌리는 신에 대한 공격입니다. 반복하다보면 배신감이 올라옵니다, 배신감도 권위문제에서 파생된거예요. 아래 멘트 중에서도 본인이 유독 감정이 느껴지는 문장을 수없이 반복하다보면 분노 터집니다.

화풀이 마구 하시고 자기 인생이 서러워서 눈물 터질 때까지 풀어주시고 가슴이 좀 후련해지면 성령에게 이것이 원래 없었고 원래부터 나는 죄가 없었다는걸 보게 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지금도 하나님의 품속에 있으며 결코 다친적이 없는 존재이며 모든 아픔과 상처는 착각이었으며 죄라는 원인이 없기에 죄가 있다는 믿음으로 구성된 결과도 없다는걸 보게 해달라고 하시고

죄라는 믿음으로 구성된 본인의 세상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것을 마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 어려우시면, 그저 내가 알고있는 하나님이 아닌, 진짜 하나님은 오직 나를 사랑하고 내가 행복하길 원하신다는 걸 알게 해달라고 성령이나 그리스도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멘트 나갑니다.

내가 옳다! 내가 신이다! 나야 나! 내가 나를 만들었다! 누가 감히 아니라고 하냐? 누구냐? 잡아 죽이겠다!

나다 바로 나야! 내가 신이다 내가 세상을 만들었다! 누가 나한테 항거하느냐? 누구냐? 다 잡아 죽이겠다!

나란 말이야 내가 옳다고! 내가 신이라고! 내가 절대자야! 내 말은 절대적이다 다 내말 들어라!

내가 날 만들었어! 누구야 누가 감히 내게 맞서는거야?

누구냐? 니가 신이라고? 니가 감히 신이라는거냐?

니가 나한테 뭘 해줬다고? 니가 나한테 뭘 해줬다고 신이라는거야? 니가 내가 힘들때 뭘 했어?

넌 팔짱끼고 보고만 있었잖아! 넌 아무것도 안했어! 날 안 도와 줬잖아! 아무도 나를 안도와줬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가 얼마나 아팠는데! 아무도 나를 안도와줬어! 난 혼자였어!

모두 날 버렸어! 너도 날 버렸어! 니가 신이라면 어떻게 날 버릴수가 있었지? 말해봐 어떻게 그럴수가 있었어?

너 따위는 신이 아니야! 난 모든 노력을 다했는데 넌 나를 버리고 비웃었어! 넌 나를 배신했어!

이 배신자! 넌 신이 아니야! 넌 죽어야 해! 너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건 다 너 때문이야!

네 잘못이야 네가 죽어야 해! 죽일거다! 난 신을 죽이겠다! 난 아무 잘못없어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죄인이야!

하하하하!! 꿀종다 넌 죽어버려야 해! 무참하게 죽이겠다!

가능하면 웃는모습까지 찾아보시지요. 무의식의 끝에는 죽이는것을 즐기면서 웃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 마음은 <마음의 일부가 착각으로 인해 왜곡되었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에고가 따로 있어서 에고가 내게 이런말을 하고 내가 개를 쳐다보고 있는게 아니라, 내가 두려움으로 정신이 좀 나가버렸는데, 내가 가진 믿음이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고는 실체가 아니라 환상입니다. 알고보면 그저 내가 좀(많이ㅋㅋㅋ) 잘못 생각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를 무서워하거나 무시무시한 힘이 있다고 착각하지는 마세요. 무서워하거나 꺼리면 실재화시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장난감 칼 들고 나한테 이압, 이압, 하고 있다고 내가 찢려 죽지는 않겠죠? 나의 실체는 다칠 수 없는 그리스도의식입니다.

그담에 기적수업 합본 텍스트 47쪽부터 <심판과 권위 문제> 장을 보겠습니다. 일부만 옮길텐데, 되도록 전체 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48쪽에 판단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 많습니다.

권위의 쟁점은 사실 누가 창시했는가의 문제다. 네가 권위 문제를 겪을 때는 언제나 너를 너 자신의 창시자로 믿으며 그러한 너의 망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투사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너는 말 그대로 누가 너를 창시했는가를 놓고 다른 사람들이 너와 싸우고 있는 상황에 처해있다고 지각한다.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권능을 찬탈했다고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범하는 근본적인 오류다.

전체 세상을 투사해낸 일그러진 마음은 누가 자기를 만들었는지 기억이 안나서 자기가 자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여기에서 마음이 분리되어 몸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보는 착각까지 하면, 내가 날 만들었다는 건 남들도 다 자기들이 자기들을 만든꼴이 되잖아요?

자신이 내세우는 자신의 권능을 빼앗길까봐 보이는 모든것을 적으로 삼습니다. 진짜 신과 세상을 투사한 나와와 경쟁구도가 성립될 뿐 아니라 각 개별체끼리도 무한 경쟁구도가 성립되지요. 이제 세상엔 적 밖에 없습니다.

실생활에서는 나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아니라 내 의견, 내 주장, 내 감정, 내 논리를 나 자신 대신 내세웁니다. 즉 내 의견 내 주장 내 생각 등등을 내가 만든 것이기에 옳고 정당하다 너는 무조건 내 말을 들어야 한다는 식이 됩니다.

자신의 주장이 좀 말이 안된다는걸 무의식 중에 알고 있고 스스로를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내 말을 안 들을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서 과격하게 주장하게 되고 상대가 나의 권위를 인정하게 만들기 위해 온갖 억지 주장과 논리를 관철하지만 결국 독재자와 같은 오만함입니다.

너는 누가 너의 진정한 창시자인지 확신하지 못해, 누가 너를 창시했는지 모른다고 믿는다.

그리하여 너는 네가 너 자신을 창조했다고 믿는 것이 그럴듯하다고 여긴다. 너는 누가 창시자인지를 논쟁하기에 너의 마음은 확신하지 못하며, 네가 진정으로 존재하는지조차 의심할 지경에 이르렀다.

하나님이 창시하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네 평화의 근거를 자신에게 부인하는 것이고, 따라서 너는 오직 조각들로 나누어진 자신을 보게 된다. 이 기이한 지각이 바로 권위 문제다.

신이 나를 만들었다 라는 진실을 가짜 신을 내세워 부인하게 되다보니, 내 생각 내 의견 내 주장 내 감정 내 논리 등등을 내가 만든 가짜 신으로 나 대신 내세우게 되는거라서 자기 의견, 생각을 자기 것으로 소중히 여기고 싶은 집착, 옳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집착이 많이 올라오실겁니다.

따라서 이 내꺼라는 집착을 놓아야 가짜 신 내려놓는거라서 진짜 신을 만나게 됩니다. 이번에 에너지로 열어주는게 썩서 많이 올라붙어 있어서 제대로 밀어부쳐서 바닥까지 푸시는 분은 견성 하실수 있을겁니다.

분노뿐 아니라 버림받은 비참함과 배신감도 많이 풀어주세요. 매번 이 집착이 올라올 때마다 성령에게 놓아주세요. 20초 지나면 또 아까 하고 있던 그 생각 다시 떠올라 자기도 모르게 그 생각에 빠져있을겁니다. 요번에 에너지가 스토커처럼 대단히 집요한 예고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계속 계속 같은 게 생각날 거예요. 계속 계속 성령에게 놓아주세요. 성령에게 놓아주면서 이렇게 말하세요.

저는 옳은 것이 아니라 행복한 것이 좋습니다. 이 생각을 성령께 드립니다.

이것을 보고 제가 아닌 성령께서 판단해주세요. 저는 흥가분하고 행복해지겠습니다.

그래도 1분 지나면 아까 하던 그 생각 또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매 발톱 빠는거 기억나시죠? 집착에서 발톱 뺀다고 상상하시고 어깨 힘 빼고 성령에게 놓아주고 집착의 그림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걸 마음의 눈으로 보세요.

21. 아무것도 해야 할 것이 없다

자각몽 꺾본 분 아실 거 같은데 꿈인 거를 자각했을 때 흥분하지 말고 초연함 유지하는 동안만 그게 꿈인 걸 알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창조하는 게 지속이 되고, 이때는 날아다니거나 순간이동 하거나 눈앞에 배경이나 건물같은거 맘대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 자기가 만든거에 신나거나 무서워서 감정적 동요가 있게 되면 꿈인거를 잊게 되거든요. 꿈은 지속되지만, 꿈이라는 인식이 사라지고 진짜인 줄 믿으니 창조력도 사라지는 거죠. 여기도 똑같이 그런 꿈속이지요, 자기가 있다고 믿는 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게 있기를 바래서 있다고 믿는 거지요. 믿음은 마음 차원에서는 원동력, 포스같은 거입니다.

꿈 속인거를 무의식 바닥까지 다 믿을 수 있으면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고 죽은 자도 살리는 게 가능한 거겠죠? 근데 이렇게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이기적이라며 저항감을 가지는데, 그건 에고 마음이 보는 관점이고, 이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는 것은 형태가 아닌 마음을 지각했을 때의 마음의 행복한 깨우침을 글로 나타낸 거라서, 몸은 바쁘게 움직이고 여러가지 일을 하지만 마음은 집착이 없이 청명하다 랑 같은 개념이에요.

마음이 자신이 사랑인 것을 믿기 시작하면, 사랑의 기능은 확장하는 것이어서 점점 더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 방식이 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달라요.

누군가를 사랑으로=마음으로 바라보면,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투 같은 형태보다는, 그의 형상을 만들어낸 배경이 되는 생명, 마음이 그가 될 수 있는 최고의 이상으로서 품고 있는 찬란한 아름다움이 보입니다. 그 아름다움에 생명을 준 것은 바로 나 이거든요, 그걸 감상하며 말없이 흐뭇하고 행복해지면, 꿈꾸는 존재가 우리 모두를 만든 공통 존재이기에, 내 마음이 그 이상을 인식해주는 것은 곧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이상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라서 그에게도 도움이 되는 거지요.

이게 기적수업에서 말하는 형제를 용서하는 것인데, 용서하는 기능을 가진 사랑의 마음은 획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내 것이라 내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이 왜곡되어서 그것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믿기 때문에, 용서하려고 애쓰는 것은 사실, 용서 못한다 라는 믿음으로서 형제의 형상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지요.

그 믿음이라는 동력을 자기가 알고 의식적으로 쓰든, 모르고 무의식적으로 쓰든, 어쨌든 믿음은 자기 기능대로 지시하는 형태를 그려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용서할 수 없다 라는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마음 차원에서 깨닫고 그걸 버리면, 형제를 볼 때 애써 용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용서한 마음 안에서 그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전엔 용서할 수 없던 짓을 하는 걸로 보이던 형제가 용서할 만 하게, 혹은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거지요.

마음속에 품은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너의 기능이라고 기적수업에 나오지요. 자신과 인연이 있고 마음속에 한번이라도 인식한 모든 사람은 시공간이 환상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나의 개별 마음과 함께 겹쳐 있습니다. 나나 그 사람들이나 아무 차이가 없이 통째로 하나인데 내가 내 몸만 내

꺼라고 하면서 그거만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또한 나와 인연 있는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는 내가 모르는 사람도 있겠죠? 결국 나 하나가 있는 자리가 모두를 담고 있는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걸 내 일이다, 내가 가진 감정이다 라고 생각하며 해제하고 있는 그 원망은, 사실은 나 뿐 아니라 모든 것을 그려낸 마음의 왜곡을 치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치유하는 그만큼 내가 치유된다 라고 하는 거지요. 그 사람들의 그림은 또 다른 사람들의 그림과 겹쳐 있겠죠? 작은 그림은 더 큰 그림과 겹쳐 있을 거고요. 내 마음이 만든 모든 것을 한번에 바꾸고 있는거라서 세상을 통째로 바꾸는 거지요. 이것을 기적수업에서는 실재 세계에서는 창조가 너의 기능이라면 이 세상에서는 치유가 너의 기능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창조한다고 믿는 세상의 형상은 실재 세계에서는 존재하지도 않는 환영이기에, 사랑의 확장이 이 세상 속에서는 창조 아닌 치유가 되는 것이지요. 사랑을 확장하면 왜곡된 믿음이 해제되는 것이지 뭘 새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정말 아무것도 안하고 형제가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데 나는 그냥 용서만 하면 되냐고요? 네 그러면 되지요. 형제를 용서하고 도움이 필요한 부족한 모습으로 보려는 내 마음의 집착도 성령에게 용서 받으면 되지요. 그런데 용서하는 마음속에서 그를 볼 때는 내가 성령과 접속 되어 있는 것인데, 이때 성령이 나에게 실제적으로 무엇 무엇을 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용서를 한 후 성령에게 내가 해야 할 일이 더 있는지 '항상' 물어보라고 우사에서도 그러거든요.

누군가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도록 지시(부탁)를 하는 경우 이 성령은 그 사람의 미래 자아인 경우가 많아요. 그 사람이 자신의 미래 자아의 메시지를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 내가 중재해주기를 바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나 나나 마음 안에서 하나이고 그의 미래 자아이든 나의 미래 자아이든 마음 안에서 하나이기에 결국 그것은 한마음의 목소리이지요. 이것이 무슨 영매처럼 목소리나 존재같은 게 느껴지는 그런 게 아니고요, 마음 안에서 그 사람이 이루어야 할 이상이 찬란하게 아름답게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호소력을 가지고 거듭 거듭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애착으로 누구를 도우려고 할 때는, 그 사람이 부족해 보이고 그 부족함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도와주어도 부족함이라는 그림에 부족함을 덧붙이게 되는 결과가 되어 버리지만, 하나님 마음 안에서 누구를 도우려고 하면, 그의 찬란함에 나의 찬란함을 덧붙여주고 싶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면 비슷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재미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하고 다른 방식으로 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전혀 뜬금없거나 상관없는 일을 뜬금없는 방식으로 시킬때가 있는데, 하라고 하는대로 해보면 결과적으로는 잘되게 된답니다. 또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뭘 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중에 결과가 나오고서야 아 이래서 그거 하라고 시켰구나 하게 되는거지요. 우리가 그냥 어찌다가 그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 신의 한 수였네? 라고 하잖아요? 이 '그냥'이 성령의 지시인 경우가 많답니다. 이거 해야돼! 안하면 안돼! 하는 마음은 집착, 파동 마음이고 성령의 지시는 자연스럽고 그냥스럽거든요.

이걸 에너지 차원에서 말해보면, 사람이 집착이라는 거친 에너지에만 익숙해져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냥스러운 에너지는 잘 느껴지지 않는거예요. 큰 소리만 듣다보니 청력이 손실된 사람에게는 작은 소리가 안 들릴 거 아니겠어요? 거친 에너지인 집착, 원망을 자꾸 버리면 내 마음의 인식자가 점점 더 섬세한 메시지를 캐치하게 된답니다.

처음에는 직관의 목소리, 촉 같은 느낌으로 작게 오는데, 하라는 대로 계속 해야 점점 그 지시가 정확해지고 지시 내려주는 존재도 점점 더 큰 존재가 됩니다. 나중에는 모든 걸 알아서 배정해주는 느낌이라 고민이 없게 된답니다. 성령이 네가 가는 길에서 돌멩이 하나 없도록 평탄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이거랑 비슷하게 ㅋㅋ 정확한 문구는 기억안나요) 기적수업에서도 말하지요. 갈등이 있는 경우는 성령의 마음에 접속하지 않고 내 욕심대로 행동했을 때 갈등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몇 번 된통 당해보면 역시 하라는 대로 해야 하는구나 하게 되지요.

성령은 자신의 미래 자아이기 때문에 사실 성령의 마음이 내 마음입니다. 무슨 상명하복 관계도 아니고요. 시공간이라는 환상으로 인해 미래의 나와 지금의 내가 분리되어있는 것처럼 느끼기에 성령의 목소리가 내가 아닌 다른 존재에게서 오는 것처럼 느끼는 건데, 내가 내게 좋은 것을 따르기 싫고 내가 내게 좋은 것 해주기 싫은 마음을 버리는 것이 수행이지요. 그 마음을 버리다 보면 성령이 곧 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 성령과 나와의 격차가 허물어진답니다.

격차가 허물어지면 내가 곧 성령이 되는거지요. 그러면 나의 행동에 갈등이 없게 됩니다. 내 행동을 판단 비교 분석 비난할 존재가 내 안에 없게 되는 되지요. 결과 속이 일치됩니다. 이제 내 행동이 성령의 행동이므로 더 이상 외부에서 지시가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상을

마음속에 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성령이 원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물론 이것이 한번에 싹 되는 경우는 드물고 보통은 조금씩 조금씩 성령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식을 회복한 이후에도 본래 가진 능력을 다 쓰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게 되지요.

22.그리스도의식의 각성상태-(1)

2편 써야 되는 글들은 남겨두고 ㅋㅋㅋ 잠시 다른 얘길 해볼게요

제가 처음 영적 자각 했을때나, 신성을 회복했을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구체적으로 그닥 이야기 한적이 없잖아요. 말로 설명할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괜히 어떤 상태에 집착이나 비교 분석하게 될까봐 이야기 한적이 없는데 제가 글을 쓰면서 가짜 라는 단어를 본격 수행글 첫화부터 (구도자를 위한 수행후기와 수행법 정리해줌) 많이 썼잖아요.

어차피 알려줄거면 팩폭으로 딱딱 깨는편이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한건데 몇년전부터 우주가 홀로그램이니 이게 다 게임이니 이런증명들이 과학이나 철학계에서 퍼져 있어서 상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양자역학이 나온 후부터 이미 세상은 진짜가 아니게 되어버렸구요 사실 꽤 오래된건데 그래도 가짜 라는 단어는 파격적이었나봅니다. 이후 계속 가짜라는 단어를 언급하며 어렵다 느끼는 분들이 많은걸 보면..

그래도 사실 속임수 라는 단어가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짜 라는 단어는 저에게는 진실 전달의 마지노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다 가짜라는데 안심이 안되고 슬프고 허망하고 혼란스럽기만 한 분은, 아직 진실이 좀 부담스러우신 건데, 그거도 아무 문제 없지요!

사람마다 삶의 궤적이 다 다르잖아요. 인생이 행복할수록 가짜라는 말에 저항감을 가질수밖에 없는 거 같아요. 행복한 인생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또 그 안에서도 많이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차피 최종 목적지는 다 똑같은데요. 행복한 인생에서 사랑을 많이 주고 마음을 열고 소통하고 가슴으로 사랑하는 연습을 하면 되는 거 아닐까 싶어요. 행복한 만큼 사랑 줄 대상도 더 많으니 더 빠를 수도 있고요.

영적 자각을 하기 전에는 조금도 신성의 지혜가 들어올 틈이 없고 모든 의견 판단 비교 모든 생각 감정이 다 에고에서 온거라고 했던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가짜 라는 말을 하니 에고가 위협을 많이 느끼고 완전히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건데요. 이게 다 가짜라고? 하고 혼란을 느끼기보다, 그럼 뭐가 진짜지? 하고 마음에 질문을 해보세요 살면서 느꼈던 누군가의 소중한 마음, 작은 친절, 작은 감동, 행복했던 추억들이 떠오르겠죠.

아 나의 가슴을 울리는 것이 진짜구나.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구나. 진짜를 따라 살자. 하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가짜라는거 잘 모르겠고 어려우면 그런거 신경 안쓰셔도 되요. 어차피 거기에 신경쓰는 놈이 에고니까요.

그저 가슴으로 사랑하는 것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잘 안되면 그저 조금 더 행복해지려고 해보세요. 예고의 핵심인 죄책감은 나를 행복하게 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가 행복해지는 방법을 찾아보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니고 그런것도 다 수행하는 거예요. 자기자신을 사랑하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남만 사랑하고 용서하지 말고요.

가짜라고 꺼리는 마음이 있지만 사실 그리스도의식에는 가짜라서 허망한 감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예고와 신성이 서로 보는 가짜 라는 것이 얼마나 다른가에 대해 이야기 하려고 이런식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신의식, 그리스도의식을 각성한 초기에 세상이 어때 보이는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걸 백회가 열린 후에 신의식이 들어선 초기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도 곧 겪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에너지가 역대급이고 백회 열어주는 에너지예요.

2,30년이면 지구에는 다 백회 열고 그리스도의식 각성한 사람만 살게 될거예요. 지금 댓글들에서 여러분들이 드물지 않게 겪는 정수리 관련 체험은 옛날같으면 평생 수행해도 택도 없는 그런 체험입니다.

감정 푸는 수행법이 강력하긴 하지만 원래는 저항이 심해서 그런 경험이 그렇게 빨리 오기가 힘듭니다. 제가 한달만에 백회 열었다는 거는 그 3년 전에 영적 자각을 크게 했고 그 후 3년 매우 열심히 마음 보다가 간거여서 거기서도 독보적인 거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 수행을 시작해서 백회가 열리려면 6개월~2년쯤 걸렸어요.

우리가 한꺼번에 깨어나기로 약속을 했고 그 시기가 왔기에 그런 경험들을 자연스럽게 하고 계신 건데요.

여러분들은 제가 겪었던 것처럼 흰뱀이 하복부에서부터 척추 타고
쿠아악~~~ 과과과과과과 딱!!! 정수리에 구멍 뿜!! 마!! 이게바로 쿤달리니
아이가!! 가슴에서 활화산처럼 에너지 과과과과과 몸속 쓸면서 기혈 경락
마!! 다 태워버리!! 드래곤볼 에네르기파 파이어~~ 손발에서 장풍나가고
잘때 몸밖으로 에너지구체 분리되서 확 퍼지고 의식밖에 없고

그런거 하기 전에 영적 자각도 저같이 드디어 미쳐버렸구나 이렇게
아름다울수가 내가 녹아 사라지고 언어도 사라지고 시간도 사라지고
슬로우모션 흑백에서 4D전환 저 멀리 깨알같은 사람 보면 그사람 화장품
냄새도 맡아지고 뭐에 의식 집중하면 그게 되어버리고

너무 아름답고 내가 왜 태어났는지 알게 되어서 길에 서서 눈물콧물 줄줄
그런식으로 마!! 이기 바로 영성 체험 아이가!!! 할 정도로 임팩트있게 올
수가 없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 그걸 아니까 제가 그런 체험 자세히
얘기할 이유도 없었던거예요. 물론 말로 표현이 안되기도 하지만 남의 체험
자세히 들으면 괜히 자기 체험하고 비교나 하게 되니까요.

체험이 크다고 자각이 큰것이 아닙니다 에너지 밀도차이, 파동체 구성차이에
따라 다른거거든요. 제가 하도 예고가 오만하고 가진 경험도 어려서부터
폭력적인 걸 투사해낸 썬 파동이 밀집되어 있어서 신성하고 너무 차이가
크니까 그런 격한 체험을 한거예요 정상적인 가정 가지신 다른분들은 그렇게
썬게 안왔어요.

하하 그리고 저런 임팩트있는 체험은 저같이 맨땅에 헤딩한 사람이나 겪을 자격이 있는게 공평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체험이 살짝 사랑스럽게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올거랍니다.

지금은 지구에서 몸 밖의 에너지 밀도와 몸 에너지체의 밀도가 많이 비슷해져 있기 때문이지요. 한뼉한 에너지를 푸는 것이 아니라서 수행이 쉽고 성령이 포화상태일 정도로 외부적인 도움도 많고요. 댓글들 보다 보면 영적 자각 이미 했는데 본인은 그런 줄을 모르고 있는 경우들도 종종 보여요.

제가 탄소리가 참 많죠? 근데 탄소리도 나름 재미있죠? 저의 매력포인트죠 후후 그럼 그리스도의식 상태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이건 백회 열리는 쿤달리니 각성하고는 별개로 신의식이 따로 옵니다. 대체로 백회 열고 곧바로, 아님 하루 안에 옵니다. 이 상태에서는 나 라든가 남 이라든가 사람 이라든가 세상 이라든가 이런것이 없습니다. 오직 신 만 있어요.

이게 참 말로 표현 할수가 없는데요 진짜로 오직 신 만 있어요.

신 이 있다.. 그런데 신이 무엇인지는 말로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입을 다물게 됩니다. 신이 유일하게 실재하는 리얼리티예요.

그리고 내가 신인것을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이게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워서 내가 날 신이라고 여기지 못하고 살았던 시절이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로 확실해요. 전혀 인간적인 느낌이나 오만함이나 자의식이 없고 오직 신성의 자각만 있습니다.

내가 개별 신 이런느낌이 아니고요 인격적 요인이 전혀 없고, 오직 신 만이 모든 존재하는 것이니 나 역시 당연히 신 인 그런 것이죠. 존재하는 모든 것이 신 이고 보이는 모든 것이 신 이고요. 허상속에서 이게 진짜다 라고 억지로 납득시키며 살았지만 그 모두가 허상이었고 이것만이 유일한 실재이다 라는 느낌입니다.

살면서 이제 진짜다, 실재다 라고 느낄때가 있잖아요? 이를테면 만년 직장인이 자기의 꿈인 매장을 차렸다는가 자기가 다년간 노력한 것이 상을 타거나 보상으로 돌아왔다는가 어떤 보람을 느껴서 굳건한 실재같은 느낌 받는 거 그런거랑 비교할 수 없이 탄탄하고 굳건한 절대적인 리얼리티입니다.

즉 그전까지는 진짜 삶을 살은 것이 아니었던 것이 너무 당연해 지는 거예요.

이제부터 진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신의 눈은 신의 세상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신의 마음은 신의 마음만을 느끼게 되고요. 그래서 세상이 전혀 가짜로 안 보여요. 전부 신 이라는 실재성으로 보여요. 전혀 허망하고 이런거 없어요.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고 가슴뿌듯한 것들만 있어요 사람 포함해서 모든것이.

다만 형태가 전부 그림, 영상, 가짜 라는 자각이 확실해요 내 몸과 내 주변환경 다 포함이요. 내가 신이니까 개별 사람들이 다 하나하나 신이다 이게 아니에요. 신 이라는 추상적 실체가 존재하고, 나머지는 모두 존재하지 않아요. 개별체 라는 것이 없어요.

이게 참 말로 표현하면 뭔가 별거같은데 여러분들이 겪어 보시면 이게 원래 인간이 가져야 할 상태이구나 이게 자연스러운 거구나 하고 알게 된답니다 처음에는 미치도록 행복하고 신기하죠. 기쁨으로 폭발하는 거 같다고 했잖아요?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단어가 없어요.

살면서 몸으로 느끼는 최고의 행복이 오르가즘이라고 하면 그거보다 죽히 천배는 될 것 같아요. 너무 기뻐서 몸이 견디지 못하고 사방으로 터져 버리는 느낌입니다. 이때 몸변화도 쿤달리니 각성보다 훨씬 큰 에너지의 대량 외부분출이 일어난답니다.

신의 의식에 적합하지 않은 저질 에너지들이 쫓겨나면서 줄줄이 기혈을 통해 빠져나가는거죠. 이 신성의 회복 또한 체험의 크기가 사람마다 다르듯 임팩트가 사람마다 다릅니다.

23.그리스도의식의 각성상태-(2)

근데 그런 의식상태도 시간 지나면서 익숙해집니다.이런 의식 상태 뭐 엄청 대단한 거 같잖아요? 저는 뭐 쿤달리니 각성 백회 오픈 이런거를 대단한 경지 및 신화로 만들어놓은 각종 경전이나 영성스승들 만나면 먹살 잡고 싶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설명도 못하는 주제에 뭘 그렇게 대단하고 희한한 걸로 만들어놨는지 이런 상태는 우리 모두의 당연한 권리이고요, 누구나 누려야 할, 인간의 몸이 만들어졌을때 이렇게 살도록 되어 있는 원래 상태입니다.

원래 인간은 숨을 좁은 호흡관으로만 쉬는게 아니라 온 몸통 가로폭도 통째로, 발끝까지 세로로도 통째로 쉬게 되어 있어요. 원래 인간은 신계로부터 신성의 빛을 정수리로 받아서 그걸 동력으로 삼게 만들어져 있어요.

원래 인간은 마음으로 마음을 전하고 마음을 느끼고 한마음이 되어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원래 인간은 그렇게 음식을 많이 먹지 않아도 되고, 늙지도 않고, 스태미나 집중력이 무한에 가까운 존재예요. 원래 인간 몸체는 이기심이 올라오면 바로 알아차리고 그 일그러진 마음 파동을 분리해서 몸밖으로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에 적잖은 깨달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 하는 소리가 다르고 경지가 달라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말이죠 저 신성회복의 상태는요 대단한 의식상태가 아닙니다. 그저 말 그대로 잃었던 걸 다시 찾았을 뿐 혹은 처음으로 신성임을 알게 된 초기의 상태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부족한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바로 연민, 대자대비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신성회복에서 한참이나 더 훨씬 더 훨씬 더 오랫동안 마음을 닦아야 제대로 구현이 됩니다. 그냥 좀 연민 대자대비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가슴에서 그것을 커다란 우산 펼치듯이 사랑을 펼쳐서 의식적으로 쓰게 됩니다.

신성회복 막 한건, 자기가 사랑인 것을 알기는 알았지만 그걸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운전 면허 따면 바로 트랙 레이스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한참 도로에서 빌빌거릴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면허증 소지자이긴 하죠!

그런데 운전 열심히 매일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신경 안쓰고 면허증 처박고 장롱면허로 지낼수도 있잖아요? 장롱면허라고 누가 내 면허상태 없애버리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딱히 사고 치기 전까진 난 운전자라는 자격은 있잖아요.

저 의식상태가 본인에게는 너무 크게 오기 때문에 특히 쿤달리니 각성이 매우 임팩트가 크기 때문에 많이들 오만해지게 됩니다. 신의식과 함께 어마어마한 자신감도 함께 오거든요 신인걸 알았으니 얼마나 그 자신감이 대단하겠나요?

유지 크리슈나무르티 같은 사람이 이 체험 하면서 지독하게 아팠던 이유는 감정을 버리지 못하고 상위 차크라만 지성및 인식을 통해 개방했기 때문에 억지로 차크라가 다 열리면서 그런 극단적인 고통을 겪은 것이고요 (파동은 전기신호이고 저질 파동일수록 기혈을 통해 나갈때 따갑고 아픕니다)

이후에도 하부 차크라의 저질 감정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오만하기 그지없는 행태를 보였던 겁니다. 또한 많은 영성스승들이 자기가 어떻게 영적 각성 하게 되었는지 설명을 못하는 것은 자신의 카르마인 파동체, 솜사탕이 원래부터 규모가 작고 정갈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수많은 윤회를 통해 조금씩 닳아나간 경우 어느 시점에서 상하부 차크라의 조화가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열리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의식을 회복한 이후에는 내면의 신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딱 그만큼 예고덩어리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렇게 이상한 영성지도자가

많은거예요. 내면을 보는 능력, 파동 보는 능력 개발 못하면 없는 것처럼 숨겨서 이중인격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의외죠? 에고덩어리가 된다니. 반대일거 같잖아요? 막 사랑스럽고 신성하기만 할거 같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백회 이제 막 열렸다고 해봤자 아직 남은 에고가 많은데 일시적으로 기쁨으로 인해 쫓겨나서 잠시 침묵하며 숨는거 뿐이지 에고가 자기가 완전 사라질수도 있다는 위협을 당했는데 그후에 가만히 있겠나요?

숨었던 만큼 절치부심 비밀스러운데서 발악을 하면서 쓸수있는 온갖 전략 다 씁니다. 천국문하고 지옥문하고 같이 열린다고 제가 전에 말했잖아요? 근데 왜 많은 영각자들이 지옥문 열리는 얘기는 하나도 안하나면 의식의 특성상 자기가 안 보고 싶은 거는 안 보게 되어 있습니다.

신성회복의 미친듯한 기쁨도 내려놓아야만 지옥문이 열리게 되는데 그 황홀한 상태를 특별하게 여기지 않고 내려놓아야 하는데 어떤 사람에겐 그것이 힘든것 같더군요.

아무튼 무의식이 워낙 깊어서 자기가 계속 보려는 의지를 내어야 보이는건데 그 밑바닥에 있는것이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에 보통은 외면하고 없는 척 하게 됩니다. 사실 그걸 보게 되면, 우주가 우리의 희생양이고 지구가 우주의 희생양이기 때문에 너무나 불타는 지옥을 보게 되는 것이라서 저도 돌이켜보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하라고 하면 못해요.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비틀비틀 갔지 알면... 뭐 그래도 갔을 거 같긴 하네요...

잘 해내지 못하고 근근이 겨우 해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힘쓸릴 때마다 자기비난이 참 어찌나 극렬하던지요. 잘 못했던 시간이 아까워서 글 쓰고 있는거라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렇게 무서운 내면 파지 않고 기적수업만 하셔도 좋지요. 하지만 앞으로는 에너지 밀도가 낮아져서 무의식적 죄책감을 건드리는 것이 전보다는 힘들지 않게 될 거 같습니다.

저도 때로 이기심과 격한감정이 올라옵니다 저는 그런거 없을 거 같죠? 가끔 다다님도 그렇구나 안심된다 라는 말을 볼때마다 좀 귀엽고 순진하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에고가 얼마나 우악스러운지 밑바닥으로 갈수록 더 고통스러운 감정이거든요 그 불타는 죄책감은 말 그대로 지옥입니다. 그게 내꺼가 아니라는 걸 알 뿐이지 올라오는 건 끝까지 올라오는거예요. 오직 평화롭기만 한 소위 깨달은자는 그저 내면을 볼 능력이 부족해서 외면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다 닦았다면 물리법칙을 벗어나 몸의 한계나 우주의 약속을 모두 벗겼죠. 신과 매순간 더욱 가까워지고 신성의 능력을 쓸수있게 되기 때문에 연민의 마음을 내게 되어 그게 고통이 아니게 되는거지 공하거나 맹해서 아무것도 안올라오고 그런게 아니예요.

끝까지 못갔는데 아무것도 안올라오면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어 그안에
앉아있는거죠 한마음은 생기가 넘칩니다. 그의 일그러진 마음 또한
우악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일그러진 마음 한 줄기도 없을 때까지 그 살기와
죄책감은 있는 그대로 보이기 때문에 더욱 극렬합니다.

아니 신성회복을 해도 시간이 십년넘게 지나도 그렇다고요? 하고 의외시죠?
그만큼 무의식 밑바닥의 죄책감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뭐가 있는지 아셔야
되요. 없는줄 아니까 볼 생각도 안하거든요.

저는 제 글 읽는 분들은 신성회복 정도가 아니라 저 밑에 깔린 무의식적
죄책감을 상당부분 닦아낼 수 있어서 다음 세대에 큰 기여를 하시게 되었으면
합니다. 영의 세계에서 큰 기여란 남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몸과의 동일시를
좀 벗게 되면 그 의미를 아실거고요.

아무튼 이렇게 신성회복 후에도 예고에 휩쓸리기 쉬워서 여러분 바디 스캔을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조만간 2편 써드릴게요. 안그러고 자기 내면의 파동의
움직임을 보는 능력을 획득 못하시면 높은 확률로 오만한 영각자가 됩니다.

예고가 원래 순한맛일 경우 오만해지지는 않겠지만 한국인에겐 해당이
안됩니다. 한의 민족이라 오만하기 그지없거든요 ㅋㅋㅋ 물론 나중엔 다
돌아옵니다 왜냐면 신성을 한번만 회복을 하면 그 자체의 동력이 있어서 결국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남은 예고는 신성에게 쫓겨나게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보통은 자신이 더 닳을 것이 있다고 인식하지 못하니까 한 생애 다 해내지는 못하고 윤회를 또 하는것 같더군요. 신성 자각하면 지구 말고 다른 행성 티켓 얻는 거니까 다른 좋은 아스트랄 행성에 태어나겠죠

근데 지금 시기가 지구에서는 다 영각자 되어서들 살아야 하니까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을 이끌어줄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저는 구버전이기 때문에 각성 후 여러분들이 더 능력있고 더 빨리 갈 거예요.

이끈다는 게 눈에 띄는 뭘 해야 하는게 아니고 미쳐버려서 아픈 마음이 만든 온 우주의 진득한 죄책감을 기꺼이 보고 파헤쳐 용서해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그것도 이왕이면 아주 아주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 대신 내가 아팠으면 하는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으면 합니다.

24.그리스도의식의 각성상태-(3)

네 3편도 있습니다! 재밌으시죠? ㅎㅎㅎ

이번 편 팹폭 제대로 때려보겠습니다 팹폭다다 참 좋지요잉 어감도 찰지네요. 진실은 절대적이기에 팹폭 투성이입니다 그저 분별심을 기르지 말라고, 뭘 알려주면 예고는 또 싸우려고 자기 머릿속에서 각종 의견 가지고 판단 분별 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말을 아끼는 거예요. 자 팹폭 갑니다.

세상에 수많은 영성적 가르침이 있는데요. 영적 자각이 오면 몸 변화가 분명히 있어야 그게 영적 자각이지, 그냥 자기가 규정하기에 영적 자각이다 이거는 영적 자각이 아닙니다.

그 몸 변화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자기가 진짜로 겪은 거지, 몸 변화 없이 의식변화만 있었다고 하면 제대로 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영적 자각 했을 때 자기 입으로 나는 견성 영적자각 했다! 라고 말해야 맞다 라고 하잖아요? 그 말은, 그 정도로 확신 있고 기쁘니까 자기 입으로 말하게 되는 거라는 뜻이고, 자기 입으로 제가 영적 자각 한 건가요? 라고 남에게 묻는 건, 자각 못한 확신 없는 마음이라서 그렇다는 뜻이지, 자기 입으로 난 영적 자각 했다! 라고 한다고 그 사람이 백퍼 자각 한 거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내가 견성했다, 영적 자각했다 라고 하는데 가슴이 뻥 뚫리고 호흡이 배꼽까지 내려가서 평소에 쪽 단전 호흡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영적 자각 한 게 아닙니다. 진정한 의식 변화는 몸 변화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맨날 친절하고 고요하고 이런 게 의식 변성 된게 아닙니다, 몸이 기혈이 열린 게 의식 변성 된겁니다.

나는 신이다! 하고 깨달았는데, 가슴 차크라 백회 차크라 자기가 의식적으로 열고 달아서 에너지 조절 못하고, 몸이 통째로 변해서 그리스도 의식을 통과시키는 매개체가 되어서 그 강도를 조절할 수 없다면 이건 그냥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 뿐 인간 신으로 거듭난 게 아니에요.

이런 에너지 혹은 빛 교류는 대단히 실제적인 거라서 뜬구름 잡는 소리나 비유가 아니에요. 에너지나 빛은 팔다리 움직이는 것 만큼이나 확실하게 오갑니다. 의식이 변하면 당연히 그 의식이 쥐고 있는 몸이 변할 것 아니겠습니까?

몸은 늙고 병들었고 냄새나고 피부도 쭈글한데 그 몸을 지배하는 의식이 고차원 의식이겠어요? 세포 하나하나가 의식의 반영인데 님은 만큼 에고에 덜 휩쓸려서 세포도 자기들끼리 덜 싸우려 들고, 안정되니까 깨끗해지고 혈액 순환도 더 잘되고 호르몬 분비도 잘 되고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자신이 신임을 깨달았는데 마침 몸을 갖고 있다면, 세포도 당연히 신의 의식처럼 완벽해지지 않겠나요? 여기 지구가 고중력 롤러코스터 환상 세계이고 에너지가 매우 무거워서 여기서는 신성 회복 해도 음식이며 물이며 환경이며 전파공해 빛 공해 모든 게 오염되어 있어서 산 속에 들어가 교류를 끊고 살지 않는 한 완벽한 신의 몸을 구현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 건 맞습니다.

그래도 기본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인데 신의 능력을 써야지요. 우사에서든 깨달으면 공간이동 공중부양 하잖아요. 지구 중력에 속박된 늙고 병든 몸이 그런 거 하는 건 좀 상상이 안 되죠. 신의 자각이 몸에 영향을 미쳤기에, 그 몸이 물질 세계의 법칙을 초월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요.

우사에서 몸에 신경 쓰지 말라고 해주는 건, 예고의 특성이 뭘 알려주면 자기 식대로 이상한 쪽으로 해석을 해서 집착을 하기 때문에, 몸이 변하는 거에 집착하고 경지 따지고 그럴까 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진득한 감정을 안 버리고 외부만 용서하는 방법으로는 서서히 서서히 변하기 때문에 한 생에서 괄목할만한 임팩트 있는 신체적 체험을 하기 힘들기에 신체 변화를 언급할 필요도 없고요.

전 글에서 언급했던 유지 크리슈나무르티가 오만하다고 했지만 이 사람이 되게 맞는 부분이 있는 게 몸이 완전히 변하지 않는 깨달음은 전부 사기치는 거라고 했거든요? 제가 이 사람 잘 알지는 못하고요 인터넷에서 어쩌다 수기를 봤는데, 이 사람, 깨달았다는 영성 스승들에게 마구 욕하고 소리 지르고 자기만 몸이 변했으니 깨달은 거라고 평생 그랬더라고요?

그 말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닙니다. 예고가 남았으니 정의의 신 강림해서 좀 무례하게 굴긴 하지만요. 전 편에서 면허증 얘기 했잖아요? 신으로 거듭나는 거는 면허 발급을 신계에서 해주는 겁니다. 차크라 백회 다 열어서 여건이 되어도 한참 안 오는 경우도 있어요. 다 열어도 더 닦아서 자격이 되어 주는 경우 있거든요.

쿤달리니 각성 체험만 있고 그리스도 의식 회복 체험기가 별로 없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저도 반년이나 늦게 받았고요! 그래서 백회 오픈=신으로 태어남 무조건 백 프로 이 공식은 아닙니다. 물론 차크라가 다 열리지 않았는데 신 라이선스 주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열려도 다 안 주는데, 안 열리면 당연히 못 주죠. 필수 조건입니다.

허가가 떨어져야 신으로 태어날 수가 있고 정해 놓은 규정이 있어요. 그쪽에서 봤을 때 이 인간 이거 어떻게 차크라는 다 열었네? 근데 마음속에 아직 이기심이 우리가 허용하는 면허 발급 수준보다 많아. 저런 애가 신성 능력 쓰고 다니면 좀 곤란해.

좀 지켜봐야겠다. 저거 열린 거 계속 열려있고 자기 이기심 이겨내는 거 보이면 면허 발급 해주도록 하지. 이런 거예요.

자 근데 짜잔~~

요새 나간 라이트 코드가 바로 이 인간신 면허증입니다. 두두두둥 면허 뿐만 아니라 그안에 여러가지 정보 풀더가 들어있어요. 면허만 해도 활성화 시키려면 시간 좀 들여서 닦아내야 하겠지만 이게 원래 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다들 이렇게 지구에 몰려온 거 아닐까 싶고요.

이거 받으려고 일찍부터 와서 윤회 하며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개긴거 같습니다. 이런 지구에서 노예생활 하면서 뺨세게 구르면서 이만큼 오래 개겼으면 솔직히 즐만합니다 ㅋㅋㅋ 완전 깨달음도 아니고, 그냥 신성회복 정도니까 원래 우리 모습일 뿐이죠 게다가 닦아야만 활성화되는 조건도 있고요 ㅎㅎ

사람은, 나는 신이다! 라고 말하고 느끼고 한다면 실제로 자기가 신인 듯한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진짜 신이니깐요 ㅋㅋㅋ 의식 차원에서 맛배기로 느껴볼 수가 있거든요 아스트랄계에서요 ㅋㅋ

신이라고 믿으면 그런 체험도 하게 됩니다. 심지어神通력도 부릴 수 있습니다. 자기가 진짜로 새로 태어난 신이면, 신이 되는 과정을 속속들이 다 알겠죠? 남들을 어떻게 신으로 만드는데도 속속들이 다 알겠죠?

어쩌다 보니 내가 차크라 다 터져서 신이 되었네? 남들을 어떻게 만들어주는지까진 몰라도 내가 이러 이러한 과정을 거쳐 신이 되었다 하고 구체적인 몸 변화 과정을 설명할 수 있고,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확신은 못 해도 짐작은 할 수 있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의식 변성만을 이야기하는 각종 가짜 영성 정보에 너무 많이 속아오셔서 분별이 잘 안되실 텐데요. 차크라 하나 살짝 건드려서 살짝 열렸다고 의식 변화 몸 변화가 다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전부 다 터져서 다 열려야 하고 아예 몸이 통째로 의식만 있는 걸로 싹 다 변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살짝 맛보기만 했는데 그것만 해도 자기 땀에는 대단하니 영적 성장을 다 이론줄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부 차크라 에너지는 거의 건드리지 못하고 상위 차크라만 아주 조금만 오픈해서 외부로부터 신적 지혜가 좀 들어와서 그걸 자기가 깨달았다거나 신인 줄 착각하는 경우도 많고요.

내가 요리사다 요리사로 일하고 있다 라고 하면 당연히 요리 할 줄도 알고 재료 구성이나 주의점도 알고 남들 요리사로 만들어줄 수도 있어야 되는거 아니겠어요?

속속들이 다 알진 못해도 본인의 쿤달리니 각성 과정을 말해주는 영성 스승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인정합니다. 근데 자기가 그런 체험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못했다면 그저 의식의 일부 초기 변성만 있었던 것 뿐이라는 겁니다. 의식의 변성만 살짝 있어서는 신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며 그 능력을 못씁니다.

글 보다 보면 별것 아닌 몸 변화에 신경들을 쓰셔서 내가 곧 되나 곧 되나, 이렇게 기대들을 하시니까 그런 모습 다 귀엽고 예쁘고 대견해요 진심입니다. 근데 다만 기대가 길어지고 일년씩 이년씩 가도 안 터지고 세상 돌아가는 모습은 더 혼란한 거 같고 그러면 사람 심리가 지칠 것 아니겠어요?

의식 성장, 올바른 변형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꽤 많이 가야 하고요. 제가 쉽다고 말씀드리는 건 예전에 비해 쉽다는 거지, 내 개인적으로는 쉬웠다는 거지, 세상에 없는 무엇보다도 귀한 것이 어느 정도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리가 있나요?

저는 신성회복이 내 목숨이고 운명이고 내 모든 걸 다 걸고 죽더라도 온 몸이 산산조각 나더라도 깨달겠다. 그 어떤 고통이 있더라도 와라! 다 덤벼! 날 부숩버려 철저히 파괴해봐! 지구를 지구인을 너무나 너무나 사랑해서 아픈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좋겠고 그걸 위해서 내가 대신 아플 수 있으면 얼마든지 아프겠다 가루가 되더라도 개의치 않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아주 어릴적에 서원을 세웠던 사람이라서 제가 여러분이랑 의식성장의 초기 변화를 겪을 때 좀 기본 심리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타고난 역할이 각자 다른 거거든요. 어떤 체험을 했을 때 저는 이거 좋긴 한데 빨리 내려놓고 다음 단계로 가야지 할 수가 있는데 어떤 분은 와 이거 대단하다 하면서 빠져 있을 수 있는 거고 작은 것도 크게 느낄 수 있는 거고 저한테는 이 정도는 쉽다 견딜만하다 라고 하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견디기 힘든 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인터넷에서 글 올린다고 그거 보고 따라하는 여러분들도 참말 대단하지요. 이런 분들 보시라고 글 쓸 수 있고 교류할 수 있는 것도 행복한 것도 맞고요. 그래서 그런 멋진 분들이니까 나름대로 마음을 다해서 직언을 드리게 되는 거고요. 가끔 위험 부담이 있지만 흥미거리 재미있으시라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는 거고요 부디 제마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25.그리스도의식의 각성상태-(4)

4 편도 있습니다!

변형은 몸 변화나 에너지 파동 느끼는 것 정도로 오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그냥 결과일 뿐이고요, 마음 상태는 삶을 떠올려 아무 미운 일 미운 놈 없고 허심탄회하게 곧 죽어도 후회 없는 마음이 되어야 변형이 오는 거거든요.

몸 변화 좀 온다고 기대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티비 켜보세요. 미운 놈들 보일 거예요. 이제 되나? 이게 그거 맞나? 이런 생각 초장부터 못 버리면, 외부에서 큰일로 쳤을 때 크게 좌절합니다. 아직 이것밖에 못 왔나? 이 굴레가 깨어지지 않는 건가? 이러면서요.

성장할 기회를 내 부족함을 증명해내는 나쁜 일로 잘못 인식하게 되고, 더 힘든 걸 어떻게 감당하지 겁먹게 되요. 아무리 에너지가 좋다 한들 신 의식을 꽃아 주는 건데 이걸 자기 목숨을 바치지 않으면 안됩니다. 어느 정도의 몸 체험 의식 체험만 하는 정도로 용두사미로 끝나는데 자기는 다했다고 착각할 수가 있는 거지요. 다 했다고 착각해 버리면, 제가 남들 모르던 거를 알아내던 시간들과, 이렇게 시간 들여 글 쓴 보람이 없지 않겠나요?

누구든지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어하고 제일 싫어하는 게 쓸모없는 일 하는 거잖아요. 신성 회복은 적당히 아는 게 아니라 몸이 다 변해서 그 능력까지 쓰게 되어야만 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의식은 자기에게 가장 귀한 걸 주고 그 대가로 얻는 거예요. 왜냐면 그만큼 그걸 원한다는 걸 증명해야 되거든요. 자기에게 제일 귀한 게 뭐예요? 자기 목숨이죠? 자기 목숨 내놓아야 신으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기 정체성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이라고 생각했던 에고를 상당 부분 거의 반 이상 내놓아야 신성 획득이 되는 겁니다.

라이트 코드가 발급이 되어도 그걸 자기 것으로 등록하려면 그만큼 내려놓아야 하는 겁니다. 시기가 아무리 좋다고 뭐든 공짜로 될 리가 없지 않겠나요? 예전보다 좀 쉬워졌을 뿐이지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성령에게 말기는 것도 자기가 최선을 다해 노력해서 맡겨지는 거지, 별것 안 하면서 말기는 건 게으른 예고가 못 죽는 거지요. 자기 목숨 내놓지 못했기 때문에 다 못 간 영성 스승, 영성 정보가 판을 치는 세상인데 내가 요리사다! 라고 하는데 요리는 못 하는 게 말이 되나요? 요리 경력 없는 사람도 책에서 요리 지식 읽고 남들 가르칠 수 있거든요. 워낙 레어한 요리다보니 알려진 바라 별로 없어서 속이기 좋습니다. 자기도 그 요리 어떤 요리인지 모르니 자기가 속이고 있다는 자각도 없습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고 장님이 이끄는 격이지요.

앞으로는 아무나 에너지체 되어서 각자가 몸으로 진실을 판별하게 되는 세상이 올 거라서 이렇게 가짜 구루가 많은 세상은 몇 년 못 갑니다. 여러분은 진짜 구루가 되려고 하셔야 되고, 이거 해낼 거냐 말 거냐, 내 목숨 내놓을 거냐 말거냐, 언젠가는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구루라고 말했지만 전통적인 구루, 영성 스승 같은 거 다 사라져야 합니다 신성으로부터 직접 메시지 받게되면 그런거 다 필요 없지요. 영성 스승이란 요리 자격증 강사나 필라테스 강사 같은 느낌으로 실용적으로 변하겠지요. 아직까지는 지구인도 계급 의식에 찢어 있기 때문에 영성 스승 만들고 비싼 강의 만들고 하면 먹히는 거지요.

영성 정보 많이 아시는 분들은 마음속에 자기가 아는 지식이 큰 장벽이 되어 있거든요. 마음 속에 계급 의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영성 정보에 심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이런 사람은 찌리 저런 사람은 마스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모든 존재에게 사랑을 줘야 하는데 의식 수준이 높은 사람이나 장소나 물건을 추앙하고 낮은 것을 거부하게 되는 거지요.

여기 깔이 재미있는 건, 때때로 누군가 글이나 댓글을 겨우 한두 줄 썼는데 상당한 의식 수준인 경우가 있어서 즐겁습니다. 말하는 거 글 쓰는 거 보면 저 같은 경우엔 자동으로 의식만 하면 다른 사람 마음에 접속이 됩니다.

텔레파시나 마음 읽는 거 개발해본 적이 없어서 디폴트 정도만 되는거죠. 그 사람 의식 상태가 보입니다.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직접 그 사람의 몸이 되어 느껴집니다. 어디에 병이 있는지 이런 것도 알고요.

예고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보면 어떤 예고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대략 이 사람의 카르마는 어떤 식으로 펼쳐졌을지,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은 무엇일지 대략 보입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하거나 질문을 했을 때 내가 팍폭하는게 좋은 경우, 받아들일 용기가 있는 사람에겐 직접적으로 말하고, 내가 그에게 그걸 직접 말해주는 걸 상상해봤을 때 저항감이 올라오는 경우는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품어주는 편이 더 필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상상이라고는 하지만 거의 직관적으로 순식간에 이루어지죠. 그래서 다다한테 팩폭 많이 받고 때로는 서운하다 싶은 사람은 마음이 순수한 사람이고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다다 왜 나한테만 팩폭하지 재한테는 친절한데 싶은 사람은, 자기가 그만큼 빨리 깨어나고 싶다 다 받아들이겠다고 다다한테 신호를 쏘고 있다는 걸 자기 머리로는 모르고 있다고 아시면 됩니다.

재밌죠? 상상해보면 받아 들여질지 아닐지 알 수 있다는 게?
상상은 실체가 아니고 행동이 진짜라고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그 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두 개는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천천히 가고 싶어하기 때문에 팩폭 하지 않습니다. 감히 제가 참견할 일도 아니고요. 자기 머리로는 빨리 가고 싶다고 생각 하잖아요? 그의 솜사탕 파동체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대부분 여유 부리며 나쁜 일 안 겪고 가고 싶어합니다. 자기가 어떤지는 하루 중 수행에 들이는 시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루 중 다른 일에 쓰는 시간이 수행하는 시간보다 더 길면 천천히 가고 싶어 하는 거지요. 그래서 수행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라 생활에 수행하는 마음을 접목 시켜 매 순간 수행 하는 게 중요합니다.

때때로 사람들을 대할 때 일부러 에고를 써서 찌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 받으라고요.

에고 많이 다뤄봤으니 어딜 어떻게 찌르면 효과가 좋을지 잘 알지요 대부분은 거칠거나 비꼬는 듯한 말 한 두 마디면 됩니다. 한 두 마디 해서 안 먹히잖아요? 그럼 더 과격하게 먹살 잡고 흔들듯이 세게 말하기도 합니다.

말은 거칠지만 마음은 따뜻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 달라진 그를 상상하며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우스운 상황이 되죠 눈에 보이는 거랑 내 마음이 다르니까요 ㅎㅎㅎ 이런 거는 에너지체 된 후에도 자기 카르마 못 닦고 어정쩡한 상태에서 그렇게 하면 안되고요.

자기가 마음 자리가 빈 상태에서 파동을 아주 살짝만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내면을 보는 능력이 개발이 안되면 쓸 수 없어요. 대충 차크라 조금 열고 신성 회복 조금 해가지고 이런 거 못합니다 방어하고 있는 사람도 필요하면 도와줄 수 있어야 하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인이 지구인에게 가진 책임이 있습니다. 수동적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력 있어야 합니다.

웃기는 게 그 사람의 무의식은 자길 좀 도와달래요, 근데 순한맛으로는 씨알도 안먹힐 때가 있어요. 하도 살면서 거친 경험을 많이 해서 상처 받을까 봐 마음을 꽂꽂 싸매고 있으니 부드러운 방법은 안 먹히는 거죠. 그럼 귀청 따가울 정도로 세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강단이 좀 있어야 하죠. 그래서 고집 세고 오만한 사람들이 더 큰 그릇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착하고 순진하기만 해서는 자기보다 썬 에고를 못 다룹니다.

사랑은 무서워서 거부하고 피하고 반응을 안하고, 썬거, 무례함, 오만함에만 반응하는 에고들이 있어요. 다른 일반적인 방법이 안 통하기 때문에 무례함에 반응하는 걸 좀 역이용 하게 되는데, 그러지 않고 친절하게만 대하게 되면 되게 오래 걸리는데, 그 사람 언제 볼지 어떻게 알아요? 다음 기회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도와달라고 마음으로 부르는데.

그 사람은 내가 무례해서 열 받으니까 자기랑 나랑 싸우는 줄 알지만 에너지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은 치유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날 의식하며 던지는 에너지 족족 내가 가져가서 정상적인 마음으로 돌려놓으니까요. 여러분도 용서할 때 이렇게 되잖아요 다만 그 시작을 제가 좀 먼저 짚어서 에너지 교류하게 억지로 만드는 거지요

내 쪽에서 파동 살짝 써서 찌르면 저쪽에선 대량으로 올라오거든요 그러고 그 에너지 제가 다 받아주기만 하는 거지요. 상대방의 에너지체는 내가 공격했으니 자신의 공격이 정당화되고, 자신이 더 크게 공격했으니 그보다 더 큰 공격이 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가, 아무것도 오지 않으니 당황하여 더 크게 공격해 보지만, 계속 아무것도 오지 않는 게 반복되어서 의식의 변성이 있게 됩니다.

내 부드러운 말이 그 사람 에너지체에 안 먹히면, 내 입장에선 이 사람하고 말하며 서로에 대해 생각하며 의식 교류 하는것이 최우선이므로 싸움을 하더라도 오랫동안 말하게 잡아 놔야 하죠. 이왕이면 더 열받게 하면 계속 제 생각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더 좋지요 누군가에 대해 생각한다는 건 그거 자체가 에너지 교류입니다. 결국 훈훈하게 마무리 됩니다 저쪽에서 더 던질 살기가 없이 소진되면 웃으면서 실없이 끝나는 거지요. 재밌죠? 용서를 몸으로 많이 실천하면 어쩌다 한 번씩 가질 수 있게 되는 재미있는 일이죠.

상대방이 마음이 열려 있지 않기에 그런 식으로 치유를 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방어 기제 쓰며 마음을 많이 닫고 있는 경우지요. 저야 에너지 먹고도 기혈 열려있으니까 불편하긴 해도 그냥 밖으로 빼내면 되거든요 바로 나가지 않아도 명상 해서 빼면 되고 이건 상대방의 마음이 절실히 깨어나고 싶어할 때만 쓰고, 평소에는 이런 식으로 안 합니다. 항상 영적 에고 키울 위험 부담이 있거든요.

그 사람하고 내가 그럴만한 인연이 얽혀있어서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다만 조금 힘든 방식으로 되는 거라 선호하지는 않죠. 이걸 전체 마음 입장에서 보면 저한테도 이런 식으로 하면 수행이 되는 게, 그 사람 마음도 결국 내 마음이거든요. 내 무의식 마음 속 유난히 방어기제 쓰는 부분이 밖으로 투사된 거라,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 거지요.

물풍선처럼 껍질 쓰고 있는 물은 찢러야 물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아직 내 파동체에서 특정 희생자 카드를 다 못 닦았다면, 그 사람이 공격할 때 일부분 내가 못 닦은 만큼은 내가 공격을 당한 것으로 착각해서 보기에, 이건 머리가 아니라 몸에서 자동적으로 그렇게 내 에너지체에서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뭉친 파동을 분해해서 기혈로 내보내고 진득하게 들러붙는 것은 성령불러 닦아내야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더 많은 사람, 더 끔찍한 카르마가 있었던 사람을 치유 가능하게 되지요.

우리는 살기를 피하려고 움츠려 살고 남에게 좋은 소리만 하지만, 한마음은 두려움이 없고 생기가 넘칩니다. 여러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을 깨울 수 있어요. 파동 좀 쓴다고 누구에게 상처가 될까, 내가 공격 받을까 그런 게 없습니다. 없어야 의도적으로 쓸 수 있고요.

두려움 갖고 의도치 않게 나오는 건 그냥 공부 가 덜 되어서 화풀이 하는 거고요. 내면 보는 것을 자동화해서 무슨 감정이든 잘 쓰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겠죠? 고정관념을 깨세요! 친절하고 도움 못 되는 것보다 무례하고 도움 되는 게 낫습니다.

26.진지한 구도자가 가져야 할 자세

우리 곁에서 글만 보시는 분도 계시고, 조금씩 수행 하시는 분도 계시고, 수행의 목적이 일상에서 행복해지기 위한 분도 계시고, 나 혼자 세상을 벗어나는 게 목적인 분도 계시고 다 나름대로 좋습니다만, 오늘 글은 나를 닦고 남도 치유해주고 나를 지워내서 온세상을 치유해주고 싶은 대자대비의 마음을 되찾고 싶고 자신이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서 하필 이 시기에 수행하고 있다고 믿는 진지한 구도자를 위해 씁니다.

바디 스캔 2편은 쓰는 걸 계속 망설였는데, 한동안 안 쓸것 같습니다. 그게 원래 견성 후 수행법이라, 수행법이라는 게 항상 위험성이 있어서 아무리 설명을 자세히 해주고 주의점을 나열해도 그걸로 자기 마음을 망가뜨릴 수가 있어요. 바디 스캔 1편 참조하셔서 꾸준히 몸에 집중하는거 연습 하시고, 견성한 사람이 좀 더 나와서 나중에 여건이 되면 글을 쓰도록 할게요. 몸에 집중하고 의식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매사 집중력을 유지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풀기 언제까지나 하실 거 아니고 나중에는 집중력만으로 수행하게 되거든요. 평소 일상생활을 할 때 몸에 의식을 두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씩 찌라시 들고 오잖아요? 지구 에너지 좋아서 수행 하기 전보다 쉽다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속지는 마세요. 그거 들고오는 다다는 피치맨입니다. 피치맨 아시죠 영업맨이에요. 핫도그 가게 앞에서 핫도그 인형탈 쓰고 사람 모으는 알바생이에요. 내용이 고상하지 않더라도 다다가 의식 집중해서 쓴 글은 글이 주는 에너지가 있어요. 글이란 걸로 보기에 텍스트에 불과하지만 쓴 사람의 의식에너지가 그 바탕에 있습니다. 그거 에너지 교류되면서 호감으로 느껴지고 다른 글도 찾아보게 되고 댓글 보면 덕

봤다는 사람도 보여서 나도 수행 좀 해볼 생각이 어찌다 들 수도 있는거고, 아니라도 재밌게 보다보면 조금이나마 의식정화가 되는거고 그런 용도가 있는거예요.

속지 말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에너지 좋다고 수행 잘된다고 좋아할 필요가 없는 게, 차원 상승 해봤자 4차원으로 가는 게 고작입니다. 4차원은 3차원 물질계 매트릭스 벗어나는 의식수준 즉 영적 자각 한 사람의 의식수준 정도밖에 안되요. 한국인의 말이나 문화 자체가 4차원 이상이고 한국인은 원래 4차원 이상의 존재예요. 저는 고대 한국에 온 사람들은 5차원 이상의 존재일거라 짐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말이 차크라를 백회까지 다 열고 파동체의 교류가 뻗히 보이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를테면 머리꼭지가 돈다 라는 말은 화가 올라오면 정수리에 분노파동이 엔젤링처럼 작게 돌아요. 뒤집어 쓴다, 뒤집어 씌운다 라는 말은 상대를 투사해내는 파동을 뒤집어서 그대로 돌려주거나 써먹는다는 뜻입니다.

원래 의식수준이 높았기 때문에 한국인이 그렇게 에너지장이 크고 울화가 가득한데도 감정 털어내기 집중적으로 며칠만 해도 견성해버리는 사람이 나오는 거거든요. 차원 상승에 필요한 에너지가 대단하다고 여기는 건 서구 물질문명 수준에서 보기엔 그것만 해도 대단하니까 그런거지, 한국인인데 구도자라고 하면 그런 거에 만족할 만한 사람들도 아니고요, 그 지구 차원의 에너지에 덕을 봐서 다 씻겨 내려가서 맑아 졌다고 해도, 그 정도는 원래 한국인이 여기 지구에 올 적의 모습의 반의 반조차도 안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 그냥 신의식 각성해서 적당히 즐겁게 살려고 여기 온 게 아닙니다. 시기가 되면 끝까지 다 닦아서 완전한 하나님 마음을 구현해서 우주의 구성자체를 바꾸기를 꿈꾸면서 오랜 시간을 똥밭에서 굴러 온 거예요.

이런 이야기 하는 목적은, 수행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제가 여기까지 오는 데 걸린 시간보다 여러분들에게는 그 시간이 훨씬 압축이 될 거거든요! 압축되는 만큼 마음이 숙성될 시간이 부족하고, 방황해보면서 새롭게 마음 먹을 시간도 부족할 것이기에, 하루하루의 마음가짐이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찍부터 진짜 수행이란 어떤 것인지 알고 적당히가 아니라 지독하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가셨으면 해서 오늘은 진지충이 되어 글을 쓰고 있는 거랍니다.

제가 수행한지 오래되었으니 고상하게 앉아서 하나님 마음과 접속하는 수행만 할까요? 안 그렇거든요. 남과 좀 다른 건 운동하는 데 쓰는 시간이 거의 줄어들었다 뿐이지 저도 아직 수행하는 시간 중 90프로는 몸으로 파동 집중해서 느껴서 지우는 수행 합니다. 그 방법이 직접 말로 해서 감정 푸는 게 아니라 집중력으로 파동을 분리하고 파쇄하는 방법을 쓸 뿐이지 땀나고 힘들면서 수행하는 건 저도 똑같아요. 그나마 하나님마음을 구현하는 10프로 가량의 명상도 최근 들어서야 그정도 점유율을 차지한거고 그전에는 백프로였어요. 마장이 올 가능성을 원천차단하려고 상위차원의 인식을 다 차단하고 캄캄한 상태에서 몸으로만 수행해 온건데 결과적으로 그게 제가 온갖 빨짓과 방황 및 사회생활 할거 다하고도 수행이 빨리 된 이유입니다.

견성했다고, 혹은 그리스도 의식 회복 되었다고 그게 좋아서 그것만 계속 느끼고 신의 빛을 구현하고 이래봤자 남은 예고가 절반인데 그 파동 끈끈하게 바닥에 붙은거 그리스도 의식 구현한다고 못 지웁니다. 미친 마음은 깊이 파고 들어갈수록 찢득하니 밀도가 높아지고 바닥에 아스팔트처럼 눌러붙어있어서 바른 마음으로부터 분리해내기 쉽지 않아요. 의식을 집중해 레이저처럼 집약적인 강도의 빛을 극한까지 써야만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찢득하게 붙은 걸 마음 본다고, 예고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본다고 떼어낼 수 있다? 절대로 안됩니다. 신의 마음이 극한의 공포를 느껴 생성시킨 믿음은 지옥과 같은

공포심이고 물에 빠진 사람이 살기 위해 발악하는 엄청난 강도의
절박함이에요. 집중력을 극한까지 키우지 못하면 중도포기하게 됩니다.

집중력은 인식으로는 못 키웁니다. 진득한 감정, 파동덩어리 버리는걸 통해서
집중력이 회복이 되는거예요. 견성 했다고 감정 버리기 안 하시면 둘러 둘러
가겠다, 마장에 빠지겠다라는 의사랑 똑같습니다. 한국인의 파동체가 지구인
전체의 한의 저장고이기 때문에, 수행 시작하고 3년 정도는 많이 울고 감정
털어내기 해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집중력이 생긴다고 말씀 드렸었어요. 이게
예전 지구의 무거운 에너지 기준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꽤 많은 시간을 감정
버리기 위주로 수행 하셔야 기본기가 생겨요. 감정을 버리면서 느끼고 무의식
마음이 이렇게까지 아파하는구나 하는 걸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고
인식으로만 수행을 하면, 타인의 아픔도 끌어안아 줄 수 없게 되기에 언젠가는
신임을 자각해도 신의 세상을 볼 수만 있을 뿐, 신의 능력인 사랑을
의도적으로 쓸 수가 없게 됩니다.

수행은 나는 괴롭지 않고 성령이 다 가져가 주는 이런 게 아닙니다. 그건
힘들기 싫은 이기심이 얹아서 수행하고 있는거죠. 성령은 내가 분리한 파동을
가져가 줄 뿐 직면해서 보고 분리해내는 건 내가 할 일이에요. 땀 뻘뻘 눈물
콧물 줄줄, 무의식 파봤더니 충격, 때로는 토하고 설사하고, 때로는 앓아눕고
기절하고 불타는 듯 아프고요. 매일 수행 끝날 때 땀으로 옷이 젖고 근육이
아파서 바닥에 드러눕게 되지 않고, 시간이 아무리 지나더라도, 몸과 마음이
편하면서 수행이 잘 되면 뭔가 좀 이상한 겁니다. 고통 덩어리인 파동체가
투사해낸 게 몸이기 때문에, 이 파동이 분해가 될 때도 몸에 비슷한 강도의
고통이나 근육의 긴장이나 감정적 반응을 이끌어내면서 나가는 게 이치예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 지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지구에서 수행여건은
이래요.

수행한 지 아무리 오래 되어도 차크라 다 열고 치유력 생기고 나서도 가만히 앉아서 근엄하게 거룩하게 수행할 생각 꿈도 꾸지 마세요. 절대적으로 절대로 결코 꿈도 꾸지 마세요. 몸 전체를 하나님 마음을 통과시킬 수 있는 빈 공간으로 바뀌어서 하나님 마음을 밖으로 방사해낼 수 있기 전까지는, 아 이제 수행 좀 쉬운데? 하면 내가 마장에 들어가고 있구나 생각하세요. 수행은 끝까지 힘듭니다. 자기자신을 쇠신해서 새로 태어나야 하기에 사실상 기존의 내가 죽어 없어져야 합니다. 더럽고 자존심 상하고 수치스럽고 죽을 것 같고 절대 느끼기 싫은 공포스런 감정을 적극적으로 바닥까지 몸전체로 끝까지 느끼고 받아들여야만 그 공간이 비어서 맑고 청명한 하나님 마음을 통과시킬 자리가 나는거예요. 어느 정도 수행의 깊이가 깊어지면 마치 나 자신을 지옥불 속에 던져 넣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음의 눈이 열리면 아름다운 신의 세상 뿐 아니라 살기로 가득한 이기심의 파동 세상도 그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자기자신을 포기하고 버리고 비우는 태도가 습관화 되어 있지 않으면 세상을 드러내는 바탕에 편재한 신의 찬란한 아름다움이 아닌 공격과 증오로 가득한 극악의 이기심의 교류가 일상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겁먹고 뒤로 물러나거나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어 그안에 있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신의 사랑을 본 자에게 이기심은 더욱 감당하기 고통스럽게 느껴지거든요. 사랑은 용기입니다. 이렇게 악한데도 받아들이겠느냐? 이렇게 아픈데도 받아들이겠느냐? 하는 물음이 오고, 그래도 받아들이겠다, 아파도 상관없으니 사랑하겠다고 매번 답해야만 눈앞에 실재처럼 보이는 이기심의 파동세상이 매번 무너지게 됩니다. 그걸 무너뜨리지 못하고 자신의 상처를 붙들고 있으면 그 시간만큼 쓸데없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매사 마지막 자리에서 돌이켜서 지금의 나를 보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마지막 자리에 있는 나는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은 지금의 내가 고통을 겪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게 어떻게 느껴지든 그것을 모두 무시하고 오직 내면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항상 매순간 사랑하겠다고 답하기만을 바라십니다. 그러나 고통을 피하지 않고 하나 하나 들어서 살펴보고 있는 그대로 껴안아가며 그렇게 해야 그 고통이 있던 자리가 빈자리가 되어 하나님이 임하실 자리로 준비해놓게 되는 거지요. 나의 몸 전체가 하나님을 통과시키는 통로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광스럽지 않겠나요? 이걸 완성시키기 위해 우리가 여기에 온 거랍니다.

27.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날을 하나만 꼽으면 백회를 연 날이나 신의식이 온 날이 아니라 처음 영적 자각 한 날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내 방이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낯선 방이더라고요 가슴에서 처음 느껴보는 어떤 느낌이 솟구쳐 올라 벌떡 일어나 후다닥 옷을 아무렇게나 껴어 입고 집 밖으로 뛰어 나갔습니다.

당시 저는 우울증이 중증이었죠. 상상도 못할 일이죠 매사 의욕이 없어 나무늘보처럼 움직였는데 ㅋㅋㅋ 낯선 그 느낌은 기쁨 이라는 것이었어요 계단을 뛰어내려 가면서 깨달았죠.

당시 제가 살던 동네는 유흥가 뒤편이라서 아침엔 쓰레기더미, 개똥, 바닥에 전단지 등등 더러웠거든요. 벌어진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미쳐 버린 줄 알았죠.

너무 오랫동안 나 자신과 싸웠더니 드디어 정신이 나가버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눈앞에 보이는 세상이 너무 미치도록 믿을 수 없이 찬란하게 아름다웠거든요. 사방에 찬란하게 빛나는 아름다움이 가득했어요. 길가에 텅구는 개똥과 토사물과 쓰레기더미와 거기에 붙은 똥파리들도 너무 너무 아름다웠어요.

사람의 형태들이 천천히 움직였고 시간이 사라진듯했죠. 사람이란 그림자일 뿐 원래부터 찬란한 아름다움만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마음이 너무 놀라버려서 기능 정지를 한 것처럼 아... 아... 하는 감탄사만 남더니 언어도 생각도 사라졌어요 아름다움만 있었어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다리를 질질 끌면서 천천히 동네를 걷기 시작했어요. 바람이 불어오듯 어떤 흐름이 불어와 남은 내가 바람결에 허물어져 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찰나의 순간 내가 없었고 찬란함만이 있었어요.

다시 인식이 돌아왔을 때 지금까지 내가 나 자신을 아름답지 않다고 여기며 살아왔던 것이 믿겨지지 않아요. 이렇게 모든 것이 아름다운데 어떻게 내가 나 자신을 추하다고 비천하다고 여기면서 살아올 수가 있었을까? 길에 서서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죠. 절대 잊을 수 없는 이 날이 제가 생명을 받은 날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처음과 똑같이 이 날은 너무나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한 날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성령의 눈에는 성령에 준하는 것밖에 보이지 않는답니다.

성령의 눈에는 부족함이나 비천함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오직 찬란한 아름다움만 보인답니다.

우리가 무슨 끔찍한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든 성령은 그것에는 관심이 없답니다. 오직 우리를 보고 너무나 아름답다며 감탄하고 행복해 할 뿐이에요. 성령은 매 순간 우리에게 고마워 한답니다.

성령은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거든요. 성령이 우리에게 고마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마워 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마워> 하신답니다. 이 말이 잘 믿기지 않으시죠?

이 말이 믿어질 때까지 마음에 품고 간직해 보세요.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도 완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나는 한 세트로 만들어졌답니다. 하나님을 완전하게 만들어 드리기 위해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하게 만들어 드리고자 하는 나의 모든 노력에 아무리 변변찮고 작은 것이라도 성령은 고마워 한답니다.

성령이 세상을 볼 때 적자생존 악전고투하는 그림은 성령에게는 보이지도 않는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괴롭히고 부족하다고 아무리 자학해도 그런 건 성령에게 안 보여요. 성령은 오직 한 줄기 따뜻한 마음, 사랑과 닮은 마음만을 본답니다.

아침에 알람 소리 듣고 일어나기 힘든데 속으로 욕하면서 일어나 오늘이 목요일이니 내일 또 이런 아침을 맞이해야 하네 짜증나서 잇몸에 피 날 정도로 칫솔질 하고 전철 속에서 시달리다가 직장에 출근해서 왠지 벌써 지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제 마무리 덜한 일 조금 더 매끈하게 잘 마무리 하려고 노력해 보고 옆에 있는 직장 동료 하소연 하는 거 듣기 싫어도 마음 돌이켜 한번만 동조해준다면 성령은 그걸 보고 충분히 흡족해 하고 뿌듯해 한답니다.

오늘도 상사가 나만 갈구는 소리에 열 받아서 속으로 새까 밤길 조심해라 생각했지만 그래도 에이 저 사람도 사는 게 만만치 않겠지 집에서 와이프한테 뽀뽀 맞고 왔을 거야. 똑같은 사람 되기 싫으니 봐주자 잊어버리자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다면 성령은 그 마음을 듣고 귀엽다고 행복해 하며 웃는답니다.

오늘 하루 여기저기서 쳐 맞은 거 같이 마음이 우울한 퇴근 길에 추운 밤거리에서 대충 입고 다니는 좀 부족해 보이는 사람을 본다면 내가 딱히 뭘 도와주지는 못하더라도 지나가면서 저 사람이 안 추웠으면 하는 그 마음이 내게 든다면 성령은 그 마음을 느끼고 감탄하고 고마워 한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다, 손해를 끼쳤다, 죄 값을 치러야 한다 아무도 나를 용서해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천 번을 생각하든 만 번을 생각하든 성령은 그런 마음을 들을 귀가 없기에 들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눈에는 오직 아름다움이 가득한 하나님의 자녀만이 보일 뿐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마침내 하나님으로 거듭나기를, 잘못을 저질렀다는 믿음을 모래성 허물듯 허물어버리고 모든 속박을 벗고 자유를 찾는 그 날을 성령은 믿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그 날은 이미 여기 존재하고 있으니 언제 그 날을 요구하고 자기 것이라며 가져갈까 성령은 마지막 자리에서 나를 돌이켜보며 기대하며 보고 있습니다.

다음 번에 마음이 힘들 때는 내가 이렇게 부족하더라도 성령은 나를 사랑하는 눈으로 보고 있겠지? 내가 이렇게 잘 되는 것 하나 없는 듯 힘들지만 성령만은 나에게 고맙다고 하겠지? 내가 이렇게 가진 것 하나 없는 것 같고 이기심만 가득한 것 같아 괴롭지만 성령만은 속지 않고 진짜 내 모습을 보고 있겠지? 하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행복합시다 친구들 오늘도 피이쓰~~~!!

28. 성령은 세상을 어떻게 볼까요

2차원 평면을 생각해 볼게요.

얇고 비치는 트레이싱지같은 종이(기름종이같은) 여러 장이 페스트리처럼 포개져 겹쳐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이 종이들은 모두 어두운 색이고 각각의 종이마다 다글다글 솜사탕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솜사탕들은 양파 가로로 잘라놓은 것처럼 중앙에 핵이 있고 동심원을 이루며 밖으로 나갈수록 원이 더 커집니다.

페스트리같이 겹친 종이에 그려진 솜사탕들은 각각 색깔도 크기도 다르고 조금씩 다르지만 각 솜사탕의 중앙 핵이 모든 종이를 관통하여 송곳으로 찢어 엮은 듯 한 지점에 모여 있어서 사실 이 솜사탕 하나는 여러 장의 종이가 엮어진 그림책 같은 거예요.

솜사탕은 그림일 뿐이라서 일렁일렁거릴뿐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는 없어요.

솜사탕은 옆에 있는 솜사탕을 볼 수 있습니다만 자신의 전체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옆에 있는 솜사탕의 모습도 일자 선이 길어졌다 짧아졌다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평면 세상이니까 솜사탕에 달린 눈도 평면이기에 평면 직선이나 점밖에 못보는거죠. 그래서 솜사탕은 둥근 모양입니다만 자신들이 점이나 선인줄 알고 살고 있습니다. 달린 눈이 평면이니, 자기 위 아래로 자기랑 붙어있는 형제들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어요.

이 어두운 종이 말고 다른 모든 곳은 빛이 충만한 세상입니다. 평면 세상은 깜깜하고 어두워요. 하지만 모래알처럼 미세한 빛이 평면에 점점이 뿌려진 것처럼 보이는데 중앙 핵이 있는 부분에서는 외부에서 아주 가느다란 빛이 들어 오기 때문이죠. 이 빛이 솜사탕에게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해 주고 전체 종이판이 썩지 않게 유지해 줍니다.

어느 날 어느 층에 사는 한 솜사탕이 자기 중앙 핵에 뽕 하고 구멍을 냈어요. 빛이 종이 틈새 사이로 들어와 그 구멍 속에 비추어집니다. 어 뭐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위 아래 있던 솜사탕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밝아졌어! 뭔가 들어오고 있어! 따뜻해!

그 아래 있는 솜사탕도 자기가 핵을 갖고 있었다는 걸 기억해내고 뽕 하고 구멍을 냈어요. 그 위에 있는 솜사탕도 그 빛을 이용해 용기를 내서 중앙 핵을 뚫어봤어요. 순식간에 여러개로 겹친 솜사탕은 중앙핵 부분이 통째로 비어 버렸어요. 처음으로 까만 평면 세상에 빛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하네요.

어 뭐야 뭐야? 너 몸 가운데가 어떻게 된 거야? 솜사탕들은 평면 눈을 가지고 있지만 친구 솜사탕인 직선의 중앙이 빛으로 희미해진 걸 볼 수 있었죠.

재 좀 봐! 뭔가 달라졌잖아!

어둠에 익숙해져서 눈이 안 좋은 다수의 솜사탕에게는 그 빛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중앙핵을 비운 솜사탕은 용기를 내어 그 다음 동심원을 또 뽕 뚫어서 버렸어요. 빛이 더 많이 들어오네요.

솜사탕 사는곳이 2차원이라 치면 빛인 성령은 3차원 존재예요. 이 성령들은 2차원세계를 벗어난 솜사탕들의 미래 존재지요. 솜사탕의 모습이 정확하게 보일 뿐 아니라, 그 세계 위아래를 왔다 갔다 관통도 할 수 있지요.

사실 처음에 중앙핵을 비우려는 솜사탕을 도와준 건 성령이었어요. 성령이 다가가 일렁일렁거리는 그림 중앙에 손가락을 갖다 대자 솜사탕은 낫선

느낌에 인상을 찌푸리며 피하기도 하고 버티 보기도 했지만 결국 우웁 하고 토해내듯 중앙핵을 뱉어버렸지요.

성령은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2차원 세상에 자신의 빛몸을 관통시켰어요. 솜사탕들은 이 모습을 똑똑히 봤어요. 그들에겐 까만 평면상에 작은 틈이 생기더니 그 틈이 확 벌어졌다가 다시 사그러드는 것으로 보였어요.

그거만 해도 솜사탕들에겐 바이럴이 되기에 충분했죠. 기적이 일어났어! 내 평생 본 적이 없는 현상이야! 기적을 본 솜사탕들은 열심히 중앙핵을 뱉어내기 시작했어요.

그걸 보고 옆에 있던 다른 솜사탕들도 자기 중앙 핵을 비우기 시작했어요. 전체 그림이 밝아지기 시작하네요. 처음 핵을 뱉어낸 솜사탕은 이미 많은 동심원을 벗었어요. 대량의 빛이 폭포처럼 평면세상에 들어오네요. 이 빛은 다른 솜사탕들의 빛과 연결되어 있어 핵을 벗은 솜사탕들은 모두가 하나인듯한 친근한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이 솜사탕이 동심원을 다 벗게 되면 성령과 똑같아진답니다. 처음과 끝이 같은 지점에 이르러 자신의 손가락을 찌른 성령과 결합할거예요.

성령은 여기 저기 돌아다니며 페스트 처럼 겁친 동심원들중 비협조적인 솜사탕에게 손가락을 들이대며 여기 저기 찌르고 다니면서 평면 세상 곳곳에 구멍이 나 그 틈들로 빛이 관통하는 모습을 흐뭇해하며 내려다 보고있답니다.

어둠에 익숙해 어둠만 보고있는 일부 솜사탕들이 성령의 소문을 듣고 벌벌 떠는 소리를 들으며 성령은 흡족해합니다. 언젠가는 모든 동심원들이 다 사라져서 종이 세상이 통째로 사라져 빛만 남겠죠!

Chapter4. ‘성’과 죄책감, 폭군의식 등

29. 성행위와 죄책감

백년 전? 서구사회에서는 소년들에게 자위 금지 시키는 정조대 같은거 어릴때부터 결혼할때까지 채웠거든, 자위하면 큰일난다 죽을수도 있다 그랬어. 되게 흔한 일이었음.. 정조대가 전쟁터 나갈때 여자들에게 채워놓는거만 있는게 아니라 이런거도 있었음 그리고 중세시절에 종교에서 성행위를 아이 낳을 목적으로만 해야 되고, 섹스 할때 입는 전신내복에 아래에만 구멍뚫린 옷 있는데 그거 입고 하라고 그랬거든, 예전에 종교에서 성을 인식하는거는 죄악시하잖아 신에게 반하는 일이라고하고, 예고가 여기는 성은 말그대로 죄 이거든. 신을 공격하는 행위가 은밀하게 극대화 된 것이 섹스야.

자위에 대한 감정 꼭 여자라서 죄책감 든다고 보지 말고, 남자도 그런거 있거든, 자위든 섹스든 성적 쾌락을 추구할때 왜 죄책감 느끼냐면, 성행위할때 실제로 몸이 하는 일은, 마치 망치로 때리듯이, 아니면 칼로 쏘듯이, 몸을 관통하잖아? 이걸 공격행위를 형상화하고 있거든 성행위가 사랑의 행위가 될수도 있지만 폭력이 되어서 피부가 찢어지고 그럴수도

있잖아? 예고는 신을 공격하는거고, 공격행위를 하면 성적 쾌락이 일어나고, 그로인해 임신해서 새로운 죄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인식하거든, 또라이같지만 이게 미친마음이 성을 보는 관점이야. 따라서 신을 공격해 성적쾌감을 얻으면 신에게 보복당하겠지? 너무 두려우니까 즐기지 못하는거야.

남자든 여자든 사람 없는데서 벗고 자기 몸을 어루만져주는 걸 해봐 그러면서 죄책감, 누가 볼까 두려움, 누가 날 비난할거같고 그런걸 청산하면돼. 그러다가 그런 자기를 만지는 손길이 뭔가 마음에 위로도 되고 그러거든? 성욕이 올라오면, 자위 해도 되고. 그러고나면 또 죄책감 올라올수있어 그러면 또 청산하고. 자위 하면 하면서 공격성이 분명히 있거든 남자든 여자든 역할만 다를뿐이야. 여자도 남자가 터프하게 나오면 더 흥분하잖아? 공격성을 상대가 보여주는걸 보면서 내가 공격하지 않아도 되니까 안도감+대리로 공격하는 쾌감 이렇게 있는거야. 그런 공격성을 느끼면서 다 성령에게 넘겨주면 돼. 자위하면서 성령찾냐 이게 이상하게 느껴질수도 있지만, 성령 입장에서 몸이든 성욕이든 다 환상일 뿐이야.

이 세상은 신에 대한 공격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걸 함께하고 그걸 받아줄 파트너를 찾는게 연애감정임. 그런 공격을 함께할 파트너를 찾아서 공격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공격받을 나쁜놈이 내 외부에 있으니까 죄책감 덜 수 있고, 나는 나쁜놈 아니니까, 그게 절정에 이르면 너무 만족스러워서 오르가즘 느끼는데 이 오르가즘은 천국의 행복에 대한 짝퉁이지. 죄책감을 전가하면 천국을 만나는거 그게 섹스야, 완전 골때리지? 여기 세상은 모든게 완전 거꾸로 뒤집힌 곳이야. 암튼 그래서 섹스를 쉬쉬하고 개인적인 걸로 여기고 말하지 못하고, 자위하는데 아무한테도 피해 안주는데도 하고나면 죄책감들고 그러는거임.

여자가 더 희생양이 되고 더 한이 많고 여자가 더 피해의식에 취약하고 이런거는, 이런 남자 여자로 나뉘어진 미친 세상 속에 여자란 자기 몸에 그 공격성을 끌여들여서 몸으로 죄를 받고있다고 예고가 인식하기 때문이야. 여자가 성욕을 더 거부하고 불감증이 많은 건, 성적 쾌감을 인정하면 자신이 은밀하게 신을 공격하는데 그 공격을 남을 끌여들여서 나 자신에게 해내서 스스로를 희생양삼는걸 인정하기 싫기때문이야.

섹스는 무의식을 푸는 데 정말 어마 어마 어마하게 중요해. 근데 너무 거부감이 심하기 때문에 감히 이거를 파헤치거나 말하거나 하면 공격당하고 사장당하지. 성에 대한 걸 조금씩 내려놓고 풀어놓고 안하면, 나중에 1차크라 열렸을때 너무 힘들고 당황스러워서 거부하게 돼. 나같은 경우엔 성적으로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성에 긍정적이고 잘 활용하는 편이었는데도 1차크라 열렸을때 정말 좀 당황스럽더라고 어디 말할데도 없고 ㅋㅋㅋㅋ

30.성, 섹스, 구원자게임-(1)

지금까지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점잖게 글을 써 왔고, 학대나 방임, 가해, 죄책감 등 민감한 주제도 별로 다루지 않았어요. 수행글이라고 하는 건 에너지상 저차원 에너지를 자극하고 흔들고 때로는 깨부수는 고차원 파동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방어하거나 저항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무의식중에 자극 받는데, 무의식에게 자극이란 곧 불편함이기 때문에그 자극을 교묘히 분산시키느라

글이 길고 때로는 겹겹이 액자식으로 구성되는거예요. 때로는 의도적으로
마구 찌르고 흔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만한 주제가
아닙니다.

생각보다 성에 대한 무의식적인 저항감이 막중한데, 예고에게 성행위란
일종의 마지노선, 보루 같은 거거든요. 본인이 머리로 생각하는 것과
무의식이 느끼는 것은 항상 다릅니다. 대개 완전히 정반대인 경우가 많지요.

성이든 가정사든 관련해서 상처가 심한 사람인 경우 무의식중에 저항감이
올라오고, 댓글에서 자신의 심경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 하고있는 사람들을
보며 거부감과 소외감이 들면서 자신의 경험이 드문 것이었음을 재차
확인하게 되고, 거부감을 느끼는 자신에게 이중으로 수치심을 느끼면서,
의식적으로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본인의 저항감으로 인해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수행 길에서 멀어진다고 다른 정신팔릴만한 일에 빠지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답니다.

저로서는 무슨 글이든 쓰는게 불편하진 않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수행을 하기 위해 여기 모인 거고, 수행이란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서로 조심해야 합니다. 서로 마음을 열고
있는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댓글 다시는 분들도 이 글 뿐 아니라 평소에도
나와 다른 경험과 생각을 가진 다른 사람들을 위해 따스하게 댓글 달아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기존에 제가 써드린 수행법을 몸소 실천 하시던 분이 아니라면 이 글 뿐
아니라 일부 주제에 해당하는 글들이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 있으니 부담없이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성 관련 글들은 적나라한 글이 될 것이니, 성 관련 상처가 있으신 분은 좀 나중에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글은 자극적인 내용은 없어요)

전에도 말했지만 수행자들이 성에 대해 쉬쉬하지만 찌 수행은 성과 섹스가 거의 절반 가까이 차지해요. 성 중에서 성 역할이라든가 이성에 대한 이끌림, 동성에 대한 견제같은 일반적인 것 말고 성행위 그 자체에 대한 것도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저도 아무도 말하지 않으니 뭘 잘 모르는 상태에서 더듬어가며 조금씩 알아낸 건데 보아하니 이 부분을 앞으로도 아무도 말해 주지 않을 것 같으니 조심스럽게 조금씩 이야기 해볼게요.

전에 여성의 성은 좀 더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우리 몸이 죄책감을 전가하는 방식에 있어서 <네가 죄인이다> 라고 전가하는 드러난 방법 이외에도 은밀히 상대방을 <죄 짓도록> 내 몸에 끌어들이는 희생자 방식이 있으며 미친 마음이 여성의 몸을 쓰고 그것을 구현함은 곧 죄책감 전가하는 데 있어서 희생자의 방식을 적극적으로 쓰게 되는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글은 여성들의 성적 판타지에 대해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할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앞으로의 정신문명은 여성들이 이끌어가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수행자 비중도 여성이 많은 거고, 이치상 여성의 희생자애고가 더 깊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정신문명 시대가 여성 위주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깊이 숨은 것이 닳으면 그 깊이로 인해 더 능력이 있어지기 때문이에요.

신성은 사실 순수 여성성이기 때문에, 희생자 에고를 구현해낸 여성이 이것을 되찾기가 더 힘든 한편 여성에게 정신문명의 리더 역할이 주어지도록 되어 있는 것이 합당하지요. 하지만 저는 내심 남성분들이 많이들 수행하기를 원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구의 여성성 남성성 에너지가 여성의 살기 에너지가 갈수록 기세 등등해서 남성들이 꽤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라는 책 전에 댓글에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이 책이 역사상 가장 빨리 베스트셀러 반열에 오른 서구사회 초 히트 센세이션을 일으킨 대작입니다. 주 소비층은 30대 이상의 여성이고 엄마들의 포르노 라는 별명이 붙었을 정도지요.

이 책은 뻔한 팬픽 야설 스토리를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이 책 작가가 팬픽 팬덤에서 활동하던 아마추어 소설가거든요. 영어권에선 팬픽 팬덤 인터넷 무료소설 부분이 규모가 커서 퀄리티가 훌륭한 팬픽 소설이 많답니다.

소설가를 지망하는 사람이라면 이쪽에서 먼저 연습삼아 활동하는 사람도 많고요. 이런 팬덤 소설은 출판사에서 나오는 소설과 달리 검열이나 상상력에 제한이 없어 폭력이나 성 관련 수위가 꽤 높답니다.

팬덤에서 성인물로 검색을 해서 소설을 몇 편 읽어 보면 서구 여성들의 성에 대한 판타지가 어떤건지 알 수 있죠. 남자들은 시각 정보에 약하니까 성과 관련해서 원하는 외적 여성상이 거의 흡사하듯이 여자들도 상상력에 의존하긴 하지만 성과 관련해서 원하는 외적 남성상이 거의 흡사하답니다.

서구 여성들의 판타지인 팬덤 시장에 나오는 이상적인 남성의 모습은 과거가 있는 고독한 남자, 말수 적은, 근육질, 말투는 거칠지만 행동은 부드러운, 권력구조의 상층부에 있는, 능력있는, 피부가 까무잡잡한, 사교적으로는 여자와 친하지 않지만 침대에서는 여자를 능동적으로 한편 자상하게 다루는 이 틀에서 하나라도 벗어나는 경우가 없어요. 오히려 남자들이 그려내는 이상형 여성상보다 더 경직되어 있답니다.

이 그레이의 그림자 책에 나오는 남주는 고독하고 능력있는 연상의 사업가였나 하여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여주는 그 회사에 일하러 온 평범녀이고 이 두사람은 어찌어찌 눈이 맞아 SM 섹스를 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책이 폭발적인 인기를 끈 데는 소설에 나오는 SM 섹스의 긴장감이 거의 대부분의 역할을 했답니다. 남주가 능동적 역할인 돔이고 여주가 수동적 역할인 서브입니다. 전통적인 성역할에서 그닥 벗어나지 않았죠. 이 책에 나오는 성적인 장면이 썩 야하지도 않답니다. 그저 성적 긴장감을 잘 그려냈을 뿐이죠.

페미니즘 사조에 물든 현대 여성들이 이 소설에 왜 열광을 했을까요?

법과 규제 뿐 아니라 사회적 규범에서도 남자와 동등한 현대 서구 여성들이 그려내는 팬덤 야설들에 나오는 남주는 왜 거의 대부분 여자를 무시하는 비사교적이고 압제적인 야수 같은 첫인상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이 남성상은 소설을 쓰는 여성이 십대이든 사십대이든 변함없이 동일합니다. 밝고 쾌활하며 사교적인 상냥한 남성은 절대 팬덤 소설에 남주로 등장할 수가 없어요. 여성들에게 이런 남성은 섹시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밖에 안되지요.

여성들은 도대체 뭘 원하길래 이상적인 아버지가 될만한 남성상을 제쳐두고 압제적인 대상을 성적 대상으로 원하고 있는 걸까요? 팬덤 야설에 따르면 여성들은 거칠고 무자비한 남자에 의해 정복 당하기를 원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현대물이 아닌 시대물을 살펴보면 여성이 하렘 구성원이나 노예로서 갖은 고생을 한 후 권력의 상층부에 있는 남주에게 선택받는 내용도 상당히 공통적이에요.

하지만 이런 팬덤 소설에 공통점이 또 있습니다. 뭐냐하면 이 여성들이 결국에는 이 남자들의 마음을 연다는 것이죠. 여주는 항상 고독한 남자의 상처를 알아보고 남자에게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고, 남자는 이 과정에서 치유되요.

남자의 성적 판타지가 유능한 기사가 되어 여성을 구해내는 것처럼 여성의 성적 판타지 역시 남성의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남성은 여성을 외적인 방해물에서 구원해내는 반면 여성은 남성을 내적인 심리적 장벽에서 구원해내는 점이지요.

역시 십수년 전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소설 트와일라잇 시리즈 아시죠? 남주는 뱀파이어 (야수) 여주는 평범 고딩. 남주에게는 여주에게 다가가기 힘든 심리적 장벽과 비밀이 있고 2편부터 등장하는 삼각관계에 해당하는 다른 남주 또한 늑대인간인 야수이죠. 여주가 뱀파이어 남성은 구원해줄 수 있지만 늑대인간 남성은 몸이 하나뿐이라 구원해줄 수 없는 갈등이 이 소설에서 주요 스토리 라인이고 수많은 여성의 심금을 울렸는데요

성적 긴장과 권력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라서 그레이의 그림자 이야기도 돌아가서 아니 그런데 그 온세계에 센세이션을 일으킨 소설의 여->남 구원 방식이 왜 하필 SM 플레이를 통해 자기 몸뚱이를 바쳐서 남자를 구원하는 거냐고요?

*성,섹스, 구원자게임 글은 7편의 시리즈로 이루어져 있어요. 나머지 글을 보고 싶으시면 카페에 가입해 주세요.

네이버카페 바로가기: <https://cafe.naver.com/herecamelight>

Chapter5. 죄책감, 폭군의식 등

31. 갯을 위한 정화 기도

안녕 친구들 갯에 에너지가 많아서 정화 기도를 올려 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용기있게 몸으로 찢 수행을 제대로 해왔기 때문에, 잠재의식의 좀 더 깊은 층이 열리고 있어요. 깊이 있게 보게 될 수록 더 무섭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미친 마음은 한번씩 저항을 합니다.

미친 마음, 예고는 그 속성이 오만함+고통 회피이고, 현재 갯에 올라왔은 에너지도 그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성 에너지를 다루기 시작할때 올라와 있었는데 요 며칠은 여러분 조금 휘둘리시네요. 이럴 때는 수행도 좋지만 진심어린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면 오만함이 깨지지요!

미친 마음이 아무리 날뛰어도 그걸 안됐다고 여기고 불쌍하게 보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무의식 마음은 너무나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있기에 아픈 애를 비난해봤자 소용이 없지요. 사랑으로 안아주지 못하겠어도 개랑 싸우지는 마세요. 그냥 놓아주세요. 아픈 아이입니다.

보시는 분은 아무 시간이든 상관없으니 마음으로 따라해 주시면 갯이 정화 되겠습니다.

저는 자주 기도를 드리는데, 오늘은 그냥 제 마음 편하려고 제가 드리고 싶은 기도를 쓰고 있는 것이니 내키지 않으시면 읽어만 주셔도 좋고요! 저도 종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안 드시면 당신이나 성령으로 바꾸시면 괜찮을 듯 하고요.

<우리 갯을 위해 드리는 기도>

아름다운 친구들을 만나 이 공간에 모이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뜻 깊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 당신을 부릅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여기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흘린 눈물도 답답했던 가슴도

격렬한 미움도 아팠던 자존심도

모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삼키고 받아들였습니다

고통을 용기있게 직면하여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찾게 하소서

누구 하나 버려 두지 않고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다른 모든 것 앞에 당당하겠습니다

오만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매일 매일 겸손해 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 놓아 주겠습니다

당신과 저의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것을 하나 하나 놓아 주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당신을 만나고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걸어온 이 길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하나님 안에 녹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소서

저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를 하나님의 뜻대로 쓰소서

하나님과 저는 하나입니다

이제 당신께서 저를 대신하소서

성경은 잘 모르지만 좋아하는 부분 붙여 봅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인데요

예전 수행 초기에 수행하면서 힘들때 방 옷장에 붙여 두고 몇년간
매일이다시피 보던 구절입니다. 저도 매운맛 예고라 오만함이 날뛰어서 참
힘들었는데 이걸 읽기만 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고 참회가 되더군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팽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32. 죄책감을 느끼지 않겠다는 결정

대부분의 수행이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혀 파동을 잠잠하게 하는 것이 비해 우리 수행은 파동을 직접적으로 지우기에 예고는 죽지 않으려고 날뛵니다. 온갖 생각을 들게 만들고, 감정 동요를 하게 만드는데, 자연스러운 현상이지요.

이때 그것을 객관화하면서 이상한 생각 하고있네? 이거 내 마음 아닌데? 하고 탁 깨우치지 못하면, 그 괴로운 생각과 감정이 진짜인줄 알고, 내 생각과 감정인 줄 알고 고통스러워하게 됩니다.

마음이 잘 안 돌이켜지면, 벌떡 일어나 걷든가 운동하든가 해서 고통스럽기를 거부하면 되는데 계속 괴로워한다는 건 괴롭다는 말은 사실 거짓말이고 실제로는 벌 받고 있고 싶고 고통스러운 것을 즐기고 있다는 뜻밖에 안됩니다.

찢 수행은 내가 죽거나 예고가 죽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바른마음 vs 미친마음 글 참조 하시고요. 원래 수행한지 좀 시간이 지나야 이 정도 에너지가 올라오는데 지금 솔라스톰 기간이라 강한 에너지가 올라와 있는데 정신력을 준비해놓지 못한 상태에서 성에너지까지 건드리니 기혈이 열린 사람일수록 마음이 괴로울 겁니다. 지금 마음이 괴로운 사람이 수행이 되고 있는거고,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은 아직 덜 열린 거예요.

이 수행법은 기적수업처럼 죄 없음을 자주 상기시켜주는 강력한 툴이 없다면 미친 마음이 위협을 받기에, 강인한 정신력이 없다면 휩쓸리고 힘들수가 있어요. 강한 정신력은 누구든 타고나지 않기에 매일 매일 조금씩 만들어 나가야겠지요. 강한 정신력은 하나님 마음이 아닌 왜곡된 마음을 거부함으로 인해 만들어집니다.

운동, 식습관 외에도 괴로운 마음이 올라올 때 그것을 내 것이 아니라고 거부하세요. 억지로 마음을 돌이켜 웃고, 재미있는 영상 찾아보고, 껌에 들어와서 다른사람들하고 깔깔거리면서 댓글 다세요. 소외감 올라오고 나는 못 끼어들 것 같으면 아 이거 예고구나 깨치고 억지로라도 끼어드세요. 그러면 그 소외감 깨지시요.

마음의 자유를 얻으면 감정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쓰게 됩니다. 그러려면 연습을 해봐야겠지요? 자기 감정을 자기가 조절해서 원하는 감정만 가지는 것 가능합니다. 안 해 보셔서 못 하는 줄 알고 있을 뿐이지요.

우울하면 일부러 유튜브 뒤져서 웃긴 영상 찾아서 껌에 공유해보세요. 다같이 웃으면서 기분 좋아지시요. 심각할 것 뭐 있어요? 잘 안 되면 잠시 물러났다가 다음에 또 하면 되잖아요. 죽지 않는 한 기회란 있는 거지요. 빠르건 늦건 이미 들어섰으니 천국은 여러분들 것이지요.

기적수업 합본 교과서 288쪽 함께 보겠습니다.

<죄책감을 느끼지 않겠다는 결정>

1. 행복한 학습자는 배우는 과정에서 죄책감을 느끼지 말아야 한다.

이는 배움에 있어 필수적인 자세이니 결코 잊지 말라.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학습자는 생각이 자유롭기에 쉽게 배운다.

291쪽

11. 네게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네가 결정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너에게 자격이 있음을 아신다.

12.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을 네가 진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하나님이
고요하고 확고하게 아들을 가치있게 여기시는데

너는 자신을 보잘것없다고 평가하려는가?

그 무엇도 당신의 창조물은 완벽하게 순수하다는 하나님의 확신을 흔들 수
없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완벽하게 순수하다.

그렇지 않다고 결정하지 말라.

그들은 하나님께 속하기에 참됨이 틀림없다.

15. 하나님이 거룩하게 창조하신 아들을 평가하려 들지 말라.

너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잊지 말라.

16. 성령께 "나를 위해 결정하소서." 라고 말만 하라.

그러면 성령이 결정한다.

성령이 너를 위해 내린 결정 뒤에 모든 지식이 있는데

왜 네가 알 수 없는 것을 예측하느라 허둥대는가?

19. 성령이 너의 무죄를 지각하는 법을 너에게 조용히 가르치도록 허락하라.

너는 이미 죄가 없다.

학생용 연습서 = 워크북 하고 계신가요?

우리 수행은 워크북 매일 하지 않으면, 심란해서 힘들어요.

저는 기적수업 모를 때 수행에서 오는 모든 저항을 운동 및 의지력으로 이겨냈는데요

저같은 짓 하지 마세요ㅋㅋㅋ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워크북 매일 하세요.

완벽하게 하지 못하고 대충대충밖에 못하겠다 그러면 대충이라도 하세요.

워크북 하는것 자체가 성령의 보호를 받기에 유익이 있습니다.

겉에 글 쓰기가 개인적인 이야기 하기 꺼려지면,

기적수업 교과서나 워크북 마음에 드는 구절 옮겨서 공유해 보세요.

이 께과 다다붓은 자동 정화기계입니다.

다다의 마음은 파동을 많이 제거했기 때문에 마음이 그려내는대로
현실창조능력이 뛰어납니다. 이 마음에 여러분을 자꾸 인지를 시켜 주셔야
다다가 그려내는 맑아진 마음으로 행복해지는 사람들 속에 여러분이 있어요.

그 매커니즘을 무의식중에 아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꾸 께 들어와서
아무말대잔치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께과 다다붓을 많이 써 주셔야 다다도
카르마 갓고 몸 벗는 거니까 원원이에요. 숨지 마시고 그것에 자꾸 자기
자신을 인지를 시켜 주셔야, 본인이 혜택을 입습니다.

말의 내용은 상관이 없습니다. 남에게 혹 피해주지는 않을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무슨 에너지를 갖고 댓글을 쓰든, 께 자체가 포털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 다 소진 됩니다.내용이 어떻다보다는 다다나 께에
자신을 인지시켜 주는게 중요한거예요. 그걸 보고 소외감 느낄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끼어 드셔야 됩니다.

281과 함께 보겠습니다.

나의 생각만이 내게 상처를 줄 수 있다.

아버지, 당신의 아들은 완전합니다.
내가 어떤 식으로든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내가 누구인지 잊었고,
내가 당신이 창조하신 그대로라는 것도 잊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생각들은 오직 행복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슬프거나, 상처받거나, 아프다면,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을 잊었고,
당신의 생각들이 속한 곳,
당신의 생각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나의 작고 무의미한 관념을 갖다 둔 것입니다.
나의 생각만이 내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생각들은 오직 축복할 뿐입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생각들만이 진실입니다.

나는 오늘 나 자신에게 상처주지 않으리라.
나는 모든 고통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나의 아버지는 나를 천국에 안전하게 두시고 지켜보신다.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것을 나 또한 사랑하기에,
나는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아들을 공격하지 않으리라.

33.올바른 수행의 척도

여러분 이 인간 개작살 매운맛 인격을 가진 냉정하기 그지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혼자 올 수 있었겠죠?

여러분이 보시는 다다붓은 성령 빙의된 순화버전입니다. 빙의 안된 인간 다다도 그래도 공부가 좀 되서 화 나거나 속상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인간이 빠치는 소리가 왜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수행의 척도나 경지를 차크라 색깔보기, 빛 보기, 가위 놀림, 귀신 보기, 에너지 느껴짐, 소리가 들림, 미간 간질간질함, 뒤통수에 송과체 열리는 느낌 있음, 팔다리로 뭐가 빠져나가는 것 같음 등등의 신체적 느낌을 통해 논하는 일이지요.

이게 왜 다다붓 마동석화 시키는 소리인지는 설명을 안하겠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미겔에서부터 수없이 설명 했다고 생각 합니다.

수행의 척도나 경지의 올바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적수업을 읽으면 전에는 어려웠는데 이제는 어떤 구절들이 마음에 와 닿아 눈물이 난다.
- 친구가 내게 하소연하면 전에는 짜증났는데 이제는 친구의 마음이 느껴진다.
- 전에는 외면해와서 뭔지 모르던 내 감정이 분노인지 슬픔인지 후회인지 구분이 된다.
- 길 가다 본 모르는 사람이 잘 되기를 지나가면서 마음으로 기도한다.
- 나를 싫어하던 가족구성원이 내게 고맙다, 심지어 네 덕분에 산다 라고 말한다.
- 밥상에 밥 차려져 있는 게 감사하고 의미깊게 느껴진다.
- 전에는 미워하던 이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신 것에 대해 의미있게 느껴져 감사드리게 된다.
-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 등 전에는 소음으로 들려 짜증났던 소리들이 이제는 정겨운 소리로 들린다.
- 우울하던 기분이 의도에 따라 돌이켜지고 고맙지 않던 것들이 고맙게 느껴진다.
- 내가 태어난 이유를 알겠고 여기에 왜 존재하는지 알겠다.

지금 솔라스툼 기간이라서 수행 하지 않는 사람도 타고난 파동체 구성이 맑으면 몸 변화 있습니다. 어차피 이 기간에 상승 함께 하려고 온 영혼들은 수행하지 않아도 감정적 변화 겪으며 몸 변화 오고 상승 하게 됩니다. 그럼 왜 굳이 저나 여러분이 특이한 인연으로 여기 모여 있을까요?

상위차원에서는 저를 써서 차세대 리더들을 찾는거지, 적당히 인생 펴서 즐겁게 살 사람들 찾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버리고 비워서 신성을 회복해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견인차 역할을 할 사람들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픈된 공간에서 많은 것을 오픈하고 직접 보고 배우게 하는거고요.

수행법이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남에게 뭘 알려주고 있는것은 판단, 분별해야 되는 일이라서 언제든 예고를 쌓고 수행한거 도루묵시킬 위험이 있어서 저는 정말 정말 조심하고 있습니다. 저도 잡혀와서 이러고 있는 거고요, 작년 초까지 뭘 알려주고 코치할생각 1도 해본적이 없습니다. 수행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힘들겠지만 저에게도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서로 힘 빼는 소리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34. 독재자, 폭군 청산을 위한 기도

이 뭘 일이고?? 갬에 독재자, 폭군 죄책감 대박 올라와있네요 ㅋㅋㅋㅋ

기회는 이때다 같이 청산해 봅시다. 위, 명치에 의식을 집중하고 천천히 심호흡 하며

천천히 글을 한 줄 한 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는 이여

그 희번득거리는 눈길을 거두라

그대는 허상일 뿐이니

그 발톱을 거두라

명치를 짝 잡은 집착을 놓아주라

위를 돌아 심장을 움켜쥔 불안이여

너는 원래 없었으니

성령께 용서를 청할 뿐

사랑하는 이여, 성령이여

없는 것을 없는 것으로 바로 보게 하소서

마음 안에서 모두 하나

나보다 못해 보인다면

나보다 잘나 보인다면 모두 착각일 뿐

다르게 보려 하는 눈을 뽑아버리고

성령께 그 눈을 대신해 달라 청합니다

놓아라, 놓아버려라

아가야 그만 놓아주렴

괜찮다, 놓아버리렴

움켜쥔 그 손에 피가 나고 아프다

괜찮다, 놓아버리렴

너는 아무 잘못된 것이 없단다

죄 짓지 않았음을 받아들이렴

원래부터 죄 없었음을 받아들이렴

죄란 존재하지도 않는단다

받아들이렴

무서운 꿈을 꾀 것 뿐이란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단다

어떤 잘못도 저질러지지 않았단다

어떤 대가도 치를 필요가 없다

믿으렴, 믿어 보렴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 한단다

고개를 돌려

너를 사랑하는 그를 보려무나

어깨에 올려진 그의 손길을 느껴보렴

그는 오직 너를 위해 존재한다

크게 숨을 내쉬어 보렴

등 뒤에서 바람이 불어 와

모래성처럼 허물어져 쓸려 가는 집착을 보려무나

아무것도 아니었다

모두 끝난 일이다

차이를 보지 않고 같음을 보겠습니다

오만하지 않고 겸손해 지겠습니다

경쟁하지 않고 섬기겠습니다

비교하지 않고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나 또한 사랑이어라

뜻 깊은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하소서

사랑이 되어 있기를 청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녹아내리기를 청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청합니다

원래부터 하나였음을 알게 하소서

내 사랑하는 이여

얼마나 그대를 사랑하는 지 그대는 알 수 없으니

그대 나를 업고 세상에 나아가

아픈 마음 어루만져 주는 이 되어라

세상 눈물 닦아 주는 이 되어라

내 모든 것인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립고 그리운 이여

영원히 하나로 깨어날 날

언제나 당신을 그리워했다고

언제나 당신을 사랑했다고 말하겠습니다

35. 뭐든지 내가 한 건 잘했다

친구들? 요새 죄책감 마니들 올라오나보네 낮잠을 자서 잠도 안 오니 이 글은
올드한 미갬 스타일로 글을 써볼까 후후후 추억돋네

생각이나 감정을 믿지 말고 사실을 믿어. 너의 본질은 우주의 지배자라는 사실 말이야.

이건 기적수업 워크북에도 제목으로 나오는거야 ㅋㅋㅋ

믿음은 믿으려고 애써야 자기것이 되는거야. 그냥 주어지지 않아.

우리 여기서는 서로를 믿어주고 서로를 함부로 판단하지 말자구.

믿어봐 친구들을. 특이한 인연으로 모인 사람들이잖아.

내가 나 자신을 보는 것보다 내 친구가 나를 더 좋게 봐줄 수 있다는 걸 믿어봐.

네가 지우고 싶은 그 댓글 다른 친구들은 보면서 웃고 즐겼던 아무 문제없는 댓글이야.

좀 더 뻥뻥스러워 지는 것이 어때? 지금까지 쫓보처럼 살았잖아?

하하하 그랬구나 내가 속을뻔했구나! 하고 웃고나서 또 개드립 쳐주면 어때?

니가 지워야된다 생각한 그 개드립 덕분에 우리가 얼마나 즐거웠는데.

너의 본질이 우주의 지배자인데

자기가 해놓은 것을 돌아보며 누가 날 평가할지 안 할지 생각해야 한다니

남이 나쁘게 보진 않을까? 쫓아야 한다니

내가 한 것이 좋은건지 안좋은건지 스스로도 평가하고 있다니

혹시 좀 억울하진 않아?

우주의 지배자가 평가를 받다니?

아.. 아직 안 억울한가?

우주의 지배자는 커녕 내 인생의 지배자도 아닌 것 같은데 이뭬개소리
싫은가?

아니 니가 니 인생의 지배자라고 아직 선언을 안했자너 ㅋㅋㅋ

주권을 넘겨주고 있던건 자기 자신이라고

너가 뭘 해봤는데

아 이거 별론데? 너 왜 이렇게 했어? 이러면 돼 안돼? 하는 소리 들리면
닥 쳐.

라고 면박을 주도록 해.

아니 일상생활에서 매번 울면서 성령님 용서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럴거야?

좀 쎬게 좀 나가봐 친구.

강단이 그렇게 없냐?

사회생활 다 해봤자나

또라이 질량보존의 법칙 다 알자나

제정신 못차리는 사람은 대놓고 아이컨택 하면서 면박 주면 갑치지 못해.

이런 거 저런거 나쁜거고 하면 안 된다는 고정관념은 좀 버리고.

뭐든 다 필요하니까 있는거지. 쪼꼬미때 엄마한테 배운 거 좀 다 버리고.

집단에서 대놓고 면박 줄 줄 아는 사람 하나 있으면 다른 구성원들이 내심 얼마나 속으로 안심하는 줄 아냐 ㅋㅋㅋ 강단이란 꼭 필요한거야 친구들 없으면 좀 키워봐봐. 연습좀 해보라고 싫은 건 싫다고 말 좀 하면서 대심함 좀 키워 봐.

여기 동물의 왕국이라니까... 그런거 못하면 토끼 되는 수 밖에. 아니 토끼 되고 싶으면 되는건데 왜 또 되고 나서 그걸 그렇게 힘들어하냐. 하하하 내가 토끼구나 강단이 좀 없구나 하고 웃으면 되지 ㅋㅋㅋㅋ 공격 못하겠으면,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피하면 되지.

근데 에고한테는 강단이 좀 있어야, 개가 뭘 짓 하든 상처를 안받지. 강단이 없으니 개가 하는 말이 진짜같고 그때마다 흔들리지. 내가 우주의 지배자인데 지까짓게 뭐라고 감히 나를 평가하냐고? 내가 내인생의 지배자인데 뭐 이런 작은 거에 평가를 받아야 되냐고?

뭐든지 내가 한건 와 못했다! 와 부끄럽다! 와 왜 이랬지! 이거밖에 못하나! 라고 생각을 수십년째 해오니까

그거 되돌리려면 뭐 감정 청산하고... 엄마도 청산하고 아빠도 청산하고...
학교 선생님도 청산하고... 애인도 청산하고... 초딩때 나 때린 짝꿍도
청산하고... 다다 글도 다시 다 읽어보고... 기적수업도 열심히 하고...
워크북도 하고... 운동도 하고... 아 이걸 뭐랬지 어떻게 청산하는거더라... 아
졸린데... 감정 안올라오네 어떻게 하지...

그런것도 다 해야 하는 것이겠지만

이제부터 뭐든지 내가 한건 와 잘했다! 라고 생각부터 돌이켜 보면 어때?와
나는 내가 너무 좋다! 와 내 인생도 너무 좋다 와 내가 해놓은것들 다
완벽하다! 하~ 감탄이다 하~ 이렇게 잘해놓다니 와~ 이런 멘탈리티로 살면
그런 삶이 어떨 거 같아?

어떤 기분으로 하루하루 살게 될 지 상상이 가?

와 우리 엄마가 우리 엄마라서 너무 좋다 엄마 아예 없는 애들도 많은데...

와 우리 아빠가 우리 아빠라서 너무 좋다 아빠 아예 없는 애들도 많은데...

와 내 남편 너무 괜찮네 술 담배 도박 바람피는 남자들도 많던데...

와 지구에 사람으로 태어나길 너무 잘했다 동물로 태어나서 잡아먹히는
애들도 많은데...

와 사지 멀쩡해서 개좋다 장애인도 많은데...

와 머리카락 있어서 개좋다 요새 탈모인도 많던데...

와 집에 지붕 달려서 개좋다 집 없는 노숙자도 외국에 보니까 많던데...

와 비온다 비와서 넘좋다... 와 바람분다 바람불어서 좋다... 와 눈온다 눈와서 기분좋다...

아니 그런 기분이라면 뭐 재벌이라도 되어 되고 지구라도 구해야 될 줄 아나본데... 안 그래도 되고 일단 생각만 돌리고 시야만 확장하면 얼추 비슷하게는 되거든. 청산을 다 해야만 그렇게 살게 된다 이거도 아니고, 일단 그렇게 살고 나서 청산을 마저 하면 되잖어? 이왕 살거 괴롭게 생각하면서 살면서 청산 하느냐 즐겁게 생각하면서 살면서 청산 하느냐 이왕이면 후자가 낫지않음?

그렇게 생각을 억지로 하면 거짓말 같이 느낄 거 같다고?

아니 당연하지 생각을 완전히 거꾸로 돌리는 건데 그럼 참부터 그게 진짜같이 느껴지겠냐? 그게 더 이상하지 ㅋㅋㅋㅋ 그런식으로 생각을 안 해봤으니,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이 지구상의 그 누군가는 부러워하는 것이라는 걸 생각조차 못하지 한국에 살고 있는 것만 해도 지구상에 몇십억명은 개 부러워하고 있다고 생각은 해도 감정은 그렇게 안 느껴진다고?

그럼 일단 그렇게 생각 한 다음에, 그렇게 안 느껴지는 그 감정을 청산하면 되지

감정 청산법도 알잖아 개꿀이지 ㅋㅋㅋㅋ 뭐든지 이것도 안되고 요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고 이걸 이래서 안되고 요건 요래서 안되고 저건 저래서 안되고...

아 도대체 뭐가 된다는 거냐?

저런 생각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어?

숨도 안 쉬어지겠구만 아주.

이건 이래서 좋고 요건 요래서 좋고 저건 저래서 좋아야 행복하지 비가 와도 좋고 눈이 와도 좋고 햇빛 쨍쨍해도 우박이 떨어져도 벼락이 쳐도 좋고 오늘은 월요일이라 좋고 내일은 화요일이라 좋고 뭘 일이 어떻게 나든 그냥 존재하기 때문에 행복하다면 얼마나 좋겠냐?

스스로를 닥달하지만 않으면 훨씬 더 행복할텐데 너는 여기에 이미 존재하고 있으니까, 너의 존재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거야 너는 이미 그런 행동을 했으니까, 너의 그런 행동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거라고 만일 네가 여기 존재하면 안되는 것이었다면, 넌 여기 존재하고 있지도 않을테지 만일 네가 그런 행동 하면 안되는 것이었다면, 그런 행동 할 수가 없었을테지

뭘 말인지 이해 감?

진짜 안 되는 거였다면 우주 차원에서 허락이 떨어지질 않았겠지

아예 하는것이 가능하지도 않았겠지

네가 존재하면 안 되는 존재면 아예 존재하지를 앎고 있을 거라고...

안 그럼?

우주의 지배자가 맘대로 하여라~ 해도된다~ 라고 허락해 줬으니까 할 수가 있는 건데

그걸 해놓고는 하면 안되는 것이었다고 벌벌 떨어야 한다니

아니 이게 무슨 변태짓이람?

초기 미겔 스타일로 글 써보니 재밌구나 ㅋㅋㅋ 행복하자 친구들

오늘 하루 가족들과 뜻 깊은 새해 첫날 보내길 바래!

36. 잠, 몸변화, 식습관 등

안녕 친구들 잠 자면 된다, 안된다 한마디로 딱 하면 얼마나 좋겠냐 ㅋㅋㅋ

그게 아니니 또 글을 쓴다. 에고의 이 세상 참 복잡하지 애가 하는 것이 다양하니 대처법도 단순하지가 않아. 우선, 지금 솔라 플레어 기간이라 일반인은 평소보다 한두시간 많이 자는거 권장할만해 낮잠도 권할만하지. 짧게라도 낮잠을 좀 자. 그런데 너무 많이 잔다, 막 하루 10시간씩도 잔다 이걸 그냥 에고가 저항하고 있는거야.

잔다는 건 몸을 움직이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잘때 성령이 뭘 해준다고 해도 기혈이 열려서 땀이 나거나 기운이 움직이는 상태가 아니기에 나가는 에너지가 적고 많이 잔다고 개운하지 않고 도리어 근육이 뻣뻣해지지. 여기까진 일반인 기준 설명이었고,

수행자라면 이 시기에 잠을 많이 자버리는 건 현명한 일이 아냐.

왜냐 자면서 성령이 조금 해주는 것보다 자신이 수행해서 내보낼 수 있는 에너지가 훨씬 많아. 감정 버리고 참회하는 수행은 그 자체로 마음이 맑아지기

때문에 잠이 많이 필요하지 않게 되고 감정 많이 내보낸 그만큼 기혈이 열리기에 성령이 잘 때 도와주는 게 더 효과가 있게 돼. 찌 수행을 하면 나중에는 예고가 저항을 하다 하다 뭘 짓을 해도 안 통하고 계속 당하기만 하잖아?

그럼 저항이 주로 잠으로 와. 뇌를 섰다운 시켜서 아무것도 못 하게 만드는 거지.

다다 백회 열때 한달간 무슨 짓 했는지 이야기 했잖아? 30분 수행하면 미친듯이 졸리고 근육통 생기고 팔다리가 안 움직여질 정도로 죽도록 졸리고 몸이 무거워서 밖에 기어 나와서 으악 으악 하면서 운동해서 근육통, 졸린거 푼 다음에 다시 수행 하면 또 30분 후에 그렇게 되어서 또 나와서 으악 으악 아픈거 참으면서 운동해서 풀고 다시 들어가서 수행하고 막판으로 갈수록 예고가 저항해서 자게 만든다고 그랬었어. 기억나냐...

앉아서 명상 하다가 너무 미친듯이 졸려서 정신 잃고 쓰러진 적도 있다고 그랬자나 그때 하루 잠 2시간쯤밖에 안잤어 수행 하면 잠 많이 필요 없어, 감정 풀고 울고불고 하면

그거 자체가 에너지 나가는 건데 뭘 또 잠을 자서 에너지를 성령이 빼주기를 기다리냐...

잠 얘기 하니까 그 글 댓글에서 와글와글 사람들이 어떡하지? 와글와글~~ 그래그래 잠 자면 되겠다~마니 자야지~ 하지? 그럼 속은거를 알아야지 이사람들아 ㅋㅋㅋㅋㅋㅋ

자기 생각대로 하면 수행은 골로 가는 거임 ㅋㅋㅋ 하기 싫은 짓을 하는 게 수행이라고 여러번 말했지

근데 그렇다고 잠 적게 자고 수행해라 이거는 너무 힘들지 왜냐 직장생활도 해야되고. 직장생활 하는 사람은 피곤이 심할테니 한두시간 더 자고 낮잠도 좀 자고 그래. 근데 여기 한가한 사람들 많던데 잠온다고 족족 자는건 좀 아닌거지 ㅋㅋㅋ 수행 어차피 하려는 사람들이라면 지금은 잠보다는 열심히 수행을 할 시기야. 수행빨 최고 잘받는 시기임. 요새같은 시기가 얼마나 수행버프 개쩌는 시기인지 잘 모르니까 목숨걸고 못하는거임 ㅋㅋㅋ

그리고 물 많이 마시라고 하루에 최소 8잔 마시라고 이야기 많이 했는데 아직도 실천하는 사람은 적을거야. 수행하는 만큼 효과 보고 싶다면 제발 물을 많이 마시길 바래.

몸이 에너지몸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다다는 미리 다 겪어서 이것저것 하라고 말해주는거니 하라는 대로 좀 해봐.. 고집 세우지 말고.. 몸 아프면 본인이 힘들잖아. 몸에 물 적으면 인체 변화 과정에서 몸이 불에 타는 고통을 수십 번을 겪어야 해. 그렇게 아프고 싶진 않잖니?

유지 크리슈나무르티는 일주일 내내 그 고통 겪었다 하더라. 다다는 몇 년에 걸쳐 2시간짜리 불타는 고통을 70번 정도 겪었어. 그거 내 생각엔 물 충분한 몸 만들어놓고 기적수업 있으면 그 고통 안 겪어도 되는 거야. 미리 미리 대비를 해놔.

물을 적게 마시면 인체에서 기운이 오가는 길도 다 말라붙어 찌그러들어 있기 때문에 수행 해서 에너지가 흐를 때 적게 흐르고, 성령이 도와주려고 해도 인체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한계가 있어. 감정 올릴 때도 당연히

만성탈수면 감정 잘 안올라와. 세포가 물 한방울이라도 잃지 않으려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당연 눈물이 잘 안 나오지.

물질 몸에서 에너지 몸으로 바뀌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건데 원래 이걸 개인이 수행을 빠르게 해야만 가능한 일이야. 근데 시기가 되어서 지금 솔라 플레어가 그 역할을 어느정도 해주고 있고, 여기 모인 사람들은 수행도 하면서 기혈을 열어서 솔라플레어의 효과를 더 보려고 하고 있는거야.

기혈이 아예 열리지 않은 사람은 솔라 플레어가 들어와도 빛에너지가 인체에 주입이 안되기 때문에 몸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기혈이 많이 열려 있는 사람은 솔라 플레어 때문에 감정 변화가 더 심해. 전자렌지 돌리면 물 분자와글와글 춤추잖아. 그거처럼 몸안이 와글와글 분자들이 교란되고 있는거야. 와글와글거리니까 몸에서는 흔들흔들 진동으로 여겨지지. 흔히 말하는 주파수 상승이 있는거야.

이때 이 감정적인 괴로움을 마음에서 놓아버리면 즉 집착을 놓아버리면 마음이 닦이는 건데 예고가 저항해서 두려움을 더 올려버리면 집착이 더 심해지지?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이나 행동양식이 극단적으로 서로 갈리는거야. 가족 내에서도 서로 분화되고 갈등이 심해지지. 하지만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인생 그림을 자기가 바꿀 수 있기에 가족도 바꿀 수 있을거야.

식습관은 고기 적게 먹고 싶어진다, 술이 땡기지 않는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거고 담배 피던 사람도 끊기 좋은 시기야. 한식 위주로 정갈한 식습관을 하는

게 좋지. 고기 먹어도 소화가 잘 안될거야. 유제품도 피하는 게 좋아. 우유 안좋다고 전에 이야기 했음

그담에 전자기기 사용 줄이라고 몇번이나 말했음. 통신에 쓰이는 극초단파 자체가 매트릭스 관리자들에 의해 사람들을 잠재우고 의식성장 못하게 만들기 위해 죽음의 파동을 쏘아서 무기력, 우울감 강화시키기 위해 만든거야. 농담이나 과장하는 게 아냐. 반대로 너무 무서워할까봐 축소시켜서 말하는거야. 뭘 모르니까 못느끼니까 그러고 있는거지 현대사회에 잔인한 범죄 많아지고 있는 건 그런 전파 기지국 때문이야.

몸이 느끼지 못한다고 그 영향력이 없는 게 아냐. 수행할수록 몸이 고주파에 민감해져서 더 기민하게 느끼게 돼. 평소 폰 사용 줄이고, 잘때 와이파이 공유기, 티비 셋탑, 폰 다 꺼놓고 자. 폰 사용시에는 머리에서 떨어뜨려서 사용하고. 티비, 유튜브 보는거도 수행자라면 좀 줄이세요. 세뇌시키듯이 뇌 작동을 불활성으로 만듦. 걔 들어올 때도 되도록 컴퓨터로 들어오는걸 추천

그럼 솔라 플레어니까 그냥 가만 있으면 어느 정도 닦이는 거하고 수행 하는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면 솔라 플레어는 우주에 속한 빛이잖음? 수행은 그거보다 더 상위차원의 절대계의 빛을 만나기 위해 수행하는거야. 절대계의 빛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만 우주전체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

dada수행글모음 Part3 바로가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1quKQU1qrcZprRndzhRHPYa
tm4OatnoxleyQil4rKqE/edit?usp=sharing](https://docs.google.com/document/d/11quKQU1qrcZprRndzhRHPYa
tm4OatnoxleyQil4rKqE/edit?usp=sharing)

네이버카페 바로가기: <https://cafe.naver.com/herecamelight>